

공직문학상

2022

수상작품집

대상 <목련행 야간열차> 외 46편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2022

공직
문학
상

2022년

공직문학상

2022년 10월 발행

발 행 인사혁신처

발행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Tel. 044) 201-8385

펴낸곳 U&I 문화정보 Tel. 042) 242-0897~8

※ 이 책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공 직 문 학 상

2022



수상작품집

대상 <목련행 야간열차> 외 46편



차 례

대상수상작	대상	목련행 야간열차	서울특별시 손현승	8
-------	----	----------	-------------	---

시

금상	열역학 제2법칙	안양시 이나현	12
은상	레테(Lethe)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박한울	14
은상	오목거울 앞의 자화상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 오현춘	16
은상	미륵사지 석탑앞에 서서	행정안전부 박동경	18
은상	감태	경산시 서정석	20
은상	미술시간	미추홀학교 고경희	22
은상	너와 나의 평등한 수식은 무엇인가	목호중학교 장진호	23
동상	모시적삼	서울특별시 종로구 황성관	24
동상	이쁜 옷 입고 갈걸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김춘식	26
동상	피카소의 연인이 되고 싶어요	국토교통부 장미영	28
동상	트럭을 견인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강수	30
동상	몽돌 할매들	서울특별시 안지호	32
동상	처서(處暑) 아침	고용노동부 성재봉	33
동상	고고학자	감포초등학교 김세원	34

시 조	금상	도요(陶窯)	전) 전주 중산초등학교 신정모	36
	은상	빅뱅	대전 감천중학교 박상환	37
	은상	진달래꽃	봉화소방서 김일하	38
	동상	개나리 산책	인천광역시 부평구 김상섭	39

수필

금상	양철나무꾼의 심장	충주시 김윤서	42
은상	강담이야기	전) 이천시 정주호	46
은상	돌을 읽다	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이규준	53
은상	선택	해오름초등학교 이서영	58
은상	겨울 실업	충청북도 김남석	64
은상	교도관이 된 사서	충주시립도서관 신은빈	69
동상	세상을 올려다보며	전) 인천 연성중학교 김정렬	74
동상	무전기	전) 서울 양천경찰서 최호열	80
동상	父子의 길	경상남도 변경록	84
동상	골목대장	남양주시 이병열	89

단편소설

금상	잔여물 관리센터	오산시 최은경	96
은상	표절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양소연	118
은상	어떤 인연	동원중학교 박상희	143
동상	그녀들의 혼한 사정	창원시 성산구 김혜진	163
동상	부탁	계룡시 김상아	185

동시

은상	손거울 세개	순천삼산초등학교 임미리	202
은상	담쟁이덩굴	신서중학교 김은정	204
동상	달	인천광역시 서구 김명진	205
동상	수저 보름달	세종양지초등학교 김경선	206
동상	소풍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정호	207

차 례

동 화	금상	비밀 친구	동산초등학교 이상백	210
	은상	생일날 온 특별한 편지	강원지방우정청 원주우편집중국 이재우	223
	동상	사라져, 압!	전) 포항시 조자연	235
	동상	진실 게임	서울연주초등학교 송은주	249

공직윤리	은상	아일랜드	인천광역시 부평구 최미선	262
------	----	------	-----------------	-----

공직공감	은상	모든 게 사랑이었네	전) 경기도교육청 채광선	274
	동상	별과 별사탕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박선아	286

심사평	2022년 공직문학상 심사를 마치며...	298
-----	------------------------	-----

2022년 공직문학상

대상 수상작

목련행 야간열차 · 손현승



서울 올라오는 아버지
머리칼 베어 기차표 끊으시네
배가 고파 주먹 두 개와 바꾼 삶은 계란에
목이 메네
창밖의 어둠 삼으로 퍼올려 겨우 밝힌 불씨 하나
시퍼런 손바닥을 적시네
숨조차 아까운 토막잠 너머 창밖에
아버지 두 주먹 같은 눈발

아빠,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의 직업은 겨울이라고 적었던걸요
겨울은 꼭 수정 구슬 같아서
뽀득뽀득 닦으면 바닥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하죠
한 장씩 넘어가는 이야기 속에
눈에 익은 골목이 보이고
달고 달은 저녁들이 있고
골목 끝에서 과자처럼 부서지던 아빠의 어깨가 있고.

서울 올라오는 아버지
기어이 그림자를 열차 안에 떼어놓고 내리시네
오랜 후에 부는 바람을 아버지는 알고 있네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네
잘 가라, 힘없이 손 흔드는 그림자가
주머니를 뒤적여 찾아낸 옛날 노래

카테리나 행 열차는
8시에 떠나네
11월은 영원히 내 기억 속에 남으리*

애야, 어쩌면 그날
열차에서 내린 건 그림자였을지도 모른단다
이렇게 나는 날마다 희미해지고 있지 않나?
그러나 어쩌면 추위와 배고픔이
나의 구원이었을지도 몰라

해마다 봄이 오면
멀리서 열차는 돌아오네
서울 올라오시는 내 아버지
꼭 왼 주먹 같은 어깨뼈 같은
목련, 목련



*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기차는 8시에 떠나네(To Treno Fevgi Stis Okto)> 중

2022년 공직문학상

시

열역학 제2법칙

레테(Lethe)

오목거울 앞의 자화상

미륵사지 석탑앞에 서서

감태

미술시간

너와 나의 평등한 수식은 무엇인가

모시적삼

이쁜 옷 입고 갈걸

피카소의 연인이 되고 싶어요

트럭을 견인하며

몽돌 할매들

처서(處暑) 아침

고고학자



쉽게 말해서

고립된 세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자발적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어렵나요? 그럼 내게 집중해요.

우리는 고립되어 있잖아요,

월요일에 시작하고 토요일에 쉬고 다시 월요일로 이어지는 규칙성과 연속성에.

이것은 정교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나는 연락이 오는 대로, 나를 불러주는 돌산으로 왔어요.

천공기에 올라 견고한 바닥을 뚫는 일은

미세한 주름에까지 먼지가 고여야 하는 일이지만

평탄한 길을 내는 것이기도 해서

노래도 곧잘 흥얼거리곤 했었는데,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오래된 돌산의 시간은 보지 못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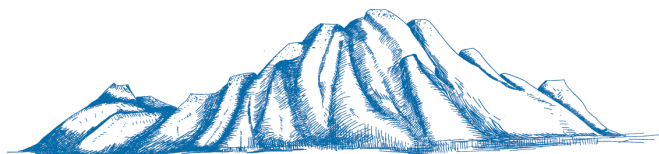
여기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아서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오래된 시간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어요.

축적된 우주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절대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나온 길을 다시 갈 수는 없다고 말하죠,
 얼음은 스스로 물이 되지만 물은 저절로 얼음이 될 수 없듯이.

나는 스스로 쓸모 있고 안정된 어른이 되려고 했는데
 무너지는 돌산이 되었어요.
 돌산은 다시 내가 될 수 없겠죠.

아직도 어렵나요?
 나는 우주에 고립되었고 시간은 나를 두고 지나갔어요.



* 네이버 지식백과 '엔트로피 법칙 : 자발적 과정과 우주의 종말'에서 발췌



낮 내 성내느라 지친 해가 갈 길을 서두르는 길 위에,
할매 엮은 할배가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겨울 여린 해가 종일 성내도 녹이지 못한 눈길 위에,
갓 태어난 발자국을 덮으려는 듯 눈송이가 내리고 있다.

눈갈사탕 하나를 세상 소중한 듯 꼭 쥔 할매를 업고,
혹여나 넘어질까 신줏단지 깨뜨릴까, 조심스레 걷던 할배가 할매에게 묻는다.

“할멈, 그제는 어디 갔다 왔지?”

“몰러.”

“할멈, 어제는 뭐 먹었지?”

“몰러.”

“뭘 맨날 모른다고만 혀?”

“모르니까~”

할매가 모르쇠할 때마다 이미 무더진 줄 알았던 마음은 다시 아리고,
아린 마음은 할배의 걸음을 더더지게 한다.

“근디 말이유, 영감은 뉘신데 날 업고 간대유?”

등 뒤에서 들린 할매의 목소리를 듣기는 한 건지,
할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걸음만 서두른다.

지나온 걸음마다 떨어진 눈물은 내리는 눈송이가 가려줄 거라 믿으며,
내리는 눈송이가 남은 기억마저 가리지는 않기를 바라며.

부부가 지나간 길 위로 새겨진 발자국은 세월처럼 내리는 눈에 지워져갔다.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강 중 하나. 강물을 마시면 전생의 기억을 잊는다 함.



아니 아니지요.
허풍선이는 질색이랍니다.
반듯이 섰지만 넘어지기 쉬워요.
가짜가 판치는 세상과는 이별하고 싶네요.
나 아닌 내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아를 포기하고
아예 모습을 감추라 하지는 마세요.
그건 내게 죽음이나 다름없어요.
혹시 끝없이 평행선만 달리는
끔찍한 악몽을 꾸어본 적 있나요?

허상도 무형도 아닌
나의 원형을 찾고 싶어요.
비록 거꾸로 뒤집힌 세상일지라도
나에게 만족스러운
내가 되어야만 하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높은 곳을 쳐다보라 하네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한낱 비천한 삶이어도 가장 낮은 곳
진실이 숨 쉬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니까요.

마침내 떠나면
우주 끝 희미한 한 점이 되더라도
그곳에서 언제까지나
그 모습 그대로의 나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요.



* 상황 설명 : 오목거울 앞에 놓인 물체가 만드는 다양한 형태의 상(정립허상, 도립실상, 상이 생기지 않거나, 축소 혹은 확대된 상 등)을 자아와 관련지어 표현하였음.



오래전 낡은 그 탑 앞, 나는 어린아이였다.
부모의 품 안에 살아온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한 탑신 앞에서
그 시간의 반차(班次)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모른다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전쟁이 나지 않아도 사람들은 죽었다
배가 엮어져 청년들이 죽고, 불이 나서 노인들이 죽었다
사회의 영속을 따라 무던히도 죽어갔다
그럼에도 다만 저 영겁의 시간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부는 바람으로 사라지지 않기를, 보복의 대사(大史)들로 돌아오지 않기를
지금 나는 헤아려지지 않는 그들을 위해 위령제를 홀로 드린다

삼십만번의 해가 뜨고 지고, 삼억개의 생명이 피고 지고
모든 것을 몸통이로 받아내 검게 그을리고, 상처 입은 석탑아
네가 본 것이 무엇이냐, 너를 울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설의 진위와 싸움의 옳고 그름
싸우는 장수의 목과 일곱 번을 돌아 완불(完佛)을 꿈꾸는 공주는 사라지고
천년을 제자리에 모서리가 상한채로 비밀을 지킨 네 앞에
감히 내가 어느 것을 따져 물으랴

미륵, 미륵불, 미륵삼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호수를 메꾼 사람들과 바람을 읊조리는 사람들과 지금 서 있는 내가
내가 품은 미륵과 다를 것이 무엇이나

망한 나라의 탑으로 홀로 남은 그 모양새가 목이 베인 성왕을 닮았구나
무엇을 지웠는지 기억하길 바랄 따름이다
다만 바랄 뿐이다.

평온하기를, 일렁이는 파도앞에 다만 평온하기를
내 어미의 목탁소리 같은 기도가
그럴순 없다고 달려드는 내 비명같은 아둔함이
기도자의 자리에 서서 하얀 민들레처럼 모두 흩어진단

나는 기도하는 중이다.
한무데기 돌을 주워 탑을 쌓는 중이다
무너진 탑신 위로 나무 싹이 돌아나는 것을 보는 중이다





감태겉이 밧줄이 바다에 감긴다

빨래처럼 널어두고 온 갯벌

생의 꾸러미 잠긴 바다

모퉁이 빨밭에 내일을 펼쳐 두었다

해진 바지 코를 박고

달리고 달려도

아버지 바퀴는 늘 제자리

부서지는 파고

열세 살 휘감긴 허리는 꼬여 검기만 한데

팽팽한 체인처럼 감아야

중학을 보내줬다던 아버지

“자징거만 해도 값이 얼마디”

겨울바람 손을 에야 자라는 빛갈

거북손 감태 주먹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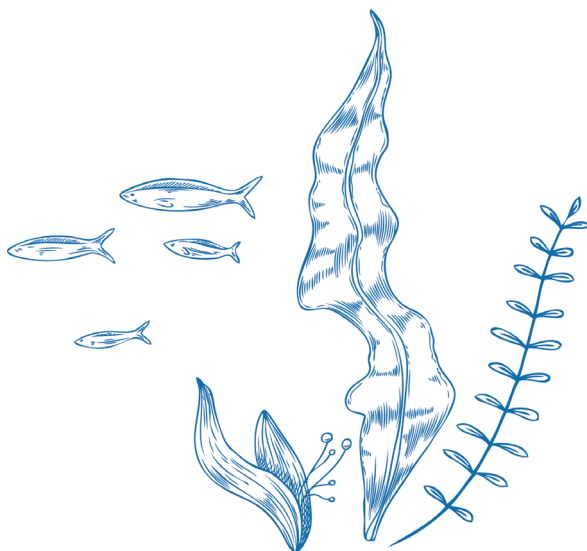
허기를 물던 계절

위에서 메야 부드럽다며

외줄 맨 아버지 감태는 하늘을 맴돌다

녹슨 자전거 줄을 벗고 누웠다

기우똥 내 등뼈가 외줄에 걸린다





나는 채색을 말리는 중이었다
 한 아이가 물감용 물통에 붙은 상표를 뜯었다
 물이 쏟아지고
 나는 물통과 팔레트를 교탁으로 옮겼다
 아이는 주먹으로 나의 배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1교시 끝나는 종이 울리고
 아이에게 장난감을 주었다
 아이는 나의 오른쪽 눈을 머리로 박고
 오른팔을 두 차례 활꺾었다
 아이는 떨면서 웃고 있었다
 보건 일지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팔을 소독하였다
 학부모와 전화 상담 후
 오른쪽 눈이 육신거리 안과에 갔다
 망막과 시신경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굵힌 팔은 습윤밴드를 붙여놓았다
 상처가 깊은 줄 몰랐는데
 이틀 후 피부과에서 흉터가 남을 거라는 소견을 들었다
 나는 다음 미술시간을 준비했다
 화병에 붉은 꽃 줄기를 잘라 꽂았다
 아이들은 죽어가는 꽃을 그렸다



뎃셈은 무차별적인 평등이다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시켜서 나누어 먹을지 말지로
꽤 진중한 토론이 있었다
너 나의 별이를 생활비로 쓰면서 누가 많이 먹는지 셈하며
앵겔계수 체험단이 될 때도 있었다
집안일을 할 때 너는 얼마나 더 하는지
고양이 메루를 누가 더 보살폈는지로
우리는 내내 서로를 취재했다

뺨셈은 불평등한 차별이다
설거지할 때 수도꼭지를 물뿌리개와 외물줄기 방식 중 뭐가 나은지로
한동안 소란스러운 희극이 있었다
추석에 너의 본가에서는 하룻밤 자고 나의 본가에서는 한 시간 식사만 한 걸로
힘겨운 토너먼트를 치르기도 했다
세탁소와 수선집 중 어디에 먼저 들릴지
연기대상과 연예대상 중 무엇을 볼지로
우리는 내내 서로를 검색했다

너와 나의 뎃셈과 뺨셈은 평등한 수식으로
우리를 부라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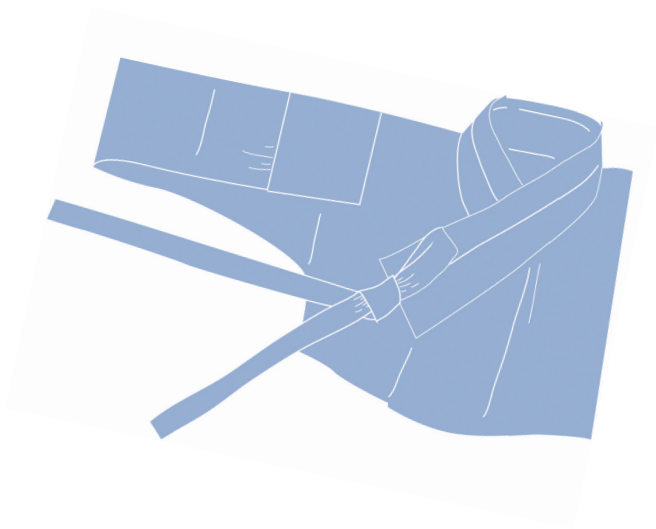
사너덜 세모시는 어머니의 흰머리였다
소낙비 그치고 개천 너머 서녘으로 무지개 걸리면
흙 담장 빛바랜 용마름에 태 모시 널리고
뒷마당 토굴에선 힘겨운 베틀소리
등 굽은 아낙은 귀뚜라미가 되었다

초하루 모시 장날
사천가닥 흰머리 땀땀이 엮은
서른여섯 자 모시 한필 새벽녘 길 떠날 때
여인은 등 터진 손바닥으로 하늘을 본다
잠자리 날개보다 곱다고 했다
검푸른 하늘 하얀 모시풀은 표백한 어미 마음
닥나무 창호지속 빛바랜 꽃잎은 연분홍으로 피어나고
한숨어린 모시한필 침이 서 되, 땀이 서 말
아낙은 씨줄로 날줄로 하얀 시를 쓴다

처마 끝 거미줄에 아침이슬 영롱하고
햇살은 온 동네 가득한데 참죽나무 가지 끝에 매미 한 마리

하얀 허벅지 수줍은 여인네는 은빛 실타래를 엮어내고
대청마루 대들보에 열두 줄 가야금
갓 시집온 새댁은 청아하게 산조(散調)를 한다

오뉴월 띄약별 콩물먹인 날실이 베틀에 올려지고
해진 가죽 부티는 고향 떠난 자식들의 철 지난 편지
눈물 젖은 북 바디질에 해는 벌써 서산에 걸려
장독대 봉숭아 붉게 물들이고
먼저 간 아들생각에
장롱 속 모시적삼 가슴팍에 펼쳐지면
여든아홉 어머니는 한 마리 하얀 학이 되었다





엄마 가시는 날
가장 이쁜 옷 입고 갈걸
엄마 딸,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보여 줄걸

뭐가 그리 바쁘다고 연락없다
엄마 간단 말에 헐레벌떡
뭘 입었는지, 뭘 신었는지

양상해진 엄마 얼굴 못 찾아
두리두리거리다 찾은 외할매 얼굴
엄마 얼굴 찾았는데 뿌영게 맏히네

걱정하지 말라고 할 사람은 난데
괜찮냐고 물을 사람은 난데
난 괜찮다고 잘 산다는 나의 웅얼거림
다 아는듯한 엄마 미소
나도 따라 미소 짓다 또다시 뿌영게

걱정 많던 우리 엄마
 우리 걱정 짝 쥘 마른 손, 곱게 펴 잡고
 이렇게 울지 말고
 엄마 걱정 말라고 가장 좋은 옷 입고 올걸
 뭐가 그리 바쁘다고 이 꼴로 왔을까

엄마 가시는 날
 가장 이쁜 옷 입고
 가장 이쁘게 화장하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딸 모습으로
 엄마 걱정 말라고 웃으며 보낼걸





올가 마리테레즈 프랑수아즈
피카소 여인들의 이름을 발음해 보아요
페르낭드 도라말 마르셀
나도 장무아르라고 개명이라도 할까
희대의 바람둥이라 욕하지만
나도 그의 연인이 되고 싶거든요

부리부리한 눈으로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내 몸을 이차원에 가르고 나눈다고 상상하면
그의 작품 속 여인이 된 것 같아
기분이 파스텔이 되어 버려요

마지막에 사귀 자클린과는 오십 살 차이였으니
그녀보다 어린 나를 피카소도 분명 좋아하겠죠?
미모와 기력지는 한참 못 따라가겠지만
내가 가진 이 우울 가난 어둠은
그녀들 이상으로 그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 게르니카 이상의 정신적 경제적 폐허 상태거든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피카소는 그녀들이 이십 대일 때 반했던데 지금 나는 그 두 배라...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그이는 애만 낳으면 바람을 피웠는데

나는 가임기가 끝나가니 우리는 헤어질 일이 없다는 거죠

피카소! 나의 연인이 되어 주세요





트럭 한 대

늪은 소처럼 주저앉았다

평생 내 것이 아닌 것들

업으로 삼아, 굶은 등 위에

학자금, 공과금, 잔금 같은

쇠붙이들까지 실어 날랐다

속도보다 지구력이다

누군가를 업고 살아간다는 건

고된 시간이 무릎과 등뼈에도

붉은 녹물처럼 들어찼다

백태가 낀 전조등 씌벽이며

지나온 삶을 반추하는 동안

힘-껏, 액셀을 밟자

뜨거운 숨만 헛바퀴 돌 뿐

허탕치고 돌아올 때가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던
혹여 떨어뜨린 것들 없나
백미러로 돌아보고 돌아보던
그 지난했던 길은 아직 멀고
금세 눈꺼풀처럼 무겁게 내려앉는 밤

가로등도 없는 갓길에서
반-짹, 반딧불이처럼
빛을 내는
작고 낡은 아버지를 업는다

등 뒤가
오래오래 뜨거웠다





깜짝 놀랐어
떡집 앞에 엄마가 서 있는 줄 알았잖아
세월이 희게 내려앉은
그 세월이 무거워 짧게 잘라버린 머리
무심해 보이는 검정 패딩 점퍼
그 위를 휘장처럼 가로질러 매달린 시장표 가방
땀아빠진 연골을 감싸 줄 두툼한 솜바지
치녀적 콧대높던 하이힐이 낮고 낮게 고개숙인 운동화
날씨 걱정 나라 걱정 무엇보다 자식 걱정
내려앉아 웅그라든 두 다리
엄마! 여기서 뭐해? 할 뻔 했잖아
그런데 달라
흰 머리가 패딩 점퍼가 가방이 바지가 신발이 다리가
똑 닮은 할매들은 똑같이 달라
할매가 와르륵 가르륵 말을 해
난 그제 바닷가 몽돌 소리랑 비슷하다 생각했어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하나도 같은 게 없는
땀고 땀아 더 땀을 것도 없는데 여전히 땀고 있는
몽돌 있잖아
다 비슷한데 내 눈에 들어오는 건 꼭 하나뿐인
몽돌 말이야
그래서 다시 보니
할매들은 모두 몽돌이었어



전투는 치열했다
겨울을 견딘 전사들의 예리한 청풍은월도는
그리스 팔랑크스 군단의 숨겨진 심장도 깊숙히 찢어버렸다

피맛의 절정에 취한 전사들이
세상을 지배하던 어느 밤
멀리 북방에서 왔다는 위풍당당 갑옷의 귀뚜리 병정이
산들바람 한 자락에 놀라 그만 울음을 터트렸다

쓰으윽 몇 번의 날갯짓으로 울음을 던진 다음 날 아침
그 앞에는 입이 뻐뻐어지고 창이 꺾인 전사들의 사체가 즐비했다
갑작스런 주검 앞에서 그들이 갈망했던 검붉은 핏물이 생각났다

빼앗겼던 피보다 진한 커피를 갈아 마셨다
바람 한 자락이 가슴을 파고든다

살았다



먼지 쌓인 기억을 열어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과거를 파내는 것은 발굴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여기를 힐끔거리는 도굴꾼이 아니라
먼지 아래 감춰두었던 허물이다
망각의 축복을 깨고 기억을 파헤쳐
유쾌하지 않은 과거를 만난다
유리장에 전시할 수는 없으니
눈빛만 교환하고서 먼지를 덮어야지



2022년 공직문학상

시조

도요(陶窯)

빅뱅

진달래꽃

개나리 산책



항토빛 가마 한 채 이내를 당겨 덮고
불갈기 한 올 한 올 발원을 풀어내어
태반에 별뉘 읊을라 입덧 먼저 태운다.

흙덩이 살점마다 설렘을 엮어 놓고
손끝에 혼을 모아 신 지핀 단뭉칠로
꽃을 문 학의 나래짓 가슴 속에 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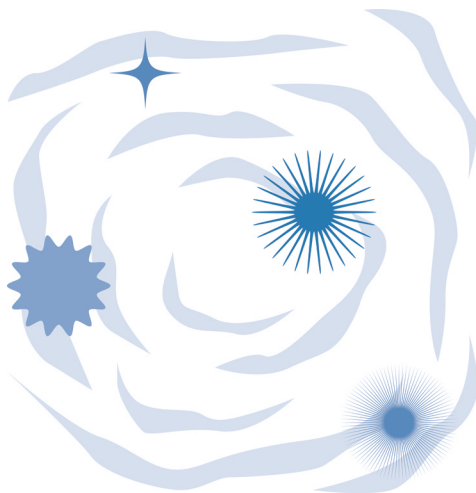
꿈을 뻗 번조실*을 휘도는 불 물결에
출산의 진통 안고 낮밤을 지새우며
살과 뼈 타고 또 타도 그늘 없는 빛둥지.

* 번조실(燔造室) : 흙가마 내부에 진흙으로 빚은 그릇을 놓아 도자기를 굽는 장소



태초의 우주에서 발발했던 대폭발은
모두가 하나였던 이 세상을 쪼개놓고
뿔뿔이 흩어버리는
엄숙한 임무 수행했다

어머니와 하나였던 양수 속의 시간들은
빅뱅이 있기 전의 고요함과 닮았을까
언젠가 팽창해버릴
세월의 거리 모른 채





줄지어 가던 바람
수련수련 속닥이며

새들을 침병으로
방아쇠 당긴 걸까

넷가에

산이란
산에

소리 없는 꽃 전쟁

서쪽 하늘 낮빛까지
불긋하게 적셔놓고

어찌하나,

저 길 돌아 갈 데까지 가버린 봄

지천에
흩날려 피는

연분홍빛 4월을





아가야 이리 와서 개나리 꽃 좀 보렴
노오란 꽃이 지면 파릇한 잎이 난데
그러엄 엄만 꽃이고 아가는 잎이야?



2022년 공직문학상

수필

양철나무꾼의 심장

강담이야기

돌을 읽다

선택

겨울 실업

교도관이 된 사서

세상을 올려다보며

무전기

父子의 길

골목대장



프랭크 바움의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는 주인공인 소녀 도로시와 뇌가 없는 허수아비, 온몸이 고철덩어리인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가 등장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딘가 모르게 불완전한 동료들과 함께 오즈를 찾아 에메랄드 시티로 떠나는 도로시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조연인 양철나무꾼은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나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있었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양철나무꾼의 이야기에 감정이 이입되어 온전한 관심을 쏟아붓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머리가 커지고 한해 두해 그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양철나무꾼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오즈의 마법사> 속 양철 나무꾼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마녀의 저주를 받아 팔다리가 잘리는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된다. 이후 대장장이의 손길을 받아 고철덩어리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나무꾼은 생의 이유를 모른 채로 나무를 베고 또 베며 일에 매몰된 삶을 살아간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나무꾼인 것처럼.

그런 양철나무꾼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사랑’이다. 여느날과 같이 기계적으로 나무만 베다가 쏟아져 내린 비에 온몸이 녹슨 양철나무꾼은 비로소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임을 깨닫는다. 도로시 일행에 합류해 심장을 받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양철나무꾼.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오즈의 마법사>

속 양철나무꾼의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지금까지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일에 매몰된 일상 탓에 여유를 잃은 사람들, 마음 한 켠에 외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연스레 양철나무꾼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 주어진 업무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는 내게도 해당된다. 가끔 나는 요지경 속인 이 세상이, 험난한 이 생(生)이 대마법사 오즈를 찾아 에메랄드 시티를 향해 걷고 또 걷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장의 업무에만 집중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나는 심장을 갈망하기 전의 양철나무꾼과 닮아있다. 기계적으로 일만 하는 삶, 주변의 무엇 하나, 하다못해 담벼락 사이에 핀 작은 꽃 한송이에도 따스한 눈길 한 점 줄 줄 모르는 나는 양철나무꾼이다.

동화속 양철나무꾼이 팔다리를 잃게 된 사연은 이야기가 각색되어 저마다 다르지만 나의 경우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공무원 준비생’ 일 때의 마음가짐을 잊었기 때문인 것 같다. 생기없는 얼굴을 한 채 기계적으로 일만 하다보니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합격만 하면 누구보다도 더 친절한 공무원이 될 거야, 합격만 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주어져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합격만 하면 월급이 적더라도 만족하며 다닐 수 있을 거야. 같은 굳고 무른 다짐들. 그렇게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무언가가 사라진 채로 나는 그렇게 시시하고 재미 없는, 어쩌면 미온적이기까지 한 공무원이 되었다.

평소와 같은 민원에 형식적이고 건조하게 응대하고, 쏟아진 현안 업무의 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주말 출근을 하는 내 모습은 결코 내가 바라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내가 생각하는 참된 공무원은 행정기관을 찾아온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귀담아 듣고, 때로는 공감하기도 하며 어떻게 해야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공무원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창하고 숭고한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찾아온 민원인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문득 발령 전 일기장 한 귀퉁이에 적었던 문장 하나가 생각이 났다. ‘어떤 업무가 주어지더라도 그 일이 결국 나를 성장하게 할 것임을 믿는다.’ 평범한 내용의 이 한 문장을 떠올린 순간 간결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예전의 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첫 발령지에 갔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도 했었구나 대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이때의 마음을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금세 잊어버린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고 참기 힘든 부끄러움이 밀려들었다.

부끄러움을 애써 참고 몇 페이지 더 넘겨보니 이번에는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적은 일기를 볼 수 있었다.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할 때 적었던 일기였다. 중증장애인인 민원인과 그의 보호자가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는지 문의했는데,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능숙하게 설명할 수 없어 무력감을 느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일도 있었지 하며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니 업무가 익숙해져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에 매몰된 양철나무꾼임은 같았지만, 웬지 모를 풋풋함이 느껴져 웃음이 새어나왔다.

일이 고되고 힘들게 느껴질 때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된다. 행복이란 건 공기와 같아서 당연하게 느껴지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고 쉽게 잡을 수도 없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다. 휴일 낮, 햇살이 좋은 날 공원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어린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에서 처럼 행복은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다. 한숨 한 번 내쉴 여유조차 없는

각박하고 바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고 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행복을 꼭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평소와 같은 민원에 건조하게 응대하던 내게 민원인은 오늘도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 말이 피곤한 나를 배려하는 뜻에서인지, 정말 내가 친절하게 느껴져서 고마움을 표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그날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퇴근할 수 있었다. 민원인을 응대하는 나의 태도, 말투, 눈빛, 표정 하나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알고난 뒤에는 웃으면서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 속 양철나무꾼은 결국 양철로 된 심장조각을 받지만, 이것이 진짜 심장은 아니다. 심장을 받기 전에도 양철나무꾼은 작은 개미의 죽음에도 슬퍼하는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다시 성찰해보았을 때 나는 따뜻한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세상 모든 것 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나 일련의 일이 있는 후로 정신을 차린 나는, 내게 찾아온 민원인들이 웃으면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뿌듯한 감정이 먼저 들고 마음이 따뜻해진다. 무언가 내가 더 도움을 드릴 일이 없는지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

모두가 기계적으로 일만 하는 바쁜 현대 사회, 여전히 한숨 한 번 내쉬기조차 어렵다. 오늘도 무거운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양철나무꾼인 나는, 나를 찾아온 민원인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서 비로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심장 한 조각을 가졌다.



우리 민족같이 돌담을 사랑하고 혼이 깃든 민족이 또 있을까. 물론 나라마다 돌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돌담의 의미가 우리와는 사뭇 다른 게 사실이고 보면, 돌담은 장구한 세월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지켜온 듯하다.

나는 집 담 중에서도 흙을 쓰지 아니하고 막돌로 쌓은 강담이 좋다. 순 돌로 쌓은 것이 정갈스럽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도 킴돌 때문이다. 킴돌은 말 그대로 석재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괴어주는 작은 돌을 말한다. 고임돌과는 용도가 같지만 물건의 밑바닥을 받쳐 놓는 받침돌과는 쓰임새가 다르다. 그렇다고 킴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양이 둥글거나 반지르르한 돌멩이보다는 못생겼지만 각이 있고 날카로우면 그만이다.

소식적 할머니 집은 강담 집이었다. 사방이 강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철마다 정취가 깊었다. 특히 디테일이 섬세하고 아름다워 동네에선 꽤나 소문난 강담이었다. 어쩌다 할머니 집으로 심부름을 가는 날에는 해가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만큼 강담이 좋았다. 강담이 주는 편안함. 내가 강담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할머니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다.” 팔순을 넘어서도 곰방대에 잎담배를 즐기실 만큼 강인하셨다. 할머니는 강담을 무척 사랑하셨다. 틈만 나면 강담을 살폈다. 윗돌, 아랫돌, 꺾돌까지. 간밤에 강풍이 불거나 세찬 비라도 쏟아지는 날에는 더욱 그랬다. 그러나 강담은 날씨보다 강했다. 아주 가끔은 강담을 빙빙 돌며 어루만지기까지 하였다. 그래야만이 강담이 잠을 잘 수 있다고 했다. 강담이 잠을 잔다? 쉽게 이해되진 않았지만 의식처럼 강담을 살폈다. 큰 구멍은 막아주고 빠진 돌은 다시 제자리에 끼워 고정한다. 이때 꺾돌을 쓴다. 할머니는 꺾돌을 쓸 때마다 돌각을 살폈다. 돌각의 정도에 따라 윗돌, 아랫돌이 바뀌기도 한다. 그렇다고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진 않는다. 나름 관리 방식인 셈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강담 속에 꺾돌이 빼곡하다. 올망졸망. 그 모습이 마치 막 부화한 곤충박이 새끼들 같다. 반짝거리는 눈빛이 금세라도 날아오를 것만 같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꺾돌이었다. 놀라운 것은 산석으로 꺾돌을 썼다는 점이다. 산의 돌, 산석(山石). 태고 적부터 자연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하여 거의 쓸모없는 돌이었다. 그런 산석이 비로소 꺾돌이 된 것이다. 즉, 역할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산석을 꺾돌로 쓴 이유가 있을 터였다. 그 때 알았다. 강담의 운명이 꺾돌에 달렸다는 것을.

나는 젊었을 때 잠시나마 제방 석축공사 일을 한 적이 있다. 석공을 도와 큰 돌과 뒤꺾돌을 보조해주는 일명 데모도 역할이다. 그러나 돌 일이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일에 요령도 모르거니와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것 같다. 보다 못한 석공이 내게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아무리 석축을 잘 쌓는 석공이라 하더라도 뒤꺾돌을 잘못 쓰면 석축은 무너지고 만다.” 듣기에 따라서는 별것 아닌 듯이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석공보다

핍돌 데모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석축의 운명이 핍돌에 달렸다는 뜻이다. 그때부터 각이 있고 날카로운 돌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기억이 난다. 심지어는 큰 쇠망치로 돌을 깨서 핍돌로 사용했을 정도로 핍돌은 석축의 긴요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십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고향에는 당시의 석축이 그대로 남아있다. 석공의 말이 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하다.

강담이 잠잔다.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한 말이다. 강담이 고즈넉하고 안정감 있게 자리 잡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온갖 만고풍상에도 강담이 온전한 것은 핍돌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핍돌은 선택 받기 전에는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다. 돌멩이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많아 각종 재료로도 널리 쓰일뿐더러, 은은함이 우리네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묘한 친근감을 준다. 그런데도 이유 없이 밭에 차이고, 밟히고, 심지어는 감정의 이용물이 되어 천대받기 일쑤지만, 속이 깊고 마음이 온후해 삼라만상이 이웃이 될 정도로 적이 없다. 다만, 특유의 과묵한 성품과 착한 심성 때문에 되레 상처를 잘 받는 것이 흠이다. 그럼에도 워낙에 책임감이 강해 한 번 역할이 주어지면 끝을 보고야 마는 근성이 우리나라 특산종인 진돗개를 닮은 듯하다. 돌은 원래 천연 무기질이 굳어 형성된 광물로 겉은 차갑지만 속은 온기를 지녔다. 無用之有用이라고 했던가.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쓸모 있듯, 그러고 보면 세상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철물점 같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주춧돌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뭘 하든 최고가 돼야하고 최고만 알아준다. 공부도 최고, 대학도 최고, 성과도 목표만 고집한다. 심지어는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야 직성이 풀린다.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시한 사회.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스포트라이트를 갈망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주춧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듯이 때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킴돌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주춧돌도 킴돌이 있어야 수평을 잡을 수 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 경시대상이 아닌 것이다.

할머니 집 와송(臥松)은 말한다. 모진 풍파에도 나무가 온전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한 뿌리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뿌리는 나무의 킴돌이다. 얼기설기 악착같이 흙을 움켜쥐고 물과 사투를 벌이며 몸부림치고 있는 처절한 뿌리의 모습에서 문득, 어머니가 생각난다. 남편마저 일찍 여의고 농사일과 온갖 굵은 일을 도맡아하면서도 칠남매를 올곧게 키워내신 어머니. 한평생 뿌리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는 분명 킴돌이다. 이렇듯 킴돌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온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듯 싶다.

강담은 할머니처럼 등이 살짝 굽어 있다. 모나지 않고 부드럽게 굽은 것이 자연에 순응하고 여백을 얻은 듯하다. 또한 고만고만한 돌을 사용하여 담의 높낮이를 감안하고, 돌과 돌 사이의 간격을 좁혀 아늑함을 더했다. 뿐만 아니라 강담의 높이가 허리춤에 닿을 정도로 낮은 것으로 보아 도둑을 막기보다는 이웃을 배려한 상생의 흔적이 역력하다. 이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소박한 이 편안함도 결국 킴돌 없이는 불가능하다. 킴돌이 된 산석. 큰 돌 위에 중돌 얹혀 작은 돌을 포개고, 돌과 돌을 괴어 강담의 틀을 잡아준 킴돌. 그 어렵던 시절에도 돌 하나하나에 정을 담고

사람 중심으로 답을 쌓은 옛 선현들의 혜안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그렇다면 강담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얼핏 육안으로 보기에다 백여 년은 족히 돼 보인다. 할머니 나이보다 더 오래됐다는 강담. 그 연대를 알 순 없지만, 자나 깨나 강담의 안위를 걱정한 뒤란 밤나무의 수령으로 보아 엇비슷하게 들어맞는 것이 역지는 아닌 듯하다.

강담의 연대가 뿔이 중하랴. 내가 있는 곳이 강담이고 내 하는 일이 꺾돌의 역할인 것이다. 만일 꺾돌이 흔들리거나 빠져 있다면 강담은 어떻게 될까? 명약관화하다. 세상은 날로 급변하고 있다. 각박한 세태 속에서 꺾돌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다양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세추이라고나 할까. 원근각처에서 들려오는 꺾돌들의 훈훈한 사연이 큰 감동을 준다. 누군가 새벽 길거리를 청소하고, 노숙자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딸의 생일을 맞은 가난한 아빠에게 공짜 피자를 선물하고, 가게 앞에서 오천 원을 들고 머뭇거리는 형제에게 온정을 베풀고, 비가 오나 눈이오나 초등학교 건널목을 지키고,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났을 때 소방관에게 무료음식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수시로 돌봄 한다는 어느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꺾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꺾돌은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온기를 지녔다.

“어진 사람은 삶을 구하여 인을 해치는 일이 없고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

공자의 살신성인에 대한 가르침이 꺾돌의 삶을 위로하는 듯하다.

그렇다. 꺾돌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심성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다. 평생을 감초로 살면서도 처지를 비판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오히려 큰 돌의 방양(彷徨)을 잡아주고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해 강담의 균형을 평정한다. 늘 자신보다는 강담의 안위와 아름다움을 먼저 부각시켜 대의에 힘쓰는 겸양을 지녔다. 오직 목적에 부합할 줄 아는 심미안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보니 정작 나는 내 삶의 꿈돌 한 번 껴 적어 없는 것 같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때론 방황할 때에도 꿈돌의 존재를 잊고 살아온 것 같다. 그래서일까. 늘 허방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알 것만 같다. 할머니가 왜, 강담을 살피고 어루만졌는지. 석공이 왜, 뒤꿈돌이 요긴하다고 말했는지를. 이제라도 꿈돌이 되고 싶다.

한 세대가 가고 다시 한 세대가 왔다. 옛 강담은 사라지고 없지만 이제 우리는 꿈돌이 돼야 한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가 꿈돌이다. 꿈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혹은 사회든 우리가 꿈돌이다. 평범한 일상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는 법이다. 꿈돌로서 그 역할을 다할 때만이 일상은 반복되기 때문이다. 꿈돌은 높낮이를 구분하거나 가르지 않는다.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처한 곳이 빈 들이든 혹은 궁궐이든 역할의 경중을 따지지도 않는다. 이것이 꿈돌이다.

얼마 전 돌맹이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살던 아들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아들이 비로소 꿈돌이 된 것이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무용과 유용 사이에서 아들은 많은 날들을 자신과 싸우며 살아왔을 것이다. 그간 나는 정답도 아니면서 마치 정답인 것처럼 아들의

생각을 내 생각에 방점을 찍으려 했다. 그러다 보니 돌아가기 보다는 곧장 가는 길을 권했던 것 같다. 그러나 아들은 제 갈 길을 알고 있는 듯했다. 돌아가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아버로서 면목이 서지 않는다. 그럼에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준 아들이 대견스럽기만 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금 늦었다고 조금해 하거나 상심해 하지 않았다. 하릴없이 기다려준 것이 아들의 마음을 산 것일까. 이제 아들은 낚시꾼으로서 사회 구성원이 되어 역할을 다할 것이다. 집이란 강담. 좀처럼 좁혀지지 않던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노란 안개꽃이 피었다.

강담을 보면 낚시가 보인다. 낚시가 되고 싶다. 낚시꾼으로서 강담의 안위와 대의에 힘쓰고 싶다. 낚시꾼처럼 살다간 할머니처럼, 돌이끼와 곤줄박이처럼, 강담을 지키고 싶다. 강담의 운명이 낚시에 달렸기 때문이다. 끝.

* 참고인용

- 1) 김부식 <삼국사기>, 儉而不陋
- 2) <장자> 인간세편, 無用之有用
- 3) <논어> 위령공편, 殺身成仁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할머니의 묘소를 찾은 적이 있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외엔 텅으로 갖는 것이 사치로 여겨졌던 보릿고개 시절, 변변한 관도 없이 동네에서 이십리나 떨어진 외딴 공동묘지에 할머니를 모셨다. 가난은 모진 가뭄에도 끊어질 줄 모르는 침뿌리처럼 대를 이어 나갔다. 아등바등 힘겹게 흘러간 삼십년의 긴 세월은 길의 윤곽마저 지워버렸고, 아버지의 선명했던 기억을 송두리째 삼켜버렸다. 봉분보다 더 높게 자란 잡초에 묻혀버린 할머니의 묘소, 철부지 어린 자식의 거둬되는 성화에 아버지는 낡은 기억의 밧줄을 당기느라 진땀을 뺐었다. 공동묘지를 통째로 몇 바퀴나 돌았을까, 지쳐서 탐색을 포기할 시점에 섬광처럼 떠오른 기억의 파편 하나가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값비싼 상석대신 등짐으로 옮긴 돌덩이 하나를 아버지는 가까스로 기억해내셨다. 세월의 침식을 거부한 채 등대처럼 서 있는 그 돌 덕분에 우리는 할머니와 해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돌이란 존재가 언제 이 세상에 첫선을 보였는지 알 수는 없다. 하늘과 땅이 갈라질 즈음, 천길 지하 어둠 속에서 긴 잠을 자다가 승천하는 용처럼 치솟는 불덩어리가 되어 지구의 껍질을 깨뜨리고 세상에 나온 것은 아닐까? 낯선 대기에 부딪쳐 식어가면서 세월에 풍화되어 산과 들,

강가에 터를 잡아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는 돌이 되었다. 발길과 눈길이며 무는 곳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동반자가 된 것이다. 직립보행으로 인해 야생의 강인함을 잃어버린 인간의 두 팔은 허약할 수밖에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의 보충이 필요하다. 두 손에 쥐어진 단단한 돌덩이는 이마에 솟아난 뿔이 되었으며, 돌과 돌을 부딪쳐 피워낸 불꽃은 모진 추위를 녹여주는 털옷이 되었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의 돌은 고풍스러운 멋이 있다. 눈과 비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세월의 연륜을 가미한 돌은 신비로움까지 더해져 있다. 세월이 한 겹 두 겹 쌓여감에 따라 들짐승, 날짐승, 물고기에도 목초까지 담은 화석은 돌의 나이트이자 생태계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원시의 냄새가 나는 돌 하나를 손에 넣고 눈을 감으면 매머드를 타고 가는 하이텔베르크인의 모습이 보인다. 한 장의 도화지로 이 세상에 던져진 돌은 대자연을 형형색색 채색해 나간다. 더하거나 빼는 법이 없으며 왜곡하지도 않는다.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칼바람도, 태풍을 삼킨 성난 파도도 결코 거부하는 법이 없다. 돌은 포용력과 친절함의 또 다른 이름이다. 새끼노루가 어미를 찾아 뿔박질하다가 숨이 차면 걸터앉을 자리를 내어주고, 회귀의 먼 길을 떠나기 위해 마지막 숨을 고르는 철새에게는 이별의 장소가 되어 준다. 손님을 떠나보낸 후에도 한참 동안 아쉬운 마음에 온기를 버리지 않는다.

이리저리 발부리에 부딪히는 돌에 인공을 가미하면 새로운 의미가 추가된다. 누운 돌을 하늘 향해 곧게 세우는 것은 권력자의 과시욕과 권위를 드러내는 오래된 방식이다. 수많은 사람을 일시에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은 거대한 권력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거센 비바람을 변치 않는 단단함으로 이겨내며 침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인돌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이다.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며 인간의 간절한 소원을 전달하는 마을의 수호신이다. 무형의 신을 대신 하여 지상에 나타난 유형의 신이다. 동네 어귀에 장승처럼 서 있는 고인돌, 땅의 기운과 하늘의 정기를 자양분 삼아 수천 년 마을을 지키고 있다. 긴 세월에도 녹슬지 않는 어느 부족장의 찌렁찌렁한 목소리가 바람결에 새어 나오는 것 같다.

흩어진 돌들을 모아서 쌓아 올리는 일, 그 자체가 인간만의 특권이자 발명품이다. 돌 두 개를 포개어 윗돌을 돌리면 알곡을 부수는 맷돌이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층, 두층 층수를 높여가면 건축물이 되고 탑도 된다. 의미 없이 그냥 쌓는 돌은 이 세상 어느곳에도 없다.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겹겹이 쌓아 올린다. 그 결과, 단순한 돌들의 집합이라는 산술적 합계가 아닌 위대한 창조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돌담과 성벽은 지상 구조물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단순한 경계나 영역표시를 넘어 구성원들을 보듬고 감싸 안는 어머니의 포근한 가슴이 된다. 울타리 안의 사람들은 빈틈없이 밀착된 돌처럼 인정이라는 접착제로 엉겨 붙은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 서로 부대끼면서 체온까지도 나눈다.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융합이 되는 것이다.

영혼을 부여받아 살아 움직이는 돌이 있다. 돌을 깎아 다듬는 일은 생명의 원천인 영혼을 불어넣어 생명체를 완성시키는 엄숙한 작업이다. 깎여 나간 돌 파편의 두께 만큼 작업자의 열과 성의를 주입해 나가는

지난한 과정이다. 평생 난제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돌덩이가 아니다. 신라시대 석가탑과 다보탑에는 층계마다 석공의 한과 사랑, 거친 숨결이 배어 있으며, 그리스의 조각 ‘원반 던지는 사람’의 얼굴은 승부의 긴장감으로 창백하게 굳어 있다. 투척 직전 마지막 힘을 모으려는 듯 팔뚝에는 힘줄이 꿈틀 거린다.

큰 바위얼굴을 닮은 남명 조식 선생의 생가는 경남 산청군에 위치해 있다. 참선비 남명과의 만남은 아직까지 뇌리 속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남명은 심마니가 산삼을 찾아 헤매듯 심산유곡을 탐색하다가 지리산 천왕봉이 한눈에 담기는 양지바른 곳에 터를 잡았다. 일급수에만 서식하는 껍지, 버들치, 피리가 간만의 여유를 즐기는 개울을 지나면 하늘과 맞닿은 지리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남명은 순리에 따라 돌아가는 자연에 완전히 동화됨으로써 유한한 문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오묘한 성리학의 이치를 체득하였다. 바람 따라 떠도는 구름처럼 변절이 난무하던 시절, 조선 중기는 무게중심을 잃어버린 가치관 혼란의 시대였다. 남명은 저 육중한 무게로 땅속 깊이 뿌리를 박고 우뚝 서 있는 바위를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흔들릴 수도 있는 마음을 다잡을지도 모른다. 임금이 여러 차례 내려준 벼슬도 끝내 거부하고 진흙탕 속의 연꽃처럼 처사로서 진정한 선비의 길만 바보처럼 뚜벅뚜벅 걸어간 것이다. 사시사철 모진 풍파에도 무표정으로 의연하게 대응하는 바위는 남명의 평생 동지이자 스승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부단히 인생의 바다에 노를 저어왔다. 온갖 세파와 유혹에

부딪쳐 칼날은 무디어져 버렸다. 어느 때부터 인가, 방향을 잡아 주던 나침반에 녹이 슬어 삶의 이정표마저 잃어 버렸다. 진실인 양 포장한 거짓이 익숙한 처세술이 되어 버렸으며, 독이 든 달콤한 유혹을 끝내 거부하지 못하였다. 지난날들을 회상하면 등쪽에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 물건이라면 반품하고 싶고 인생에 도돌이표가 있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딴 곳에서 할머니의 묘소를 지켜주고 있는 이끼 낀 돌, 남명 선생이 멘토로서 평생 가슴에 품었던 천왕봉의 우뚝 솟은 바위는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돌이 아니다. 주춧돌과 석조 건축물, 유물로 남아있는 성벽, 탑과 같이 제각각 가치와 의미를 간직한 돌은 인간의 삶을 윤곽하게 해줄 뿐 아니라,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소탐대실 하는 어리석은 인간을 깨우쳐 주는 참스승인 것이다. 세상에 흔하다고 해서 가치마저 낮을 수는 없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돌을 단순한 돌덩이로 취급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땅 위로 고개 내민 정의와 공정의 싹이 주저앉고 가치관은 무너져 가고 있다. 길은 뒤틀리고 막혀 버렸다. 숨통마저 조여 온다. 누운 돌들이 일어서고 있다.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와 잠자는 나를 흔들어 깨운다. 기꺼이 솟돌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몸까지 내어준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돌의 외침을 반추해야 할 절박한 때가 온 것 같다.



알랭 드롱이 안락사를 결정했다.

영화 ‘태양은 가득히’에서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잘생긴 외모 덕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들의 리플리 알랭 드롱이 말이다. 뇌졸중 수술 후 스위스에서 지내고 있는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안락사는 가장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며 생명유지 장치를 거치지 않고 조용히 떠날 권리를 밝혔는데 그의 죽음의 선택 앞에서 아쉬움과 상실감을 넘어 벌써 그리움이 앞선다.

유명인의 안락사 소식을 듣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호주의 저명한 생태학자였던 데이비드 구달 박사는 104세가 되던 해 스스로 움직이는 게 불편해지고 시력이 나빠 삶이 더는 즐겁지 않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했다. 그는 삶을 끝낼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기뻐하며 마지막 순간, 베토벤 ‘합창’ 교향곡의 마지막 부분 ‘환희의 송가’를 들으며 가족들의 배웅 속에 떠났다. 방송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그 모습에서 선택의 숭고함과 정의심보다 절망감과 비감함을 느낀 건 그가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어서만은 아니었다. 안락사에 대한 논쟁을 불러온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미 비포 유(Me before you)’에서도 그렇다. 촉망받는 사업가였던 남자 주인공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된다. 원래의 밝고 자신만만한 성격 대신 매사에 비관적으로 변하게 된 주인공.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의 앞에 나타난 한 여인으로 인해 그는 평생 최고의 6개월을 선물 받지만 결국은 안락사를 선택하기에 이른다. 사랑하는 이를 곁에 두고서도.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

죽음이 선택의 문제일 수 있을까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

죽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전인미답의 불가항력이기에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해하다가도 결국 수용하게 된다. 그래서 두렵지만 결국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할 자연의 섭리일 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죽음의 방법마저도 자신이 선택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알랭 들롱을 보며, 지금은 가야 할 때라고 말하는 그의 결정 앞에서, 나의 지난 선택을 되돌아본다.

그리고 누군가는 필연적인,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지만 선택의 뒤엔 늘 후회와 미련이 동반되듯이 나는 그때의 선택을 여전히 아쉬워하는지도 모르겠다.

“연명치료 하시겠습니까?”

담당 의사가 가족들에게 물었다.

평소 심장 질환을 앓으셨던 아버지는 어느 날 고관절 골절로 입원하셨는데 중국엔 그 심장이 문제가 되었다. 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희미해 질수록 병원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했고 그 길 위에서 나는 종종 죽음을 떠올렸다.

내게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광휘로운 존재였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사춘기로 접어들 무렵 생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과 살찬 새어머니와의 만남, 어린 자식보다 젊은 아내를 더욱 아꼈던 당신의 아버지와 아직 철없던 새어머니가 뇌꼴스러웠을 터였다. 대거리한 번 못해보고 집을 나선 후 홀로 최상급학교까지 졸업하고 자립하기까지 미상불 역경과 고난의 세월이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것에 익숙하던 말은 내 아버지 에겐 해당하지 않는 말이었다. 그 부분이 내가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고 애련해하는 부분이다. 당신의 결핍된 어린 시절을 보상해주기라도 하듯이 아버지는 어린 자녀들을 웅숭깊게 아끼고 사랑했다. 그 지나친 사랑에 의지해 사느라 사랑이란 건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우리가 해낙낙하여 누리는 그 관심과 애정의 시간 안에서 아버지는 늘 배고팠고 힘에 부쳤다는 것을 어른이 돼서야 알게 되었다. 아버지에게 가족을 위한 희생이 삶의 존재 이유였던 것이다.

젊은 시절을 외롭게 보낸 아버지는 고향을 떠나 낯선 타지에서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다. 아버지 유년의 결핍은 아내와 자식들로 채워졌고 그들은 삶의 끈이자 숙제이기도 했다. 건뽕 한 조각과 메뚜기 한 마리가 아버지의 허기를 채울 동안에도, 연이은 좌절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 삶의 끈을 놓고싶을 때도, 어머니와 우리 4남매의 존재가 그 선택을 가로막을 수 있었다니 말이다.

내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한 어느 해 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다. 그날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통장 잔고(殘高)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지금이야 암은 익숙한 질환이고 상황에 따라 관리 되지만 그 시절엔 그야말로 사형선고와 다름없었다. 초상집 같은 집안 분위기를 어색해한 아버지는 애써 태연하게 신변을 정리하고 계셨는데

아무렇지 않은 그 표정을 읽어보려 감정의 소모가 상당했던 기억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소멸할까 두려워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야 했던 어머니는 더욱 그랬다. 그 후 위암으로 이미 학습된 아버지에게 찾아든 심장병은 견딜만한 무게로, 또 다른 숙명으로 다가왔다.

“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집에서 넘어진 아버지가 서울의 상급 병원으로 옮겨진 지 두 달이 넘어갈 무렵 또렷하던 목소리는 힘을 잃었고 그저 눈빛으로, 손짓으로 말할 뿐이었다. 앙상해진 손목은 으스러질까 두려워 잡기도 아까웠고 섬망증상이 생긴 이후로는 밤낮을 바꾼 아이처럼 간병인을,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 그런 와중에도 유난히 밝은 귀는 우리를 안심시키기도, 불편하게도 했는데 나는 크고 잘생긴, 군악대의 나팔처럼 생긴 아버지의 귀 때문이기보다 늘 타인을 향해 열려있는 성품 탓이라고 여겼다.

아버지는 유난히 이타적인 사람이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불편함도 종종 있었기에 자라면서 나는 이타적인 사람과 가족을 맺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쯤이었던 어느 겨울엔 길에서 우연히 만난, 갓 상경한 이방인을 데리고 오기도 했는데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온몸이 뻗뻗해지도록 신경이 곤두섰던 그 밤은 참으로 길었던 기억이 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원하셨다. 하지만 병실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버지의 손을 놓는 상상은 점점 현실로 다가왔다. 마치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아버지와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크게 인화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귀 밝은 아버지가 혹시라도 눈치챌까 작당 모의하듯 조용히 속삭이고 속삭였다. 퇴근 후 혜화동행 전철에 몸을 실을 땐 어느 순간 조용히 밀려오는 슬픔이 익숙할 것 같다가도, 병실로 들어서는 나를 향해 소리없이 눈짓하는 아버지를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의 무게가 견뎌지지 않을 것 같았다.

옛말은 틀린 것이 없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더니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일 때쯤 의사 선생님께선 연명치료에 대해 가족들끼리 합의를 보라고 하였고 그 말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끝을, 그 마지막을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아직 멀쩡하시다.”

어머니는 누워계신 아버지를 향해 큰 소리로 다짐하듯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런 어머니와 의사 선생님을 사이에 두고 며칠을 번뇌했고 가끔 눈만 깜박거리는 아버지에게 묻고 싶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래요?”

마치 임부(妊婦)가 제왕절개로 태어날 아기의 생시(生時)를 결정하듯이 우리는 아버지의 마지막 사시(死時)를 선택하기 위해 모였고 나는 분명히 봤다. 아버지의 죽음을 선택하는 자리,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아버지 눈이 축축이 젖어 있었고 순간 우리의 결정을 번복하고 싶었다.

“오후 12시 01분 임종하셨습니다.”

호흡기가 제거되고 아버지의 오른쪽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 내며 나는 묘한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아버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인간의 뇌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마지막을 준비한다고 한다. 심지어

숨이 멎고 심장이 더는 뛰지 않는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은 뒤에도 뇌가 작동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환자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고 의사가 사망선고를 내릴 때 이를 들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망자(亡者)의 마지막 순간을 관찰한 뇌 촬영 연구에서도 죽는 순간 자신이 겪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마지막으로 재생하며, 지나간 생전의 추억을 빠르게 회상한다는 결과도 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어떤 추억을 회상하셨을까?’

‘혹시 우리의 선택을 원망하진 않으셨을까?’

아버지가 떠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난 그때의 선택이 섬뜩지근하다. 우리의 선택에 아버지도 동의하셨을지, 아니면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셨을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순간들을 겪어보기 전까진 나 또한 알지 못한다. 그저 허우룩한 마음에 그 선택을 여전히 아쉬워하는지 모르겠다.

‘망자의 날’을 소재로 한 멕시코 영화 ‘코코’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의미로 이야기한다. 심장이 멎는 생물학적 죽음과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한 사회적 죽음,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가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알랭 드롱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 미국 뉴욕 스톨니 부록 의과대학교 샘 파니아 박사의 연구



근면과 성실함이 미덕이라는 시대에 태어나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삶의 무게를 몸으로 받아낸 아버지.

계절이 만든 겨울 실업은 아버지의 어깨에 또 다른 무게를 얹었다. 짙푸른 겨울밤 가족들 단잠 방해될까 알람 시계가 제 역할을 하기 전 일어나 매서운 바람 맞으며 발을 디딘다. 밤새 켜 놓은 트럭은 잠투정 아이처럼 툭툭댄다. 일어나길 거부하는 트럭에게 “오늘만 버텨보자” 살살 달래며 어두운 동굴 속에 손전등 비추듯 길을 만들어 연탄공장으로 향한다. 사람들은 모르는 연탄 공장 앞 늘어진 줄은 소문난 맛집인 듯 길가를 가득 메웠다. 유명한 소머리국밥 식당에서 주걱으로 만든 번호 표도, 키오스크에 예약 대기도 없이 수많은 다른 아버지들과 무딘 성실함을 경쟁한다. 시동 꺼진 트럭, 좁은 운전석에서 운전대에 팔을 기대고 꺼내 먹는 단팥빵 그마저도 아들과 함께한 날이라 특식이다. 단지 미식을 위해 유명한 맛집 앞을 몇 시간씩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는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 단팥빵으로 겨우 허기를 달랜다. 같은 기다림의 다른 온도는 세상을 여러 개의 방으로 경계를 나누어 사는 듯 낯선 공간으로 느껴진다.

오전 9시가 다 돼서야 차례가 왔다. 맛집에서 대기표를 받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하고 종업원이 불러 줄 때의 짜릿함처럼 차례가 온 아버지의 얼굴은 평소 못 보던 환한 얼굴이다. 연탄 공장은 그날 생산하는 연탄이 다 떨어지면 몇 시간씩 기다린 수고를 뒤로하고 그냥 돌아가야 한다. 아버지도 몇 번은 그랬던 적이 있다고 한다.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연탄을 신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아마도 그런 날은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추위 속에 더 긴 기다림을 보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알람 시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아버지를 먼저 깨운 건 아마 그런 기억 때문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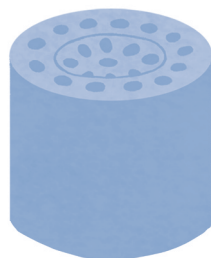
설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는 끊임없이 연탄을 토해낸다. 구멍난 연탄이 무거워 봤자겠지 우습게 봤던 나는 연탄집게 두 개를 양손에 들고 패기 있게 두 개씩 집었다가 생각 보다 무거운 무게에 연탄을 놓쳐 다 박살 나버렸다. 남 일인 양 밀려나오는 연탄들에 속도를 맞추지 못해 깨지고 꼬이는 상황에 아들과 둘이 온 기쁨도 잊히고 아버지는 속이 타 그냥 가만있으라고 불멘소리를 한다. 그제야 제 리듬을 찾아 차곡차곡 쌓이는 연탄들은 오와 열을 맞추어 제자리를 찾았다. 천장이 넘는 연탄을 짊어진 트럭 바퀴가 심술 난 듯 입술을 비죽댄다. 연탄 무게에 뒤로 기운 트럭이 조금이나마 균형이 맞을까 하는 바람으로 아버지는 몸을 운전대 앞으로 바짝 기대고 잔뜩 긴장한 채로 눈 날리는 거리를 조금씩 조금씩 헤쳐간다.

언젠가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발에 못이 찔려서 봉대를 감고 오셨었다.

파상풍 주사를 맞았다고 괜찮다고 했다. 언젠가 아버지가 포클레인에 치여 허리를 다쳐서 오신 적도 있었다. 조금 어지럽고 뼈긋한 것 같은데 파스 붙이면 되니까 괜찮다고 했다. 그때를 떠올리면 아버지를 별로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다. 어리고 철없어서 일까? 아버지가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아서 일까? 그냥 아버지란 존재는 그 정도 일은 대수롭지 않은 강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이제 막 성인이 되었을 무렵 용돈이 모자라지 않냐며 알바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때도 그냥 그건 아버지의 영역이라고 모른 채 넘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부쩍 마른 모습을 보았다. 항상 크고 힘센 아버지가 어느 샌가 나보다 약해 보였다. 거친 손만 두껍고 투박했다. 이게 오늘 아버지를 따라나서게 된 이유다.

첫 배달지에 도착했다. 연탄을 싣기만 하면 하루 일과의 절반이 해결된 거라 생각했지만 내리는 일이 심는 일의 몇 배는 된다는 걸 바로 알았다. 연탄보일러를 때는 사람들 대부분은 겨울을 겨우 버텨 내는 형편이 어려운 오래된 집이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날 만큼 공간이 협소한 곳에 연탄을 쌓는 건 공장에서처럼 컨베이어 벨트도 없이 일일이 사람이 들어서 옮겨야 한다. 한 장에 백 원 남짓 이윤을 남기며 옮기는 무게는 3.65kg이고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놓이든 가격은 같다.

나는 가성비를 생각한다. 아르바이트를 찾을 때도 힘들지 않고 시급을 많이 주는 곳인가? 음식점에 갈 때도 맛에 비해 가격이 적당한가? 투입에 대한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쉽게 다른



대안을 찾곤 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본 아버지의 인생은 항상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였다.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가 친구들에 부끄럽다고 생각했었고 머리가 조금 굽어서는 아버지처럼 미련하게 살지 말자는 다짐으로 아버지가 짊어진 무게를 펴내기도 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하필 오늘 눈이 많이 오네.” 처음 당신의 현장에 데려온 아들에 미안함을 내비친다.

“오늘 일당 두 배로 주세요.” 하고 실없는 농담으로 웃어넘긴다.

연탄을 반 넘게 털어낸 무게에 트럭이 기분이 조금 좋아졌는지 힘을 내보지만 어느새 마주한 눈 쌓인 비탈길에 맥없는 헛발질을 한다. 여기는 이렇게 위험한데 쉬운 마을을 놔두고 이런 곳까지 오시냐고 해도 아버지는 목적지로 계속 향한다. 한참 올라간 눈 덮인 낡은 집. 벌써 밖에서 발 동동 구르고 계시는 할머니가 아버지를 아들 대하듯, 사위 대하듯 반갑게 맞는다.

“내가 미안하네 눈이 하필 이렇게 오는데…” 라고 하시지만 오늘 여기를 안 왔으면 할머니가 더 큰일 났을 것 같이 방이 냉골이다.

“불러도 안 와, 다른 연탄은.” 아버지가 배달에 나선 건 여기에 오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오늘 넉넉히 신고 왔으니 걱정하지 마셔.” 하며 아버지가 이미 꺼진 연탄보일러에 번개탄으로 불을 키운다.

“야는 아들인가? 인물이 흰하네 밥은 먹었고?” 할머니가 물어보면

“네 할머니 배불리요.” 하고 거짓말한다.

“그래도 내가 새참은 줘야지 얼른 라면 끓여 줄 테니 먹고 혀.”

이미 작은 밥상 위에 대접에 한가득 담은 라면과 신 김치가 있지만 시작하면 끝을 보려는 아버지를 알기에 묵묵히 나머지 연탄들을 옮겼다. 다 끝내고 나니 라면이 한참은 불어 있었다. 가릴 처지가 아니라 허기짐에 젓가락을 들었다. 신 김치 없어서 크게 한 젓가락. 그 흔한 계란 하나 들어가지 않았지만 고소하고 깊은 맛. 이제 그 맛을 잊지 못한다. 평소 라면을 끓이면서 불은 라면은 버리고 새로 끓일 정도로 예민했는데 부재료도 잔뜩 넣어서 먹었던 어떤 라면보다도 맛있는 라면이었다.

아버지의 인생은 항상 손해였다. 당신이 피곤해도 늦은 밤에 올리는 도움 전화에도 이웃을 도왔다. 가족들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도 들었었다. 수고비도 제대로 받지 않고 항상 그렇게 남들에게 좋은 사람인 게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오늘 할머니가 아버지를 반기는 얼굴을 보고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다. 내가 따지는 가성비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연탄을 채워드리고 빈 트럭에 따뜻한 마음을 도로 가득 싣고 오셨던 것 같다. 겨울 실업은 어쩌면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겐 선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며칠 뒤 아버지가 쉬시는 날 라면을 끓여 드렸다.

“아버지, 라면 폭 끓였어요. 와서 드세요.”

“왜 이렇게 라면이 불었어. 맛이 없어 못 먹겠다 이진.” 하고 농담하며 아버지가 한 입 크게 드시면

“그러게요. 그때 할머니가 끓여주신 그 맛이 안 나네요.” 하고 멋쩍게 웃는다.



1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시립도서관에 방문했던 일이 아직도 기억난다. 아버지와 내가 가던 도서관은 사방이 유리창으로 되어있어서 주차장에서부터 실내가 어렴풋이 보였다. 일렬로 늘어진 검색 서가들과 그사이에 서서 책장을 넘기는 사람 그림자. 입구에 들어서면 느껴지는 정숙한 공기와, 솟구치는 엘리베이터에서 꼭 잡은 아버지의 손.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안나 카레니나, 수레바퀴 아래서 아버지는 유난히 고전 소설을 좋아하셨다. 한주먹에 한 권씩밖에 들어가지 않은 두꺼운 책을 넘기고 고르는 동안 쭈그려 앉아 얌전히 기다려드리면, 아버지도 내가 교육 만화책 고르는 시간을 기다려주었다.

“아빠 그건 무슨 재미로 보는 거야?”

두껍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진 딱딱한 책을 두 손에 안고있는 아버지를 올려보며 묻자 아버지는 수줍게 웃으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지만 읽어보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 가끔씩은 정말로 재미있고 몰입이 되어서 멈추지 못할 때도 있다면서.

다른 날들은 기억나지 않는데 왜 유난히 그날이 뇌리에 남아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생에게는 어려울 게 분명한 그 소설집을 아버지가 출근

하신 사이에 펼쳐보았다가, 러시아의 길고 어려운 이름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덮고 말았으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책을 다루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사서라는 말의 한자도 모르던 초등학교 시절 나는 장래 희망을 적어 내는 종이에 사서가 되고 싶다고 적었다. 저학년 때는 판사가 되어 나쁜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도서관의 매력에 빠져버린 건지 모르겠다. 아버지와 주말에 방문하던 도서관의 기억 때문인지, 아버지의 어린 시절 꿈이 사서였다는 말이 심장을 간지럽혀선지. 선생님은 사서가 된다는 말에 도서부를 추천해주셨다.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도서부에 들어가고 우연히 서가에서 인생을 뒤훔드는 책을 읽었고, 책의 재미를 알고,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했고. 그리고, 지금 사서가 되어 사방이 유리창인 도서관에서 일한다. 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 방문했던 그 도서관에서.

이따금 도서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고개를 들면 여전히 검색의 서가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사이에 다른 그림자들처럼 서있던 아버지, 그때의 우리처럼 손을 잡고 도서관에 들어서는 가족으로 이내 시선이 떨어진다.

2

아버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으레 그러하듯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다.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첫째였고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을 만큼 풍족한 집안도 아니었다. 공부를 잘해서 순위에 들기도 했고,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강했지만,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원하는 만큼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아버지의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를 들으며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은 결국 자식의 성공이고 우리의 성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사람쯤은 아버지의 길을 걸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고요한 도서관에서 일하는 나와 달리 아버지는 우악스러운 사람들이 가득한 교도소에서 일하는 교도관이다. 각종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과 함께하는 하루는 나의 정적인 하루와는 질이 분명하게 다를 것이다. 교대와 야근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은 늘 노랗거나 까맣다. 눈은 피로로 가득하고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다가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깨어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더 이상 책을 가득 채운 작은 글자 하나하나에 예전만큼 집중하기 어려워했다.

문득 저녁 식사를 하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나요. 먹고 싶은 건 없어요? 같이 어디로 여행이라도 갈래요. 묻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흘러나오는 질문은 평이었다.

“아빠 예전에 읽었던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 기억나요?”

“기억나지 그럼”

“나는 아직 영화로도 못 봤는데, 아빠가 그 책을 들고 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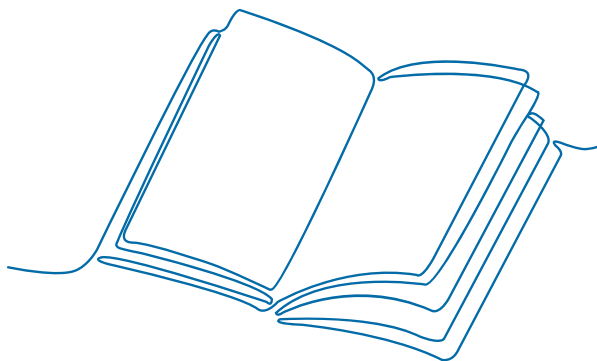
책을 한 장 한 장 얼마나 공들여서 읽었으면, 아버지는 아직도 등장

인물의 이름과 책의 내용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신다. 가끔 두꺼운 책을 읽어야 하지만 시간을 내기 어려울 때면 나는 아버지의 곁에 앉아 내용을 묻기도 한다. 아버지가 들려주는 책의 내용은 어느 영화보다 박진감 있고 재미있다.

3

요즘 들어 아버지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같이 도서관에 가지 않겠냐고 물어도 피곤하다는 말. 오늘은 집에서 주무시고 싶다는 말을 하신다.

독서는 마라톤과 같아서 길고 먼 책장을 한 장씩 넘기며 등장인물의 땀박질에 함께하는 일이다. 아버지는 더 이상 길고 긴 문장을 여유롭게 읽을 수 없게 돼버린 걸까. 아름다운 단어에 감동할 수 없게 된 건 아닐까. 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서점 주인이나 사서가 되고 싶었던 아버지가 현실의 물결에 순응한 채 천천히 바다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슴 아팠다.



그 뒤로 나는 재미있는 책을 발견하면 집으로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한번 읽어보라며 권해보았다. 아버지는 대부분의 책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따금 표지나 내용에 관심을 가지시곤 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출판되는 책이나 작가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삶에 지쳐 예전만큼 열정적으로 독서를 하지 못하신다. 나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시민과 작가가 교류할 수 있는 행사에 아버지를 초대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추천해주셨던 책을 다른 이용자에게 추천하기도 한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도 즐겁다. 어린 시절 아버지 덕분에 책을 사랑할 수 있었던 내가 아버지가 다시 책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교도관이었다. 교도관은 내가 어린 시절에 하고 싶었던 판사처럼 나쁜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교화시키는 사람이다. 지금 보면 아버지와 내 꿈은 서로 뒤집힌 것 같다. 우리는 동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결국 한 사람의 몫을 다른 한 사람이 해낸 것처럼 보인다. 나는 사서가 된 판사이고, 아버지는 교도관이 된 사서인 것이다.

사서란 무엇일까. 책을 사랑하고, 책을 다루고, 다른 사람이 책을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닐까. 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생각한다. 아버지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도관이 된 사서이고, 나라는 책이 제자리에 꽃힐 수 있도록 도와준, 나의 사서라고.



뼈꼭, 피꼴
퍼드덕, 퍼드덕
학교옆 푸른숲,
生命들의 울림이 있다.

방글, 병글
여기도, 저기도
보랏빛 제비꽃,
童心들의 합창이 있다.

오늘도 밝은 햇살과 함께 활기찬 아침이 오고 있다. 자전거로 한 시간
여를 달리니 학교에 이른다. 아이들의 뛰노는 모습이 좋아서,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워 정년퇴임을 하고 찾은 소중한 일자리이다. 매일 반복적인
자전거 타기로 피곤하고 귀찮을 법도 한데 내 마음은 늘 새로운 설렘으로
가득 찬다.

학교에 오자마자 교문을 활짝 열고서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화분에
물도 주고 나무와 꽃과 대화도 나눈다. 이는 마음속에 동지를 틀려고
하는 안일함과 나태함을 멀리하고픈 나의 바람이며,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극진하게 맞이하고 싶은 내 소망을 담고 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노인 일자리센터에서 오신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먼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도 피곤할 텐데요.”라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신다. 굽혔던 허리를 펴고서 “제 마음을 청소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누렸던 ‘특권과 예우’를 깨끗이 지우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심어 둔 꽃밭에 물도 주고요.”라며 환하게 웃어본다.

잠시 후, 깨끗하게 청소를 한 교문으로 아이들이 들어온다. 맑고 밝은 미소와 함께 허리를 굽히며 다정하게 인사를 한다. 혹시라도 한눈이라도 팔고 있으면 가까이 다가와 팔을 툭 치며 인사를 하는 ‘애어른들’도 있다. 이럴 때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다.

밀물처럼 들어오는 아이들의 등교가 끝나면, 자전거가 모여있는 곳으로 간다.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자전거들을 아이들의 통행과 안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바르게 정렬을 한다. 바르게 놓인 자전거를 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이 정리정돈이 된 것 같아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본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 이름을 잘 지었네요. 이름을 닮아 정돈을 잘 하시네요.”하는 농담을 건네신다.

교장 선생님의 칭찬을 뒤로하고, 느린 걸음으로 학교를 한 바퀴 돌아본다. 휴지도 줍고, 아이들이 놔두고 간 신발, 옷가지, 핸드폰 등을 주어 분실물 바구니에 넣어두어 아이들이 찾아가도록 한다. 분실물 바구니에도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LOST & FOUND’이다.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이곳을 찾아와 분실물을 찾아가며 고마워한다.

내 삶의 공간인 ‘배움터 지킴이실’ 옆에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장소도 있다. 일반쓰레기, 종이, 깡통, 플라스틱, 병 등을 종류별로 넣을

수 있다. 학교장으로 있을 때는 담당자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시를 하는 ‘갑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을의 위치’이다. 종류별로 분리수거를 하고 꼭 차있는 통은 꼬집어내어 새로운 자루로 바꾸어준다. 가끔 교직원들이 하겠다고 나서기도 하지만, 우김질하여 내가 한다. 배움터 지킴이라는 나의 새로운 직책은 내 나름의 전관예우이며, 남을 대접하기 위한 봉사를 실천하는 신성한 장소이다.

가끔은 내가 은퇴한 교장이라는 것을 알고서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상담하기 위하여 나를 찾기도 한다. 아무 때나 교실을 탈출하여 집으로 가버린 빠빠용같은 아이의 부모,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워 힘들어 하는 다문화가족, 학습 의욕이 없는 아이, 부모가 이혼하여 방황을 하는 아이들, 자녀의 진로문제로 찾아오는 학부모들, 교직 생활의 고충을 토로하는 교사들, 영어 교과서를 들고 날 찾는 아이들……. 모두가 나의 소중한 고객들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상담이나 진로지도에 관련된 자료를 항상 내 방에 비치하고 있다. 또 영어방송을 청취하고 영어 신문을 수시로 들여 다 본다. 내 자신이 ‘예비역’이 아니고 ‘현역’이 되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이다.

학교 시간이 되면 교문 앞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저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학교에 온다. 오랜 기간 근무를 한 통에 정이 들어 다정하게 인사를 주고받는다. 그때마다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 아이들로부터 배운 인사법이다. 불편하지 않도록 그늘막을 펴주기도 하고, 갑자기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건네주기도 한다. 평소에 아이들이 버린 우산을 모아서 수리한 것들이다.

사실, 나는 20대 중반부터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40년 가까이 중등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 덕분에 매월 봉급을 받아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 교육도 시켰다. 하지만 주변은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세월이라는 페달을 밟았다. 때로는 학습지도를 핑계로 제자들을 때리기도 하고 동료나 선후배들에게 예의 없이 대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운이 좋아 4년 동안 교감도 하고 10년 가까이 교장이라는 자리에도 있었다. 자연히 예우를 지나치게 받았다. 이로 인해 세상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내려다보는 태도가 몸에 배었다. 천여 명의 학생들이 나를 좋은 스승으로 존경하고, 육십여 명의 교직원들이 나를 윗사람으로 여기며, 학부형들도 나를 신뢰하고 좋아한다는 착각 속에서 살았다. ‘학교장이라는 관복(官服)’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지도력과 덕망’ 때문이라고 알고 지냈다. 이제 와 생각하니 부끄러울 뿐이다.

이제는 ‘교장이라는 관복’ 대신에 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다. 교직원, 조리종사원, 숙직원, 화장실 청소원, 유치원생, 초등학생, 일자리 노인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내가 섬겨야 할 소중한 분들이다. 방문객들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지, 자원봉사 어르신들께 예우를 다하고 있는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 학부형님들께 존경과 신뢰감을 주고 있는지, 학교에 누(累)가 되고 있는지는 않은지…….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반성이라는 거울’을 본다.

세상을 올려다보니 ‘마음의 문’이 맑아져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인사를 잘한다는 칭찬’을 학부형들과 어른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감사의 편지’를 초등학교 1, 2학년생들로부터 받기도 한다.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배꼽인사를 받으면서 행복감에 젖기도 한다. 졸업생들로부터 예쁜 꽃과 함께 ‘감사의 편지’를 받고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이제 내 나이 칠십이고 배움터 지킴이 생활도 6년째이다. 퇴직을 하고나서 한 동안 나를 괴롭히던 우울증도 사라졌다. ‘혼자’라는 생각도 없어졌다. 무기력증도 사라졌다. 학교에 오면 ‘남녀노소’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 아이들의 뛰노는 모습, 초등학교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매일 학교에 오시는 80세가 넘는 어르신들……. 고독을 느낄 겨를이 없다. 연륜과 더불어 보람이라는 나이테를 하나둘 더하며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사실, 현직에 있을 때는 출근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기다리곤 했다. 갈 곳도, 할 일도, 그리고 어울릴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정년퇴직을 하고나니 갈 곳도 어울릴 사람도 사라져버렸다. 매일 쉬지 않고 올리던 전화벨 소리도 조용해졌다. 무기력감에 빠지곤 했다. 이를 해결하려고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도 했다. 주민자치위원, 장학회이사, 구민 감사관, 시민감사관 등등. 하지만 늘 조심스러웠다. 열성적으로 참여하면 ‘교장을 했다고 잘난 체한다.’ 조금 소극적으로 하면 ‘저런 사람이 교장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비아냥거림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버리고 나니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다.

매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고위공직자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부동산투기, 자녀입시, 병역 등의 특혜시비가 단골 메뉴이다. 특히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전관예우가 우리들이 주목을 받는다. 당사자들은 머리가 좋아 좋은 학교를 나오고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고위공직이나 전문직에 있었으니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지나친 엘리트 의식과 관료주의는 평범한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공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공직은 국민을 위한 봉사의 자리

이지 각종 특혜를 누리거나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명예는 공직자의 몸에서 나오는 향기이다.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하면 향기가 나지만 그렇지 못하면 역겨운 냄새가 날 수도 있다. 고위직에 있었다고 좋은 향기가 날 수는 없다. 더더욱이나 은퇴 이후에도 돈이나 권력만을 추구한다면 공직자가 가질 수 있는 명예마저 포기한 셈이다.

김수한 추기경, 성철 스님, 장기려 박사, 이태석 신부, 유일한 회장 등과 같은 분들은 생전에 권력과 부를 탐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며, 사후에 우리 모두의 큰 스승으로 남아 계신다.

바빠 움직이다 보니 하루가 또 지나간다. 아이들이 사라진 학교 운동장이 다시 쓸쓸하게 보인다. 서둘러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 위에 오른다. “퇴직을 하면 교육자로서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돈이 안 되는 일만 하겠다.”는 퇴임전의 다짐을 되새겨 본다. 내려다보는 세상도 아름답지만, ‘올려다보는 세상’이 더욱 아름답다는 진리를 깨달으며, 자전거 발판을 힘껏 밟아 본다.





무 · 전 · 기! 듣기만 하여도 경찰관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다. 문인들에게 문방사우(文房四友)가 있듯이 경찰관들에게는 ‘무전기 · 흉장 · 권총 · 수갑’이라는 경찰사우(警察四友)가 있다. 엄격히 따지자면 권총과 수갑은 일선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지구대 등 외근 경찰관들과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 형사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흉장은 정복경찰관들의 가슴에서만 빛나지만, 무전기는 기능 · 복장에 관계없이 모든 경찰관들의 필수품이라는데서 진정한 경찰의 친구라 할 것이다. 아니, 외지고 추운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맡은 일을 처리하는 유전자가 경찰관들과 같으니 마땅히 경찰관들의 분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전기와 나와의 첫 만남은 유감스럽게도 산뜻한 것이 아니었다. 30년 전, 초임 경찰관이었던 나는 처음으로 새벽에 경호 근무를 나갔다. 당연히 아침은 굶은 상태였다. 맡은 구역에서 올빼미처럼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경계를 서는데 배에서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때 인자하기로 소문 난 경비과장의 따뜻한 목소리가 무전을 타고 왔다. 경호 1번 응답하라 그곳은 자장면인가 짬뽕인가? 어제 술을 마셔서 저는 짬뽕으로 하겠습니다. 경호 1번 지금 농담하는가? 바로 나는 호출되었고 팔굽혀펴기 100회의 별을 받았다. 내려갈 때는 ‘자장면-이상 없음’ 올라 올 때는 ‘짬뽕-이상 있음’ 을 외치면서 말이다. 지금도 경비과장의 호통이 귓전에

생생하다.

‘무전기의 음어(陰語)는 경찰관들의 제2외국어이다. 알겠는가?’

무·전·기! 나는 눈앞의 무전기를 들어 자세히 살펴본다. 돌려도 보고 세워도 보고 눕혀도 본다. 암만 들여다봐도 검고 투박한 것이 세련과는 거리가 멀다. 사촌이라 할 수 있는 전화기와 비교해 볼 때 모양과 성격이 정반대이다. 전화기들이 화려한 색상으로 갖가지 아양을 부리는 데 비해 무전기는 오로지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선다. 직업군인으로서 40년 세월을 카키(Khaki)색 군복 한 벌로 지내신 큰 형님처럼 묵직하다. 아나콘다의 창자처럼 어둡고 습한 통로를 달려야 하는 전화기의 음성들은 은밀하고 때로는 음험하지만, 맑고 푸른 하늘을 날아온 무전기의 음성들은 곧고도 단순하다. 시장 골목에서 가판대를 펼치고 생선 사려를 목청껏 외치는 어머니를 닮았다. 무전기의 조카뻘 되는 휴대폰들은 모든 면에서 더욱 상반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접근부터가 요란하다. 제각기 다양한 소리와 다채로운 음악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거짓의 텃으로 조인다. 사기의 함정으로 떨어뜨린다.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의 늪으로 끌어당긴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요하게 문자로 다가온다. 두꺼운 차단벽도 두더지처럼 뚫고 온다. 여기에 덧붙여 사진이며 영상을 보내어 판단을 흐리고 질서를 교란하며 인내를 시험한다. 반면 무전기는 시종 단순한 목소리로 진실만을 전달한다. 신문이요 단 네 마디로 세상의 새벽을 열었던 막내 동생이 생각난다.

무전기라고 어찌 편해지고 싶은 욕망이 없었을까? 더러는 현란한 샹들리에(Chandelier)의 부드러운 손길이 와 닿는 연회장을 찾기도

하였지만 극소수에 그쳤다. 많고 많은 무전기들이 눈과 코를 찌르는 최루탄과 화약 냄새에 거리와 건설현장에서 구토를 하며 쓰러져 갔다. 오늘도 적잖은 무전기들이 아스팔트·콘크리트 더미·화재 현장에서 눈을 감는다. 무전기라고 어찌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겠는가? 일부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세상의 언어로 일탈도 하지만 그 수는 손가락으로 꼽는다. 세상의 선과 사회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대다수 무전기들은 오늘도 음어의 너울을 쓰고 약어(略語)의 재갈에 퍼덕인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마님이라고 불러야 했던 길동의 마음도 이렇게 시렸을까?

그렇지만 무전기는 불평하지 않는다. 육체와 형식은 껍데기요, 정신과 내용이 삶을 지탱하는 알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전기는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소임을 다한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탈진해 있는 치매 어르신을 끈질긴 수색 끝에 찾아낸 후 무사하다고 짧게 보고한다. 출산 직전의 산모를 병원으로 옮길 때 비켜주세요 외치며 모세의 기적을 이끌어낸다. 마지막 낙엽처럼 위태로운 가솔 청소년을 설득하여 찾았다 알리며 부모 품에 안겨준다. 맞다고 굽게 말하며 어릴 때 헤어진 엄마와 딸의 손을 뜨겁게 이어준다.

그렇다! 무전기는 바로 소금과 같은 존재이다. 큰 형님, 어머니, 막내 동생이 일관성, 성실함, 올곧음으로 건강한 가정을 꾸렸듯이 무전기는 소박함, 진실성, 깨끗함으로 싱싱한 세상을 가꾼다. 오로지 변하지 않는 짝맛, 그 하나로 오롯이 서서 각박하고 팍팍한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무뚝뚝한 무전기를 가슴에 품고 격려의 말을 건넨다.

‘무전기야 힘을 내라. 기필코 그날이 올 것이다. 아름다운 것을 꽃이라 부르고 눈물을 정(情)이라 부르고 뜨거운 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세상이 행복과 희망으로 빛나는 날, 음어와 약어가 필요없는 그 날이 기필코 올 것이다. 그날이 정녕 너의 생일일 것이다.’





길 위엔 아침 햇살이 가득했다. 전깃줄엔 참새 떼가 올망졸망 앉아 짹짹거렸고, 이따금 골목길을 휘감아 도는 바람결에 길가 풀꽃이 한들거렸다. 학교 갈 준비를 마친 동네 아이들은 하나둘 집을 나와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종종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부산의 한 달동네에 살았다. 우리 집에서 동네 어귀 큰길까지는 다닥다닥 붙은 집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나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매일 아침 손을 잡고 그의 출근길이자 나의 등굣길이었던 그 길을 함께 걸었다. 길 위에서 우리는 별로 말이 없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시간을 채울 만큼 이야깃거리가 넉넉하지는 못했을뿐더러, 딱히 무슨 말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단지 아버지와 내가 손을 잡고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것 같다.

그렇게 조금 걷다 보면 갈림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갈림길에 다다르면 아버지는 잡은 손을 두어 번 움켜쥐시며 나를 보고 미소 지으셨다. 이제 헤어지자는 신호였다. 그렇게 갈림길에서 헤어진 두 사람은 각자의 남은 길을 걸었다. 조그마한 내 손에 전해진 아버지의 온기는 학교에 도착해서 까지도 온전히 남아있었다. 그 시절 아버지는 어린 나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친구였다.

하지만 내 손을 굳게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손에 언제부턴가 조금씩 힘이 빠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갈림길에서 바라본 아버지의 뒷모습이 날이 갈수록 작고 초라해 보였던 것은 단지 그가 내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 무렵, 아버지가 다니시던 건축자재 회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실은 어머니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다.

내가 중학생이 될 즈음, 아버지의 회사는 결국 파산했고, 아버지는 회사의 재고품을 떼어와 조그마한 판매점을 여셨다. 그렇게 힘들게 일어서시나 싶었지만, 그마저도 얼마 못 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IMF 구제금융 사태로 사업장이 부도나면서 아버지는 실직자가 되고 말았다.

그때부터 가세는 빠르게 기울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대신해 갖은 일을 하시며 생계를 이어야 했다. 그 무렵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투시는 일이 부쩍 잦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무능력함을 나무라셨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만 되풀이하셨다. 그런 날이 반복되면서 나 역시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쌓여갔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같은 남자로서 최대한 이해하려 끊임없이 노력해 보았지만, 가난이라는 가혹한 현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린 시절 나의 등곶길을 함께한 든든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애뜻한 정도로나마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그마저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아 살아갈 것을 나 자신에게 맹세했다.

그 후로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아버지께서는 재기(再起)하지 못하셨다. 대신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몫까지 집안 살림을 도맡아 오셨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몇 해 전부터, 이제는 오롯한 당신의 삶을 살고 싶으시다며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고 계신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은 2년 전 내 생일이었다.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내 머릿속은 하얘지고 심장은 터질듯 두근거렸다. 정신없이 차를 몰아 병원에 도착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버지는 응급실 침대 위에 눈을 감고 누워계셨다. 며칠 새 너무 야위어지셔서 한참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가 내 아버지임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

“어... 아들... 왔니?”

아버지는 어눌한 말투로 대답하셨다.

의사는 아버지의 병명이 급성 뇌경색이며, 얼굴 근육 일부와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 상태라고 했다. 하루 전 아버지와 통화할 때 방금 산책하고 왔노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리 이상하다 싶었더랬다. 그때 진작 알아차리고 병원에 모시고 갔더라면...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았다. 아버지의 곁에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무심하고 무능했던 아들에게 아버지는 오히려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퇴원 후 요양병원으로 옮기신 아버지는 다행히도 조금씩 좋아지셨다. 재활훈련 덕분에 지팡이를 짚고는 힘겹게나마 걸음을 옮기셨고, 어눌했던 발음도 꽤 정확해지셨다. 아버지의 병세가 호전되면서, 나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달동네 골목길에 가보고 싶었다. 코로나로

외출은 힘들었던 탓에, 우리는 외래진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그곳에 들러 짧은 동행을 할 수 있었다.

30여 년 전 아버지와 내가 매일 아침 걸었던 그 길은 세월이 흘러 사뭇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많이 변해 버린 우리의 모습. 젊고 콧꽃했던 아버지는 휠체어에 꼼짝없이 몸을 맡긴 채 앉아 계셨고, 뒤에서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아들도 이제 제법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는 30년 전 이 길의 끝에서 나와 헤어지며 점점 멀어져 가던 그의 뒷모습처럼 작고 초라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를 원망하며 절대 당신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유년 시절의 그때부터 나는 줄곧 아버지와 멀어지기만을 바랐던 것 같다. 그런 아버지가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된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예전의 당신과 함께했던 이 길을 다시 같이 걸어보고 싶었던 것은, 나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나의 연민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연이은 사업 실패와 외로웠던 노년, 그리고 갑작스러운 병환.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지, 나로서는 감히 헤아리기조차 쉽지 않다.

다만, 한 여자의 남편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로, 그리고 늙고 병든 아버지의 아들로, 내 삶의 무게와 세월의 겹을 더해가면서 그나마 조금씩 가늠해갈 뿐이다.

어느새 우리는 갈림길에 다다르고 있었다. 나는 가던 길을 되돌리며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이 길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지그시 웃으시며 고개만 끄덕이실 뿐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父子의 길 위엔 두 사람이 옮겨가는 걸음을 따라, 오월의 햇살이 오려낸
그림자가 사이좋게 움직이고 있었다.





유년 시절, 골목은 수많은 하루의 인연을 만들어주던 만남의 광장이었다. 골목 어귀를 지나들다 광훈이를 만나고, 감나무 집 앞에서 현준이의 누나와 마주치고, 삼거리 슈퍼 앞에서 용진이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한다. 때로는 연탄을 높이 쌓아 올린 리어카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경사진 골목을 힘겹게 오르고 있는 중년의 연탄 가게 부부를 만날 때면 우리는 리어카 뒤에 나란히 다붙어 힘을 보태곤 했다. 골목길을 타고 흐르는 도타운 만남과 따뜻한 가세의 흔적은 담장 사이의 좁다란 길 위로 온기를 오래도록 머무르게 했다.

골목은 무궁무진한 놀이가 만들어지는 놀이터였다. 광훈이를 만나면 공 던지기를 했고, 현준이를 불러 딱지치기를, 거기다 용진이가 뛰어오면 넷이서 다방구를 했다. 우리는 너무 달뜬 나머지 신나게 뛰어다녔고 파란 기와의 집주인 아저씨가 대청마루 미세기문을 세차게 열어젖히고, 시끄러우니 댄 데 가서 놀라는 으름장 소리가 담장 안에서 들려오면 우리는 또 다른 골목으로 가서 놀았다. 가끔 우리는 말을 듣지 않고 버티다가 아저씨가 빗자루를 거꾸로 집어 들고 대문을 박차고 나와 욕박지를 때면 마치 군사훈련을 하듯 달음박질을 치며 각자 골목 사이사이로 흩어지곤 했다.

저물녘 골목에 어스름이 조금씩 덮어오면 여기저기서 저녁밥을 먹으러

얼른 들어오라는 엄마들의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골목길을 타고 울려왔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난 방향에서는 어머니들이 친구들에게 내지르는 지청구가 들려왔고 그 소리가 사그라질 때면 골목은 아이들이 남기고 간, 푹푹했던 아우성의 여운을 곱씹으며 안식의 정취를 자아냈다.

골목은 애증의 길이기도 했다. 방의 온기와 집의 온수를 연탄불에 의지하던 시절, 지하의 연탄 아궁이에 올려둔 양동이가 떨어져 어머니의 발 위로 뜨거운 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내렸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들쳐업고 차도 지날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을 가르며 큰길에 있는 동네 의원까지 뛰어 달려갔다. 화상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렸던 나에게 그 아린 고통이 전해져왔고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기고 간 황망한 기운이 도는 마당에 덩그러니 남아 울먹였다. 아버지의 화급한 땀박질이 거세어질수록, 한겨울 별장계 드러난 어머니의 한쪽 맨발은 휘늘어진 채 요동쳤다. 의원까지 가는 길을 내어주었지만, 지어미의 억눌린 신음을 바투 들어가며 절절하고 급박한 마음에도 자꾸만 나타나기만 하는 이리저리 굽어 있는 골목길이, 푹푹하지 않은 집안 형편으로 가늠스럽기만 한 어머니를 향한 당신의 애잔함과 자격지심이 점철되어 원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학창 시절, 골목은 애뜻한 짝사랑을 피어나게 하는 화원이었다. 우리 집을 지나 왼쪽 골목 모퉁이를 돌면 현정이의 집이 있었다. 그래서 현정이는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갈 때면 항상 우리 집을 지나쳐갔다. 때로는 현정이가 야간자율학습을 끝마치고 늦은 귀가를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나는 집마당 담 아래 향아리를 밟고 올라가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고 현정이의 뒷모습을 몰래 엿보곤 했다. 은은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 비추어진 현정이의 단아한 뒷모습은 첫 짝사랑의 설렘과 함께 눈빛조차 마주칠 수 없었던 사춘기 때의 낯선 부끄러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인연에 대한 상심의 통증을 심장 안으로 휘둘게 했다.

깊은 밤, 잠이 쉬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밤하늘에 부유하듯 휘영청 떠있는 밝은 달을 누워 보고 있노라면 현정이의 얼굴이 달 표면으로 어른거렸고 나는 또다시 깊은 연정 속을 헤매어야만 했다. 그럴 때면 골목을 도는 행상인이 여운 짙은 가락으로 찹쌀떡, 메밀묵을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침샘에서 자꾸만 분비되는 침을 꿀떡꿀떡 삼키며 스르르 잠이 들었다.

밤이 더 이속해지면 골목은 술에 절어 비칠대며 집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의 투박하지만, 왠지 구슬픈 노랫가락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막 속에서 울려퍼지는 한풀이 쇼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어떤 날은 그 노래의 가수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골목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는 노래가 잠귀에 더 가까이 들려올수록 알 수 있었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우리 집을 찾지 못하고 옆집의 초인종을 눌렀고, 그 집의 아줌마는 또 시작 이냐고, 도대체 이번이 몇번째냐고, 하는 고성이가 그 집 안에서부터 울려 왔다. 어머니는 동네 창피하지도 않냐며 그런 아버지의 등짝을 후려치면서 소를 몰 듯 우리 집 현관으로 몰아왔다. 멀끔한 얼굴빛과 단정한 차림으로 출근했던 아버지는 추레한 차림이 되어 진한 술내를 풍기며 불쾌한 얼굴에 초점이 우왕좌왕하는 눈동자로 군드러질 듯 몸을 던지고는, 자고 있던 나의 뺨에 사정없이 뽐뽐을 하였다.

시간은 어느 길로 가는지 발자취는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세월이라는 담을 끼고 골목을 달리며 어른이 되어갔다. 나와 친구들은

이제, 그 시절 술에 전 채 나에게 뽀뽀를 퍼부으며 생의 고단함을 잊으려 했던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다. 친구들도 그때의 우리 아버지들처럼 하루 동안 짊어진 삶의 무게를 덜고자 본의 아니게 자식들을 귀찮게 할 것이고, 지금의 현정이는 교복 차림의 정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평퍼짐한 파자마 차림으로, 늦은 밤 대취한 채로 퇴근한 남편의 등짝을 후려치며 신세타령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상상에 허허로운 웃음이 나온다. 그때의 골목은 그때의 내가 걸었던 길이기여, 지금은 다시 밟을 수 없는 추억으로만 남아 아름다운 것이란 생각을 한다. 옷이 더러워지고 해질 때까지 골목을 휘젓고 다니며 함께 뛰어다니던 친구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유년의 푸르름을 추억할 것이고,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의 현정이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결국 병근 꽃봉오리였지만 금방이라도 터질 듯, 가득 품은 짝사랑의 설레는 소용돌이를 마음속에 간직해도 좋을 것 같다.

보금자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늘을 찌를 기세로 치솟듯 높이 높은 곳으로 자리를 틀었다. 거대한 상자 안으로 빼곡하게 끼워 넣어진 가가 호호의 틈 사이로 자리 잡은 내 집으로 가는 데에 골목길은 보이지 않는다. 짹 막힌 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추 수직 이동을 하면 담장 사이의 대문이 아닌 어느새 틈도 보이지 않는 벽 사이의 현관문 앞으로 당도한다. 구불구불 골목길을 돌면 양편으로 정경기만 하던, 칠이 군데 군데 벗겨진 푸르죽죽하거나 노르께한 대문들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폐쇄된 사각의 기계 박스 안에 무심히 있노라면 아래, 위로 도식처럼 줄 서 있는 많은 호수의 집들을 보이지 않는 새 훑고 지나간다. 휘우듬한 골목길을 누비던 원만했던 감성을 소환해 보지만, 웬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진다. 골목길을 돌아 이웃 사람들과 마주치면 살갑게 인사하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어쩌다 마주쳐도 서로의 눈길을 슬며시 피할 뿐이다. 빠름과 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대 변화는 거주 공간에도 변화를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이라는 세계 안에서는 자신의 사생활을 공유하고, 얼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잠금장치도 없는 그 사적인 공간을 넘나들며 면식이 없는 익명의 사람들과 서로 간 스스럼없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 어쩌면 실제적인 관계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들은 그러한 세계를 만들고, 불러들이고, 찾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신속한 만남과 빠른 헤어짐으로 가득한 그 네모난 공간 안에서도 골목길을 거닐며 찾아가는 소박하고 따뜻한 정서가 느껴지진 않는다.

그 시절, 휘황한 조명 아래 매끈매끈한 광택의 표면으로 드넓고 곧게 뻗어가는 대로변을 화려하게 활보하는 멋은 없었지만, 나는 구불구불하고 언뜻먼들 볼품없는 그 골목길을 밟으며 다감한 이웃의 정을 나눴고, 진한 사람 냄새를 맡으며 서민의 삶을 밟았다. 그 길 위에서는, 힘없고 가난했지만 생동하는 희로애락 속에서 보통 사람들의 풀뿌리 같은 희망의 발자취들이 돌아났다.

눈을 감으면 그 골목길이 어른거린다. 한 여름밤 지나치는 집의 창문 너머로 가족 간에 오고 가는 한담이 다문다문 들려오고, 휘어진 골목 어귀에서 반가운 어느 누군가가 또 나타날 것만 같은 만남의 풍경이 선연하게 눈앞에 그려지며 나는 그 골목을 자박자박 밟아나간다.

2022년 공직문학상

단편소설

진여물 관리센터

표절에 관하여

어떤 인연

그녀들의 흔한 사정

부탁



1

그 방을 발견한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다. 정확히는 방이 아니라 틈이었다. 10년 전 안방에서 나오던 아버지 뒤로 벽에 약간의 틈이 있는 것을 발견했었는데, 지금까지 잊고 있었다.

“그래서, 이 방을 인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 방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중년의 남자가 재차 물었다. 나는 그 서명이란 것을 꼭 해야 하는 거냐고 항변하던 중이었다. 황금 같은 주말 아침, 이 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부동산의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길로 눈을 비비며 강남에서 태릉까지 왔다.

나는 승진과 함께 미국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마음이 급해진 상태였다. 요즘 시대에 이런 오래된 단독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드물기도 했고 이미 이 집은 1년째 나가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 이번엔 꼭 팔렸으면 해서 조금이라도 흠 잡힐 만한 것들은 모두 정리하다가 이 틈을 다시 발견했고, 조금 건드려 보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안으로 이런 후텁지근한 비밀 방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걸 웬 낯선 남자가 심각한 얼굴로 둘러보고 있을 줄은 더더욱 몰랐다. 게다가 이 방을 인수하려면 서명을 하라고? 아마 신중 사기 수법일지도 몰랐다. 일단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인수를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의 의증을 파악하기 위해 천천히 물었다. 어디 말해보란 듯이. 이 집은 이미 내가 상속받은 집인데 그 ‘인수 확인서’에 서명을 하는 게 의미가 있기는 한 건지.

“오늘부로 소멸 시효인 10년이 완성되어서요. 서명을 꼭 하셔야 인수가 돼요.”

“도대체 무슨 소멸 시효요.”

“잔여물 소유권의 소멸 시효요.”

이맛살이 절로 찌푸려졌다. 소멸 시효란 아무도 이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야 성립되는 것인데,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상속 절차를 신속하게 끝마쳤다. 게다가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10년은 무슨 10년이람. 나는 시간이 점점 아까워지기 시작했다.

“여긴 이미 제 집입니다. 등기도 다 되어 있고…….”

그러자 그가 ‘또 그러시네.’ 하는 표정으로 말을 끊었다.

“잔여물 관리센터의 규칙입니다.”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미치겠네, 이러니까 눈 뜨고 코 베이는 사람이 있지. 30대의 합리적인 사회 구성원인 나는 이 무단침입자의 말을 더는 듣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태도를 단호하게 바꿨다.

“이제 나가 주시죠.”

남자의 팔을 잡고 비밀방 밖으로 끌어냈다. 저항하는 그를 현관 밖으로 떠밀었다. 초록빛 그늘을 드리우는 무성한 마당을 지나 정갈하게 페인트 칠이 된 검은 대문에까지 다다르자, 그가 필사적으로 버텼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승혁 씨, 잠깐만요.”

“도대체 제 이름은 어떻게 아는 거죠? 애초에 이 집엔 어떻게 들어온

거죠? 생각해보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갑시다.”

“어, 어딜 가요?”

“경찰서요.”

“아니, 잠깐만요. 이러면 나도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대문을 벌컥 열었다. 순간 그가 대문 밖으로 휙 뛰어내리는 바람에 나는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땅에 닿지 않았다. 발이든 몸이든. 나도 모르게 질근 감았던 눈을 떴을 땐 익숙한 집 앞 풍경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나와 그는 떨어지고 있었다.

‘악!’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와 빠르게 멀어졌다. 매서운 바람 소리가 귓가를 빠르게 휘릭였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언제 땅에 부딪힐지 몰라 식은 땀이 다 났다가도 땀은 그 자리에 남고 몸만 아득하게 멀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었다. 아래에서 위로 낙하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의 속으로, 속으로 끝없이 파고 들어가는 것 같기도 했다. 방금까지만 해도 당장이라도 신고하겠다고 유세를 부리던 나는, 생전 처음 겪는 경험에 그를 필사적으로 붙잡는 신세가 되었다.

2

<잔여물 관리센터>

속도가 줄자 실눈을 슬쩍 떴다. 기진맥진한 내 눈앞에 희한한 모양의 건물이 은빛 간판을 달고 육중하게 떠 있었다. 그러니까, 나도 어딘가에 동등 떠 있었다. 디딜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발밑을 발견하자 몸이 쭈뼛

굳었다. 다리만 사시나무처럼 후들거렸다.

“여기가 어디죠?”

“잔여물 관리센터라니까요. 도대체가 사람 말을 믿어야지, 원.”

화를 내는 그의 팔을 내가 황급히 붙잡았다. 선 자리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겨우 까치발을 한 채였다. 거의 수직이 된 눈썹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내 얼굴을 보고서야 그가 화난 표정을 조금 풀었다.

“우리 센터까지 보여주게 될 줄은 나도 몰랐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잔여물 관리센터라니.”

“유실물 센터는 들어봤을 것 아니에요.”

“들어봤죠.”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은 두 가지로 분류돼요. 대체로 물리적인 건 유실물, 그렇지 않은 건 잔여물이라고 하죠.”

“하지만 잔여물도 관리센터가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당연하죠. 이 센터조차 잔여물이니깐.”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아듣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낯선 곳에 툭 떨어진 이상 그의 말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 나는 스스로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합리적인 성인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말은 눈에 보이면 무조건 믿는다는 뜻이기도 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정말 믿어 버리는 바보는 되고 싶지 않았으므로, 어떻게든 이 꿈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쪽 말은…….”

“그쪽 말고 관리인.”

“예예. 관리인, 님.”

나보다 그가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으므로 그의 기분을 풀어주려는 의도도 포함해서 ‘님’ 자를 붙여 부르기로 했다. 하지만 그게 그의 허언을 믿는다는 건 절대 아니었다.

“나도 원래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진 않아요. 당신 아버지 방만 아니어도.”

“아니었어도?”

“그 방은 우리 세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슈였어요. 당시 위원회도 열렸을 정도니까.”

“우리 아버지 방을 가지고 위원회를 열었다고요?”

나는 처음에는 얼이라도 빠진 사람처럼 그의 말을 반복해서 되묻다가,
“그 방을 당신 아버지의 유실물로 볼 것인가, 당신의 잔여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점점 미간을 찌푸리다가,

“유실물로 본다면 자동으로 상속자인 당신에게 귀속될 테고, 잔여물로 본다면 당신이 찾아가지 않는 이상 당신에게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요. 논쟁만 계속하다 회의는 파행됐어요. 그래서 일단 미제로 남겨 놓고 시효를 기다려 보기로 한 건데, 10년이 다 됐으니 난 또 안 끝날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오늘 당신을 만났으니 나로서도 오늘 안에 당신이 서명 딱 하고 인수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그냥 아버지의 유실물로 처리해도 됐을 텐데요.”

이제는 대놓고 툭툭거리고 있었다. 아까부터 느꼈지만, 그는 심각한 원리원칙주의자였다. 융통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꽉 막혔으니 10년이나 이 방을 처리 못 한 것 아닌가. 게다가 내가 아무리 투덜댄들 그런

‘요령’에는 꿈쩍도 안 할 사람이었다. 내 말투에 그의 말투도 다시 언짢아졌다.

“정말로 아무도 몰랐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 방이 정말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실물이기만 했다면요. 하지만 당신은 10년 전부터 그 방을 명백히 잔여물로 만들었어요. 발견하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가슴이 뜨끔했다. 하지만 나는 불통한 표정을 풀지 않고 응수했다.

“그렇다 한들 그게 제 것인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당신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멸 시효도 생긴 거예요. 우리 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뒤편’입니다. 그 뒤편 꼭 대박이 난 멜로디나 시나리오 소재가 붙어요. 다 저작권 싸움이지요. 하지만 한번 떠올렸다가 다시는 기억해내지 못한 걸 본인 거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찾아가지 않은 잔여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기 유리한 입맛대로?”

그는 나를 할 말 없게 만들어 버리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페이스가 흐트러지자 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지고 싶지는 않아 기어이 중얼거렸다.

“아니, 이미 내 집인데 그런 개념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그 집 팔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결국 헛기침하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서명이란 건 하고 봐야 할 것 같았다. 그를 논리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다. 여기까지 와서 그 방을 인수 안 하는 것도 억울했다. 내가 인수를 해야 그 틈을 봉합하든 말든 할 것 아닌가.

“알았어요. 그럼 제가 인수를 하지 않으면, 그 방은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관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출해요.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그는 내 고집이 한풀 꺾였다는 사실에 급격히 너그러워졌다. 그가 앞장서 ‘잔여물 관리센터’의 출입구에 자신의 출입 카드를 가져다 댄 다음 손을 뻗어 나를 친절히 안내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널찍한 복도가 길게 펼쳐졌다. 바닥에 발을 딛자 건물이 휘청, 기울었다. 기겁한 나에게 그는 망각의 세계와 존재의 세계 사이에서 무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각자 양쪽 벽에 달라붙어 박자를 맞춰 걸었다. 우스꽝스럽게 걷다 보니 벽에 문들이 나 있는 것이 보였다. 일정한 간격으로 나 있는 각각의 문에는 팻말이 하나씩 붙어 있었다.

〈10분, 20분, 30분, 1시간, 1일, 1주, 10년 이상(EXIT)〉

“이 문들은 뭔가요?”

“잔여물들을 기간별로 관리하는 방입니다. 10년 이하의 잔여물은 본인이 찾으려고만 하면 이곳에서 찾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절차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거죠? 처음엔 10분 단위로도 구분하더니 어떻게 일주일 다음에는 바로 10년으로 가냐는 말이에요.”

“1시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사실상 영구 잔여물이 되어 버려요. 세상의 모든 잔여물을 다 여기서 보관할 순 없으니까요.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오래 유예 기간을 주고 있는 셈이죠.”

“그럼 10년이 넘는 건 찾고 싶어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외부로 방출하니까요.”

그가 이제 알겠냐는 듯 나를 보았다. 그리고는 마지막 문 앞에 멈춰 섰다. ‘10년 이상’ 방임을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확인한 그가 나에게 복도 가운데로 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어정쩡하게 한쪽 발을 옆으로

내디뎠다. 그러자 그가 내 손을 덥석 잡아 끌어당겼다. 그 아래 쓰여 있는 ‘EXIT’가 불길하다는 생각이 너무 늦게 들었다.

“준비 됐죠?”

그는 내가 대답할 새도 없이 센서에 출입 카드를 댔다. 그리고 아까처럼 문턱을 훌쩍, 뛰어넘었다.

“아니, 이런, 또…….”

나는 작게 화를 냈다.

3

또 검은 공간을 한참 낙하한 후 눈을 떴다. 다행히 아까만큼 아찔한 공포는 아니었다. 오히려 닿지도 않았는데 집 앞 계단을 딛고 있어서 흠칫했다. 몸의 감각을 더는 믿을 수 없어 속이 울렁거렸다.

잔뜩 찡그린 눈앞에는 언제 어딜 다녀왔냐는 듯 익숙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돌계단 틈을 비집고 자란 오래된 이끼들과 그 아래부터 자라서 나보다 높게 자란 살구나무까지.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잠시, 나는 묘하게 달라진 풍경에 또 울렁증이 도졌다.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이상한 것들이 기다란 비눗방울처럼 둥둥 떠다녔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분명 같은 집 앞인데, 왜 다른 세상 같은 거죠?”

“잔여물의 세계로 온 거니까요.”

나는 눈앞의 광경을 넋 놓고 쳐다보았다. 투명한 무지갯빛을 반사하는 비눗방울들이 온 동네를 등실거리고 있었다. 골목을 가득 채운 건 물론이고, 대문 앞 팻말에 걸쳐 있기도 하고 앞집 담벼락에 찰싹 붙어 있기도 했다. 저 멀리 대로에서는 빠르게 달리는 차들에 밀려 하늘 위로

붕 떠오르기도 했다.

“사람들은 유실물 세계가 다인 줄 알고 살지요. 사실은 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허공을 떠다니고 있는대도요.”

그가 손을 앞으로 쪽 뻗어 양쪽으로 휘휘 젓자 비눗방울들이 미역 줄기처럼 손에 얹히고설켰다.

“현실 세계에선 안 보이는 거군요.”

“못 보는 사람은 평생 못 보죠.”

그가 자신의 손에 걸린 수많은 ‘뭉더라’를 하나씩 떼어내며 답했다. 그중에는 최근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넷플릭스의 드라마도 들어 있었는데, 과연 누구든지 자기도 그 소재를 생각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흔한 소재였다.

화려한 모양의 영화 소재들을 떼어내자 별 볼 일 없는 일상의 생각들이 남았다. 챗바퀴처럼 반복할 뿐인 일상을 방증하듯 비슷한 모양의 비눗방울들이 이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멀거니 쳐다보았다. 그가 떼어내고 있는 것 중에는 내 것도 꽤 있었다. 그중 하나는 첫사랑 생각이었다. 그가 나를 놀리듯 힐끔 보는 바람에 나는 탄청을 피웠다. 내 것이 아니라는 듯이.

하지만 비눗방울에서 풍겨 나오는 말투랄까, 품이랄까, 그게 누가 봐도 나의 것이었다.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민망한 기분이듯 나도 그것들을 차마 눈 뜨고 못 보고 있었다. 집 앞 나뭇가지 사이에도 하나가 걸쳐 있었는데, 그 안에 쓰인 말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 봐야 하는데.’라서 나는 설상가상 무안해졌다.

“그 아래에도 하나 있네요.”

팔에 덕지덕지 붙은 작은 비눗방울들을 마저 떼어내던 관리인이 내 발

아래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나는 순간 긴장했다.

“뭐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잖아요.”

그가 억양을 높였다 길게 내렸다. 꼭 다 알면서 물어보냐는 말투라서, 조금 전의 무안함까지 합쳐져 펍 언짢아졌다. 불만스레 고개만 살짝 내리자, 아까부터 바닥 이끼 사이에서 기름처럼 반짝이던 조그마한 방울이 정확히 시야에 들어왔다.

허리를 굽혀 이끼 사이로 손을 뻗었다. 검지와 엄지를 조심스레 집어 넣자 손톱 사이에 꿈꿈한 물때가 졌다. 콧잔등을 찡그리며 손가락을 오므리자 방울이 손에 닿았다. 어찌나 힘이 없는지 한날 봄바람에도 날아갈 것 같은 취약한 잔여물이었다. 내 건 아니었다. 나는 내심 안도하며 허리를 일으켰다.

“이건 뭐죠?”

“뭉진 뭐예요. 당신 첫사랑이 한 당신 생각이지.”

나는 말문이 막혀 겨우 면봉 끝머리만 한 작은 방울을 바라보았다. 아무리 10년이 훌쩍 지난 일이라지만 나에게게는 열병처럼 오래 남았던 첫사랑이었는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남아 있는 걸 보면, 제 생각을 하긴 한 모양이네요.”

“그야 당신과 헤어지자마자 당신 생각을 여기에 두고 가 버렸으니 그렇죠.”

“나를 그렇게 빨리 잊었다고요?”

내가 반사적으로 따졌다. 얼굴이 핫핫해진 탓이었다. 설상가상 목소리도 불쌍사납게 갈라졌다.

“그럼 당신 같을 줄 알았어요?”

“이봐요!”

“상대의 마음이 본인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난센스죠. 하긴, 사람들은 잔여물의 세계를 보기 전까지는 죽어도 안 믿더라고요.”

그쪽은 나만큼 마음이 크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는 말로 들렸다. 나는 그만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오늘 하루에 울화가 치밀었다. ‘잔여물의 세계’란 것에도 불신이 치솟았다.

“아니, 이게 다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요?”

“한 번이라도 생각한 것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는 게?”

“그럼 어디로 가요?”

내 격양된 물음에 그는 오히려 차분하게 되물었다. 일반인이 이 정도의 거부감을 드러내는 건 익숙한 일이라는 것처럼. 그의 폭신한 반문에 내 분노는 갈 곳을 잃고 수그러들었다.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세계에 대한 일관된 규칙과 설명으로 나를 이해시키고 있었다.

“잔여물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데 잊은 것일 뿐이에요. 그런 건 어디로 가야 하는데요? 생각해 본 적도 없겠지. 그러니 우리 센터가 생긴 거고, 우리가 최대한 보관하다가 결국 이렇게 방출되어 떠돌 수밖에 없어요. 길 가다 갑자기 잊고 살던 흑역사가 떠오르는 경우 없었어요?”

“전혀요.”

곧장 받아쳤지만 이미 그런 경험을 한 기억은 수도 없이 떠오르고 있었다.

애매한 내 표정을 읽었는지, 그가 대문 안쪽에 있던 장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나무에 걸려 있는 내 잔여물 하나를 흘렁 걸었다. 10년 전 과로로

죽은 선배의 장례식에 다녀온 기억이었다. 나도 내가 잊고 있었던 그 기억에 놀랐다. 관리인이 기다란 장대를 낚시하듯 톱 뺨어 던지자, 옆집에 트럭을 세우고 내린 택배기사의 머리 위에서 톱 터졌다. 그러자 땀으로 범벅이 되었던 그가 잠시나마 앉아 생수를 들이켰다.

“나, 참…….”

나는 그만 턱을 아래로 푹 떨어뜨렸다. 생각이란 게 내 머릿속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길 가다 만난 것일 수도 있다고? 기분이 묘했다. 내 생각을 읽었는지 그가 말했다.

“생각은 흘러가는 거니까요. 물론 흐르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게 뭔데요?”

“물건에 담긴 경우요. 그런 건 참 묘하거든. 물건 자체는 분명 소유자가 있는데, 그 안에 든 추억은 아무도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럴 수 있겠네요.”

나는 내 얘기가 전혀 아닌 것처럼 끄덕였다.

“주로 유품이 그래요. 유품은 상속되면 그만인데, 잔여물은 그 안에 고여서 안 나오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관리할 체계를 만들고 있어요. 당신 아버지의 비밀방도 그래서 특별한 거고요. 유실물에서 잔여물이 빠져나온 사례랄까. 심지어 집은 팔릴 예정인데 잔여물만 분리 상속이 가능하게 된 사례죠. 이제 들어가 볼까요?”

4

“이 방으로 학자들이 논문 많이 쓸 겁니다.”

관리인이 흥미롭게 말하며 벽을 헤쳤다. 틈 안에는, 그러니까 아버지 방 뒤에는 나도 몰랐던 뒷마당이 있었다. 뒷마당을 감싼 투명한 표면

위에 흰 햇살이 쏟아졌다.

뒤따라 들어오는 나를 확인한 그가 방 안에 뚱뚱 뜬 채 덜그럭거리는 커피잔을 집어 들었다. 설마 했는데 그가 잔을 입에 갖다 댔다. 내가 황급히 막았다.

“아니, 그거 먹어도 되는……!”

최소 1년은 방치되었을 커피를 마시고 싶을까. 하지만 내가 더 말리지 않은 건 그가 이미 꿀꺽꿀꺽 마시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이 방은 계속 숨을 쉬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의외로 마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나는 이 이상한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왜요. 아직도 이렇게 따끈따끈 김이 나는데.”

“어려하겠어요.”

내가 포기하듯 대꾸했다. 굳이 더운 커피를 마시고 손부채질을 하는 그를 보고, 나도 슬그머니 팔을 걷었다. 방 안은 그 정도로 더웠다. 온실처럼 후텁지근했다. 조금만 움직여도 콧잔등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다. 표면이 계속 데워져서인지 방 크기도 늘어났다 줄었다 했다.

그를 따라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큼직큼직해서 자기들끼리 맞물리는 비눗방울을 헤치고 걸었더니 어깨가 빠근했다. 사방을 가득 채운 방울들은 마치 이 집의 역사를 전시해 놓은 박물관 같았다. 엄마가 살아 계시던 시절에서는 케케묵은 먼지가 떨어졌고, 그 후의 것들에서는 어색한 삭막함이 훅 끼쳤다. 그 순간마다 발이 미지근한 물에 푹푹 잠기는 것 같아 아래를 여러 번 내려다보았다. 벽과 구분이 없는 바닥이 침울하게 울렁거리고 있었다. 방이 울컥거릴 때마다 비눗방울들이 끊임없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며 마찰음을 냈다. 나는 그만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위기감이 엄습했다. 입이 먼저 움직였다.

“저기, 그냥 서명만 하고 나가면 안 될까요?”

얼른 서명하고 끝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왜요?”

“이미 다 본 것들이라서요.”

묵직한 앨범 몇 권과 당신의 정년퇴임식에서 어색하게 찍은 단들의 가족사진은 이미 내가 다 받은 것들이었다. 심지어 자식 부자 되라는 의미로 손수 코팅해 주셨던 구권 한 장-내가 독립하면서 결국 가지고 나가지 않은 것-까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그것들을 유품이라는 말로 그룹 지어 한 상자에 담아 내 집으로 가져갔다. 금세 다시 바빠지면서 나는 그 상자를 옷방 한구석에 고이 놓고 열어보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였다. 유품은 상속받았지만, 잔여물은 받기는커녕 오히려 소멸 시효만 작동시킨 꼴이었다.

슬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의 일인데 정말로 가슴 속이 미어지고 따가운 걸 보면 아버지의 집 안에 이러한 비밀방이 생겨난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지금 둘러보고 있는 방은 확실히 현대의 기술로 지은 것이 아니었다. 건축법상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물이라고 하지만, 이 방 어디에도 기둥이라 할 만한 것은 없었다.

“가자니까요?”

내가 한 번 더 재촉하고서야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까까지만 해도 뭔가 기대에 부푼 것 같았던 그의 얼굴이 지금은 안타깝다는 듯 축 처져 있었다. 이 방의 온도처럼 붉게 데워진 눈시울을 보자 나도 모르게 사과의 말이 나왔다.

“죄송해요.”

영문도 모르고 사과하는 나를 보고 그가 희미하게 웃었다.

“미안해 할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원래 잔여물을 안 찾으려고 해요.”

그는 잔여물의 잔여물성에 완전히 감정이 이입되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자신과 아예 동일시하는 것 같기도 했다. 아차 싶었다. 그는 자기 일에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직장인이었다. 그는 분명히 상처받은 표정이었다. 나는 애꿎은 뒷머리를 긁적였다. 아니, 참. 적당히 일과 자신을 분리하는 융통성도 없고. 사람 난감해지게.

“새삼 다시 느끼네요. 잔여물은 본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도 전해줄 수 없다는 걸.”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나는 대답을 주저했다. 입을 열면 그 말이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서였다. 어떤 관계든 동등하지 않다. 입만 열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게 되는 관계는 분명 있다.

“유실물은 잘만 찾아서 챙겨 가면서.”

침묵 속 그의 말만 흘렸다.

“잔여물은 있는지 보려고도 안 하니까.”

방 안이 한 꺼풀 어두워졌다.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도 이 방은 곧 잊히고 말 것처럼 껌뻑거렸다. 바깥은 한낮인데 이 안은 땅거미가 진 것 같았다. 어둑해진 방이 심하게 비틀거렸다. 울적해진 마음 반, 외면하고 싶은 마음 반이 양쪽을 오가며 갈팡질팡했다.

아무리 무뚝뚝한 인간이라도 면전에서 미안할 말은 못 하는 법이다. 나는 떠밀리듯 입을 열었다.

“더 보죠. 방을.”

5

그는 그 후로도 방 안을 오랫동안 구경했다. 허리를 숙여 가까이 구경하기도 하고, 멀리 젖혀서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기도 했다.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만들어 두셨던 주택청약통장-그것이야말로 아버지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된 채 잊혔으므로 잔여물이었다-을 한 번 펼쳐 보기도 했다.

나는 그런 그를 가만히 보았다. 누군가의 뒷모습을 이렇게 실례되게 오래 쳐다본 적은 없었다. 들밖에 없는 이 방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보면 볼수록 그는 나와 같은 육질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눈에 보이는 화면에 불과한 것 같기도 했다.

사실 정체를 알 수 없는 저 사람쯤이야 처음부터 무시해 버릴 수도 있었다. 그럼 내 주말은 단잠으로 채워졌을 테고, 남은 그는 마지막으로 이 방을 둘러보았을 것이다. 오늘 자정이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이 방을.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인생에 살아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겠지.”

사진을 한참 보던 그가 나직이 읊조렸다. 내가 좋은 반응을 찾지 못하자 그가 이해한다는 듯 덧붙였다.

“아버지를 얼마나 살펴야 하나, 생각하는 게 부담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돌아가신 다음에 이 방을 찾아온 것일지도 몰라요.”

“그건 아니지요.”

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측은했던 마음이 다시 일그러졌다. 참

불편한 사람이었다.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 왜 사람을 순식간에 불효자로 만드는 건지. 사람을 효자와 불효자로 딱 나눠 정의할 수 있겠느냐는, 그래도 나는 굳이 따진다면 전자 쪽이라고 생각해 왔다. 나는 키워주신 고마움을 잘 알고 있고 언젠가는 꼭 갚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하지만 그가 찢어보듯 건드린 마음 한편의 불편함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어느 정도를 불효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부담 갖지 말아요. 누구나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내 생각을 보고 있는 건가요?”

말에 가시가 핵 돋쳤다. 측은함과 불편함이 동시에 솟구치는 건 분명 뒤틀린 감정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잔여물을 반기지 않는다는 그의 말을 이해할 것 같았다. 내가 효자든 아니든, 그것을 이렇게 주말 아침에, 내가 깨달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은 시점에 누군가가 굳이 나타나 깨우쳐줄 일은 아닌 것이다. 아침부터 단정 지었듯 나는 지금 잠이 필요했다. 지금 이 생각조차 그의 눈에는 보이게 될 것이고, 그의 마음에도 조금은 상처가 될 것이고, 난 그 모든 것이 불편했다.

“그쪽이, 아니, 관리인님이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잔여물을 남기는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 눈앞의 삶밖에 살 수 없는 거니까요. 눈앞에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챙기고 사나. 그래서 우리 센터가 있는 거고요.”

그 말에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도 찝찝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기도 하는데, 나는 누군가가

마음의 짐을 덜어줄 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무언가를 잔여물로 남길 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고 그만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그런 잔여물조차 놓치지 않기 위해 이런 방까지 만드는 분이었다는 뜻도 되는군요.”

“생전에 아버지가 참 철저하셨나 봅니다.”

“맞아요. 어찌나 빈틈이 없고 꼭 막히셨는지…….”

나는 일부러 더 고개를 크게 저었다. 나는 아버지의 철저한 준비성에 습관처럼 혀를 내두르곤 했었다. 때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미리 대비해 두신 완벽함이 귀찮고 답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건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가진 천성이리라 생각했지, 그걸 자식 사랑이라고는 생각해본 적 없었다. 아버지와 나는 끈기나 습기라고는 전혀 없는, 건조하기 짝이 없는 사이라고 믿었으므로. 하지만 아버지의 그런 철저함은 생전의 자식 사랑을 연구 대상으로 여겨질 정도로까지 특출나게 만들어 놓았다.

이제 그가 인자하게 웃으며 인수 확인서와 볼펜을 내밀었다.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어요. 서명하시죠.”

“그러죠.”

그와의 예기치 못한 만남 이후 다섯 시간 만에야 나는 주택의 소유권과는 별개로 이 방을 따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순히 서명했다.

6

인수 확인서 2부를 서로 주고받은 후, 그와 함께 대문 밖으로 나왔다.

초여름의 햇볕에 땅이 데워져 잔여물들이 아지랑이처럼 뚱뚱 떠올랐다. 내 머리 위로도 떠 오른 잔여물을 잠시 올려다보았다. 긴장이 풀려 하품하는 나를 그가 멈춰 세웠다. 그가 땀방울에 눈을 찡그리며 물었다.

“강남에 산다고 했죠?”

“네? 네.”

순전히 하품해서 눈이 붉어진 내가 그를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다. 이제 잔여물의 세계를 다 구경했으니 나를 원래 세계로 다시 데려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기서 돌아가면 됩니다. 갈 길이 멀겠군요.”

“여기서 가라고요?”

그가 또 내 생각을 알아채고 알아서 답했다.

“당신은 이제 잔여물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두 세계는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너무 불편하게 느끼지는 말아요. 언제든 잔여물 관리센터를 믿고, 맡겨 두거나 찾아가시기를.”

그가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내가 툭툭 밀리며 물었다.

“그럼 관리인님은 어디로 가나요?”

“또 일하러 가야죠. 오늘은 수확이 좋아요. 큰 건을 하나 해결했고, 홍보 실적까지 올렸으니.”

“제가 그 제물이 된 거군요.”

나는 웃지 않고 대답했고, 우리는 전철역 앞에서 말없이 헤어졌다.

전철역으로 내려가는 마음이 불편했다.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 역에서 전철을 탈 때면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걸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역을 몇 개쯤 지나다 보면, 몇 개의 인서울 대학교를 지나면, 그리고

계단을 몇 번은 오르내려야 할 2호선 환승역에 다다르면 몸과 마음이 바빠지고 어떤 의미로는 차라리 편해지기도 했다.

오늘 아침, 그 동네 단독 주택 부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부동산 중개사의 목소리는 부쩍 상기되어 있었다. 때마침 오래되어 새로 짓기에 딱 알맞다며 아침 햇바람부터 전화해 왔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왔을까.

전철이 출발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아 보았다. 아버지 집을 기억하기 위해 눈을 감은 건 처음이었다. 이제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아버지 집을 머릿속에 그려 보았다. 골목길 중간에 집이 있고, 네댓 개의 계단을 오르면 아버지가 칠한 대문이 있다.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컷가에 섰다. 그 안으로는 잘 가꾸어진 마당이 펼쳐졌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나무와 식물들을 손수 관리하셨다. 나뭇가지를 서걱거리는 가위 소리가 세트처럼 들렸다.

태릉 집이 ‘우리 집’이 아닌 ‘아버지 집’이 된 시점은 잘 떠오르지 않았다. 미간에 힘이 바짝 들어가고서야 그게 대학교 4학년 때였다는 걸 기억해냈다. 나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과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 기숙사로 독립했다. 그 무렵 아버지는 직장에서 정년퇴임을 했다. 자식보다 직원들에게 더 성대하게 축하받은 아버지는, 퇴임식이 끝나고 회사 앞 중국집에서 나와 단둘이 말없이 식사했다.

그다음에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더라.

생각해 보면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시끄럽게 댕강거리는 지하철 소리 때문에 자꾸만 생각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문 열리는 소리, 방송 소리, 사람들의 담소 소리가 생각을 길게 못 하게 똑똑 잘랐다. 꽤 복잡한 사고를 하는 성인이 되었다고 믿었던

나는 생각보다 단편적으로밖에 기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뜨거운 커피를 즐겨 드셨다는 건 하는데, 술을 끊고 커피로 바꾸신 시점은 또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곧 대학교 하나를 지났다. 생각은 다시 후루룩 날아갔다.

환승역이 가까워져 오자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나는 그들의 머리 위로 침병 떠 오르는 수많은 비눗방울을 보았다. 내 머리 바로 위에도 하나 떠 있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방울엔 꼭 이쯤 왔을 때 아버지에게 걸려왔던 통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환승 조심히 해라.”

“아버지도 몸 잘 챙기세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통화가 되살아나자 갑자기 수많은 비눗방울이 그 주위로 부풀어 올랐다. 센터에서 보관하던 잔여물을 나에게 속속들이 보내고 있음을 실감했다. 독립한 후 아버지 집을 다녀올 때마다 같은 지점에서 같은 통화를 했으므로 그 수가 많은 건 당연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나눴던 다른 대화들이었다. 아주 작고 미세한 것들, 이를테면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숨만 들이켜도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거라는 걸 아는 짧은 단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다 말면 굳이 더 묻지 않은 내 찰나의 선택들이 눈 밑을 튕기듯 날카롭게 살아났다. 감당 안 되는 잔여물에 내가 고개를 마구 흔들었다. 그 바람에 다행히 모두 저 멀리로 튕겨 나갔지만, 굳게 남은 한마디는 마치 이정표처럼 선명했다.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마라.”

나는 그 말에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이곳까지 끌고 온 무거운 마음을 이 역에 뽕뽕이 놓아 버렸다. 그 말이 주던 안도감은 이 순간 아득한

괴로움으로 찾아왔다. 전철 문이 열리자 수많은 비눗방울이 밀려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방울들 사이로 잘도 내리는데, 나만 입구를 막고 서서 움작달작 못 했다.

“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전화를 항상 그렇게 끊었다. 대학교를 지나 지금부터는 강남으로 가는 구간이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속도에 맞춰 계단을 내려가며, 지하를 경보하듯 걸으며, 단 한 번의 배차도 놓치지 않고 제일 빠르게 환승하겠다는 이상한 의지로 가득 찼던 내 시야를 수많은 비눗방울이 가득 채웠다. 나는 눈앞이 일렁거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방향 감각을 잃자 잔여물은 사방으로 불어나서 내가 탄 칸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결국 내리지 못했다. 전철 문이 닫히자 부풀어 오르는 발밑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위로 미끄덩 넘어지고 말았다. 깔린 방울들이 터지며 민낯을 드러냈다. 나는 내가 이곳에 두고 갔던, 끝을 모르고 계속 불어나기만 하는 비눗방울들을 막막하게 쳐다보기만 했다.





해가 뜨지 않는 곳에서 여고생 둘이 로렌스를 읽고 있다. 그게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쓴 재난소설의 장면이었다. 평소에는 지독히 건조한 글밖에 쓰지 않는데, 그 날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행성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정찰기들이 날아다니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썼다. 더 이상 해가 뜨지 않는 지구의 표면에서 인터넷으로 소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 도무지 고전 같은 것은 읽지 않을 것 같은 인상과 말투의 십대 소녀들이 다시 서사를 말한다. 나는 쓰면서도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누가 뭘 읽는다고? 베케트가 아니라 로렌스를 읽는다는 게 그나마 조금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랄까. 그러나 해가 뜨지 않는데 무슨 수로 책을 읽겠는가. 소설을 서랍에 처박아 두고 한참 지나서야 그 생각이 났고 스스로의 멍청함에 크게 웃었다. 자, 개연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레마르크는 이미 죽었고, 다시 전쟁이 난다고 해도 아무도 전쟁에 관한 허구를 쓰지 않을 것이다.

서른 즈음이었나, 어쩌다 보니 나는 그만 쓰기로 했다. 그만 쓰겠다는 다짐은 이제 남들처럼 멀쩡히 잘 살아보자는 말처럼 들렸다. 하지만 거기서 한 십 년쯤 지나고 보니 그만 직장도 그만뒀버린 나를 발견했고, 인생 그만하면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쯤 지인이 하는 출판사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도서출판 리트머스 대표 이준성과는 아주 오래 전부터 무수한 합평 모임 같은 데서 서로 신랄하게 비난해온 사이였다. 글에 대해 말하다 보면 글쓴이의 인격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이준성과 나는 그런 순간들을 넘어 나중에는 날 욕하는 건 참겠는데 내 글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고 고함을 치기에 이르렀고, 그건 더 이상 남이 내 글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합평 따위를 하기에는 너무 늘어버렸다는 깨달음을 주었으므로 우리는 전부 그만두었다.

출근한 지 삼 주 만에 이준성은 나를 채용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속내를 드러내보였다. 기본적인 교정, 교열 방법을 비롯해서 각종 업무 매뉴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연습용 원고를 편집해보는 일이 끝나자 그는 이제 각자 앞으로 맡을 업무를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성이 누구인가, 언제는 시를 쓴다더니 다음 달에는 대뜸 소설을 들고 오고, 그 다음 달에는 평론을 쓴답시고 기본적인 용어부터 틀린 한심한 글을 들고 오던 인간 이었다. 그런 인간이 출판사 대표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은 전반적으로 아주 우스꽝스러웠다. 나는 서로 다른 장르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그에게 늘 ‘문학적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므로 지금 내 장르다 싶은 것이 없으면 앞으로도 없는 것’이라고 막말을 하곤 했다. 이제 보니 이준성은 사업체의 대표가 될 모양새도 그다지 타고 나지 않은 것 같았다. 신입이 셋밖에 되지 않는데 다 외울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도 된다는 듯이 미리 적어온 종이에 얼굴을 박고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 품이 아주 어색했다.

“지호 씨는 해외문학팀, 선혜 씨는 한국문학팀,”

그리고 잠깐의 사이를 두었는데, 그 다음 말이 바로 이준성이 시선을 피한 이유인 것 같았다.

“... 단영 씨는 김주희 작가 표절 건을 맡으면 됩니다.”

해외문학팀, 한국문학팀, 그리고 김주희 표절팀이라니? 명색이 대표라는 작자의 짧은 선언이 도무지 균형이 맞지 않는 채로 툭 끝나자 사무실 안에 묘한 침묵이 감돌았다. 별 수 없이 되묻는 내 목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네?”

이준성은 뭐가 적혀 있는지 알 수 없는 종이를 조금 더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게 심증팔구 빈 종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원칙이나 계획 따위는 그렇게 뒤에서 계획하고 남몰래 확인한다고 해서 변함없이 관찰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준성은 아마 단단한 실체를 가진 기록을 통해서 과거의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해 어떤 확신을 얻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런 자신 없는 모습이 오히려 보는 사람까지 불안하게 했다. 이준성은 가까스로 종이에서 눈을 떼고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 매출의 절반이 김주희 소설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작년 이민조 작가 사태로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라서...”

이준성은 거기서 말을 툭 멈추고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느냐는 기색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상황이 말이 아니라서. 나는 그 말을 곱씹어보았다. 상황이 말이 아니라서. 그래서 인사팀 경력이 있는 너를 편집자로 뽑았다. 내가 뭐 문청 시절 지인이 오갈 데 없게 되니까 그냥 불쌍해서 자리 하나 만들어 준 줄 알았냐. 가겠다는 사람 붙잡고 남겠다는 사람 내보내고 그런 일 해본 적이 있냐고, 내가 면접 때 묻지 않았니? 이준성은 그런 말들을 괄호 속에 넣어 피켓처럼 들고 멀뚱멀뚱 서있었다.

우스운 일이지만, 내가 이준성을 인터뷰어로 앉혀놓고 면접을 봤다. 그런 끔찍한 자리에서 이준성이 사람을 붙잡느니 어찌느니 하는 질문을 한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어설픈 예고를 했다고 해서 이

황당한 업무배정이 이해되는 건 아니었다. 뻔히 아는 사이에 면접씩이나 하고 책 만드는 사람으로 뽑아서 시킨다는 일이 뭐, 표절? 도대체 저 인간은 대기업 인사팀이 뭐 하는 데라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당장이라도 먹살을 잡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어쨌든 저 작자는 대표고 월급은 나와야 하니까. 그리고 김주희가 리트머스의 생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인 것도 사실이었다. 지금 이준성은 김주희를 내치든 이민조를 족치든 해야 하는 입장인데, 당연히 어느 쪽도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소설가 김주희는 최근까지 거의 십여 년째 한국문학의 대표 자리를 지켜온 작가였다. 신간이 나왔다 하면 어김없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몇몇 작품들은 번역되어 해외에서 출판되기도 했다. 적어도 최근 사오 년 간은 도서출판 리트머스가 김주희 책을 가장 많이 출판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올려왔다는 것은 출판업계 사람이 아니라 해도 서점만 몇 번 가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이준성이 애초에 어떻게 김주희와 계약을 하게 됐는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지만, 리트머스가 신생 출판사치고 업계에서 과분한 지위를 누린 이유의 절반이 이준성 아버지의 자금력 때문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김주희 덕분이었다. 물론 그 둘이 서로 다른 절반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사정은 굳이 알고 싶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이준성이 과한 인세로 환심을 샀다는 쪽보다는 김주희의 작품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그것으로 김주희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았다.

아무튼 그것도 다 한때였다. 꼬박 일 년 전, 지난 겨울이 선뜻 봄으로 발을 딛지 못하고 녹색 모퉁이에서 고개만 빼고 망설이던 즈음이었다. 이민조 소설가가 그동안 지면에서 못 챙긴 존재감을 이상한 데서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김주희가 꾸준히 외국소설들의 문장을 표절해왔다면

오륙십 개에 달하는 외국 문헌들을 김주희 소설과 대조한 자료를 세상에 내놓았다. 어찌나 편집을 정성스레 해왔던지 나는 처음에 그 자료들을 보고 무슨 컨설팅펌에서 자문이라도 받은 줄 알았다. 평소에 이민조의 글을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던 터라 선입견이 있기도 했지만 그런 문제를 제쳐두고 보더라도 이민조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열정적이었다. 동료들 고발하는 그악스러운 문장들 속에서 작가로서의 윤리의식보다는 자기보다 인정받는 사람에 대한 열등감 같은 게 강하게 느껴졌다면 내가 너무 넘겨짚는 것일까.

그 다음은 모두 잘 아는 대로였다. 평소에는 문학에 관해서라면 나쁜 일요일의 심심풀이 정도로 취급하던 일간지들이 갑자기 한국문단이 이래서 망한 것이라며 인터뷰와 특집 기사를 쏟아냈다. 아무리 그래도 아직 연명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미 망했다고 단정하는 게 적절한 일인가 싶었지만 아무리 봐도 망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망했다는 투였다. 김주희 소설을 펴냈던 출판사들은 앞다투어 여기저기에 사과문을 뿌렸다. 리트머스는 출간 예정이던 장편의 계약을 해지했고, 해지했다는 사실을 필사적으로 광고했고, 김주희는 문단에서 사라졌다. 김주희로 흥한 리트머스는 이제 김주희로 망하기 일보직전이었다. 문청으로서 처참히 망했다가 출판사 대표로 가까스로 자존감을 되찾은 이준성의 운명도 리트머스와 함께 가라앉고 있었다.

“그 건이 뭐가 더 남았죠? 이제 언론 대응할 것도 없고 김주희 작가랑 계약도 일 터지자마자 바로 다 정리하시지 않았나요?”

내 목소리가 웬지 업무배정보다도 리트머스의 계약 해지에 불만이 있는 사람처럼 들렸다. 김주희가 문학상을 휩쓸든 모든 책을 절판시키든 엄밀히 말하면 딱히 나와 관련도 없는 일인데 괜히 감정이 실렸다. 실은

김주희나 리트머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학 졸업 후부터 십 년 가까이 일한 회사에서 사내정치에 밀려 결국 이준성의 출판사에 숟가락이나 얹게 된 스스로의 상황이 낫 뜨겁고 답답하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우습게 보이기 싫다는 유치한 방어기제가 작동해서인지, 면접을 하고 연봉협상을 할 때부터 이준성의 얼굴만 보면 내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날선 말투가 튀어나왔다. 출근을 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는데, 까마득하게 어린 입사 동기들 앞에서 이준성에게 대표님 소리를 하려니 갑자기 없던 저혈압이 생기는 것 같았고 차라리 당장 박차고 나가서 다른 일을 알아볼까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다.

“김 작가님 기사 열심히 보셨군요. 잘 아시는 걸 보니.”

“제가 김주희 팬입니다.”

아, 사뭇 전투적으로 대답하고 나서 깨달았다. 순전히 내 상황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표절 사태 같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팬이었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해야 마땅한가 싶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말이 먼저 나왔고, 그 반사적인 대답 속에서 나는 여전히 김주희의 팬을 자처하고 있었다.

처음 표절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던가. 작가의 직업정신과 출판계의 도덕성 운운하는 댓글들을 몇 개 읽다가 인터넷 창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책장에서 김주희의 책을 손에 잡히는 대로 몇 권 꺼내 이민조가 지정한 대목들을 찾아보았다. 이민조가 김주희 책보다 먼저 나온 외국 작품이라고 내놓은 소설들은 문학깨나 안다는 나로서도 도통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 태반이었다. 오만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나는 일단 그 작품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출판된 책이 맞긴 한가 하는 의문부터 들었다. 무슨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를 적당히

섞어놓은 것 같은 처음 듣는 낱미 이름들, 인쇄술이 발명되긴 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오래된 출판연도들, 게다가 그 숫자는 또 왜 그렇게 많은가? 이민조가 저 책들을 다 읽고 지엽적인 구절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가 우연히 김주희 책에서 똑같은 문장을 발견하고 그걸 알아차렸다고? 나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문제의 페이지를 펼쳐 문장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어떤 표현들은 너무나도 한국어에 고유한 것이어서, 이것을 다른 시대 다른 나라의 작가가 먼저 썼고 한국작가가 그걸 표절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아 보였다. 이민조가 포르투갈어와 독일어 기타 등등에 두루 능통하지 않은 이상 번역서를 보고 대조한 것일 텐데, 역자가 의역을 하면서 한국어에 특유한 관용적 표현을 찾다가 비슷한 표현을 쓰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김주희의 초기 소설 중에는 수능 지문이나 국어사전 예문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역자가 김주희의 표현을 참조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민조가 지적한 대목들은 죄다 풍경이나 기분을 묘사하는 추상적인 문장 한두 개가 유사하다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비유를 쓴다는 것 정도였는데, 그게 정말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지도 의문이었다. 간혹 분명 남이 쓴 것인데 내 감정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해놓은 소설들을 맞닥뜨리곤 하는데, 내가 등단을 포기하지 않고 그 감정에 대해 썼다면 나나 그 작가도 표절 논란에 휩싸였을까. 근본적으로, 소설을 표절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도 알 수 없었다. 플롯을 통째로 베낀다면 모를까, 문학은 결국 보편성을 건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인물이 하는 생각이나 말투나 상황 들은 자주 겹치게 마련이었다. 내 인생이나 이준성 인생이나 어떻게 자리 좀 잡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꼴이 큰 틀에서 별 차이가 없듯이.

아니, 그런 문제들은 다 접어두고라도, 이민조가 그렇게 강박적으로, 또는 한껏 신이 난 사람처럼 수십 개나 되는 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온 것과, 그것을 기자들 앞에 내놓고 본인이 고해성사라도 하는 듯 문단권력 운운하며 연극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던 것, 그런 방식에 거부감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펼쳐본 책 속에서도 김주희의 문장들은 여전히 말이 필요 없게 아름다웠다. 읽고 있으면 타인 그 이상의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나도 그런 문장을 쓰고 싶어 손끝이 저려왔다.

“팬이라니 잘 됐네요. 일단 지금 남은 일이, 아직도 서점들 재고 반납 처리가 좀 남았고. 사실 그런 문제보다도 일단 작가님을 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작가님이 우릴 꺾끄럽게 생각해서 그런지 나는 물론이고 전에 같이 일했던 편집자님들도 연락이 잘 안 돼서.”

연락이 잘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내가 김주희라도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리트머스 대표의 연락 따위를 꼬박꼬박 받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았다. 이준성은 삼고초려를 하는 데에는 어린 신입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좋겠다는 계산에서 나를 뽑은 게 틀림없었다. 겉으로는 내 사정을 봐주는 척 생색을 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저 손해 보는 짓은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 지금 내 입장에서는 뭐라도 사회에 쓸모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고용주가 이준성이어서인지 그런 긍정적인 사고 따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더러 집 앞에 가서 잠복이라도 해 보라, 그런 말씀이군요. 만나면, 조만간 다시 출간이라도 하시게요?”

이준성이 김주희를 찾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미 서로 철천지원수

비슷한 관계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감정을 빼고 짐짓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말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품위유지 의무 비슷한 해괴한 특약조항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계약상대방일 뿐이었는데, 어차피 그것도 철천지 원수의 다른 말일 뿐이었다.

“그게 참...”

이준성이 말꼬리를 흐릴 때 나는 그 자신도 김주희를 찾아서 어쩔 셈인지 잘 모른다는 걸 확신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나부터도 어느 쪽으로 분명하게 입장을 정할 수가 없었다. 출판사 이미지가 걱정되어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황급히 작가를 매장시키는 데 앞장서놓고 이제 와서 매출액이 아쉬운 거냐며 뼈뺌하게 봐야 할지, 아니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교묘하게 표절을 해온 소설가도 매출만 올려주면 어떻게든 재기시켜서 이번에는 마트 전단지든 남의 박사논문이든 뭔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것을 표절해서 베스트셀러를 만들 작정이냐며 뼈뺌하게 봐야 할지. 결국 뼈뺌하게 본다는 점은 매한가지인데 그걸 빼고는 방향성이 전혀 달라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에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우선 자초지종도 좀 들어보고,”

리트머스에서 모든 일을 김주희와 상의 없이 처리했을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막상 사과문을 뿌리고 다닌 장본인의 입에서 이제야 자초지종이라는 말이 나오니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다. 이준성이 한때 작가의 모든 작품을 다 읽지도 않고 함부로 써대던 작가론보다도 더 무책임하게 느껴졌다. 지금 내가 여기서 화를 내는 건 과하다는 결론까지 생각이 반쯤 도달한 찰나에 이미 나는 언성만 높이지 않았다 뿐이지 역겹다는 표정은 하나도 감추지 못한 채로 내뱉고 있었다.

“이봐요, 대표님. 이제 와서 자초지종을 듣겠다는 건, 사과문 낼 때도 작가님 의견은 듣지도 않고 그냥 막 냈다는 거네요?”

잠깐 침묵이 흘렀고, 눈이 마주쳤다. 눈매는 조금 힘이 없어졌는데 눈빛은 여전했다. 본인 글과는 다르게 허술한 데가 하나도 없는 눈빛이었다. 그게 아직도 눈에 들어오다니, 지긋지긋했다. 그리고 그런 기분을 느낀 건 이준성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그래서인지, 다음 순간 이준성도 분별력을 잃었다.

“야, 그냥 막이라니. 김주희 손절하는 게 나라고 쉬웠는 줄 알아?”

이준성이 갑자기 발끈하며 반말지거리를 하는 바람에 다른 직원들 앞에서는 모르는 사이인 척하자는 답답은 한 달도 못 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내 나이로 보아 대표 낙하산인 것을 대충 눈치 채고 있었는지 나머지 두 사람은 그다지 놀라는 기색도 아니었다. 아니면 이미 어디서 알바나 인턴을 하면서 수틀리면 직원에게 반말을 하고 야, 너 거리는 대표들을 술하게 보아 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분별력이란 무엇이던가. 한 명이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상태가 금방 전염되는 것이었다. 기왕 이렇게 되어버린 김에 나도 지지 않고 맞받았다.

“손절? 아주 그냥 대놓고 손절이라고 하시네. 사람이, 작가가, 무슨 주식도 아니고, 손절? 뭐 지금까지 판매량 떨어지는 작가들은 바로바로 손절하면서 운영하셨나 봐요, 이 출판사는? 그래서, 진짜로 표절을 했는지 아닌지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손절하셨다?”

합평에서 서로 심한 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고작 이 정도에 이준성의 얼굴이 전에 없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내가 뭐, 그냥 막, 그렇게...”

예전이라면 이걸 시작으로 누구 하나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까지 점점

더 유치한 말들을 주고받았을 것인데, 나이를 먹긴 먹었는지 아니면 대표로서 체면을 차리는 것인지 몇 마디 더듬거리던 이준성은 화를 내는 대신 갑자기 숨을 고르더니 낯빛을 싹 바꾸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을 좀 하고 살자.”

“뭐?”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하라고. 항상 그렇게 책 속에서만 살지 말고.”

진심으로 한심하다는 듯한 목소리였다. 기억을 아무리 되쳐도 이준성으로부터 배려가 없다는니 다혈질이라느니 하는 소리는 술하게 들어 봤지만 저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준성의 말투는 마치 아주 오래 전부터 그게 나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왔다는 듯 확신에 차있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급한 불은 꺾으니까 이제라도 작가님 말도 들어보고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 유지해서 다음에 좋은 작품 나오면 재기할 수 있게 도움도 드리고 그러면 서로 좋지 않겠어?”

“그게 되겠냐?”

여기서 지금 누가 이상주의자인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던가. 감정은 또 어떻고. 이해관계만으로 되는 일도 아니었다. 어려울 때 계약 해지 운운하며 철저하게 선 그어놓고 나중에 손 내민다고 선뜻 잡을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 왜, 있잖아, 저번에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그 작가도 몇 년 지나니까 새 책 냈고 꽤 괜찮았잖아.”

누구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단박에 알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내저었다.

“인터넷서점 댓글들을 못 보셨나본데, 그게 괜찮은 건지 난 모르겠다. 책 얘기는 하나도 없고 죄다 작가 욕에, 출판사 욕에.”

이준성은 한 손으로 자기 머리를 흐트러뜨렸는데, 그런 습관적인 동작도 옛날 모습 그대로였다. 순간 마음에 뭔가 빠르고 무거운 것이 확 내려앉는 느낌이 들어 나는 들고 있던 볼펜을 꼭 움켜쥐었다. 금방이라도 흡연구역으로 돌진할 것 같은 표정으로 이준성이 말했다.

“반응이 괜찮았다는 게 아니라, 글이 괜찮았다고, 글이.”

글은 정말로 괜찮았다. 하지만 어디 소설가라는 게 글만 괜찮아서 될 일인가. 아니, 소설가가 글만 괜찮으면 되지 뭘 더 갖추어야 하나. 나는 또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글이 괜찮았다는 말에 대한 동의로 고개를 끄덕였다.

“글은 괜찮았지.”

뭐 하나라도 의견의 일치를 보자 이준성과 나는 속에서 들끓던 무언가가 한풀 꺾인 것처럼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준성의 얼굴이 새삼 지독하게 피곤해보였다. 측은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저 치는 어떻게 된 게 풍족하게 타고났으면서도 평생 자기한테 없는 것만 좇느라 허우적대면서 사는지. 시를 가져오고 소설을 가져오고 평론을 가져올 때, 남이 보기에는 기본적인 방향성조차 정하지 못한 대책 없는 사람 같았지만 이준성은 늘 진심이었다. 마음은 진심인데 글은 형편없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웃겼고, 웃다가도 눈물이 났다. 그건 타고난 것도 없으면서 하고 싶은 것만 많은 내 꼴이나 마찬가지여서, 이준성도 나를 가만히 보다가 웃는 날이 많았다.

이준성이 출판사를 차렸을 때 나는 속으로 몹시 비웃었다. 글 써서는 아무리 해도 될 일이 아니다 싶으니까 저런 식으로 돌파구를 찾는다고, 그건 문학을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보다 더 비겁한 일이라고. 면전에 대고 온갖 말을 다 해봤어도 그 말만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속으로만 생각

했다. 그 말의 반대편에는 그래도 한때나마 재능 있다는 소리라도 들었고, 아버지 돈으로 남의 글 인쇄하는 식으로 질척거리느니 깔끔하게 포기하고 떠난 내가 낫다고 확인받고 싶은 심정이 있었는데, 몇 년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제야 내가 더 나을 게 뭐가 있는가 하는 당연한 생각이 들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그게 어딘가. 부주의하게 잃어버린 낡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기분으로 나는 계속 이준성에 대해 생각했고, 화를 냈고, 동경했고, 그러다 보니 한참이 지나도록 잊어버리지 않았다.

신입사원에 딱 맞는 불안하고 정중한 눈빛을 걸친 두 사람이 이준성과 나의 무분별을 흥미롭게 구경하고 있었다. 이준성은 비로소 그게 신경이 쓰였는지 나와 눈이 마주칠 걱정 없는 먼 허공을 바라보면서 미안, 미안합니다, 우리가 원래 아는 사이라서, 하고 황망하게 사과했다. 어린 두 사람이 아무 것도 이해할 용의가 없는 표정으로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원래 아는 이준성의 익숙한 동작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원래부터’라는 말은 얼마나 이상한가. 세상이 전부 바뀌는 사이에 원래부터 쓰던 글, 사람들이 전부 변한 와중에 원래 아는 사이.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마치 과거와 현재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원래부터 늘 그래왔다고 말하는 건 도무지 정확하지가 않았다. 이준성과 내가 서로 어디까지 아는가,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다.

김주희의 집은 멀었다. 도착하기도 전에 진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멀다는 말 말고 달리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작가의 집이라고 하면 어쩐지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딴 마을에 옥수수가 자라는 앞마당과 목줄을 하지 않고 뛰노는 개가 있는 단독주택을 떠올리게 되었지만,

김주희의 집은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판판이었다. 지하철 노선의 중심부에서 한참 빗겨나 있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역세권인 그 동네는 너무 시끄러웠고, 차도 사람도 미세먼지도 너무 많았다. 건물들의 외벽은 죄다 빛이 바래 있었고 전봇대마다 누군가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수북했다.

김주희가 사는 빌라의 입구는 대로변에 다소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와 있어서, 마치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 같았다. 그 다른 세계가 근사한 세계일지 초췌한 세계일지는 분명 또 다른 문제였지만, 나머지 세계와 경계 지어져 있는 것만은 확실했다. 현관으로 들어서기가 선뜻 내키지 않았다. 한 번 만나보기도 전에 이미 불편한 사이가 되어 있는 관계는 처음이었다. 밖에서 만나지 않고 집으로 찾아간다는 것부터가 너무 연극적인 행동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김주희와 약속을 잡으려고 했을 때 전화는 잘 연결되지 않았지만 문자를 남기자 만 하루가 지나고 답장이 왔다. 몇 줄의 단정한 문장 속에서 김주희는 당연히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난다는 듯이 태연했다. 나에 대해, 찾아오려는 용건에 대해 내가 설명한 것 이상을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그저 장소는 어디가 편하겠느냐고 했다. 초면인 주제에 무턱대고 집으로 찾아가도 되냐고 물은 건 아무래도 남들 시선이 있는 자리에서 표절 운운하는 이야기를 터놓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었다면 김주희가 그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이라도 해볼 수 있었겠지만, 글자 수가 제한된 전보처럼 용건만 명쾌하게 적혀있는 짧은 문자 속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알아볼 수 없었다.

빌라는 오층짜리 나지막한 건물이었다. 입구에는 제 발치에 건물이 지어지기 훨씬 전부터 살아서 인간들이 벌이는 모든 소동을 지켜보았을 것만 같은 거대한 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그 앞에서 안쪽을

기웃거리던 나는 뭔가 익숙하지 않은 기분이 들어 다시 멈칫했는데, 잠시 후 그게 엘리베이터가 없고 곧장 계단으로 이어지는 낯선 구조 탓임을 깨달았다. 김주희의 집은 사 층에 있었다. 두 층을 오르고 나니 벌써 힘에 부치기 시작했다. 김주희보다 내가 거의 스무 살은 더 젊었지만, 내 판에도 최근에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서른보다 마흔에 가까운 몸이란 이런 것인가 날마다 기가 막히던 차였다. 계다가 가방 속에는 늘 그렇듯이 왜 가지고 다니는지 모를 책이 너무 많이 들어 있었다. 그 무게가 나를 자꾸만 아래로 잡아끌었다.

결국 삼층에서 사층으로 향하는 층계참에 멈춰 서서 숨을 골랐다. 신발 끝에 내내 고여 있던 시선을 들자 직사각의 작은 창이 시야에 걸렸다. 나무 그림자가 여기까지 뻗어 있었다. 나는 창으로 들어오는 이른 오후의 빛을 마주보았다. 하늘의 색은 옅었고 허공에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아주 높은 곳에 올라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몸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아서 양상하게 보이는 나뭇가지를 하나씩 눈길로 더듬으며 일찍 움을 틔운 부분이 있나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창이 너무 좁은 탓일지도 몰랐다. 반쯤 죽어가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인간의 프레임에 잡히지 않은 저 너머에서는 사뭇 다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자랐겠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김주희를 직접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며칠에 걸쳐 김주희의 옛날 인터뷰들을 모조리 찾아 읽었다.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주로 신문사와 인터뷰한 것들이었고, 최근으로 올수록 출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나 인터넷서점 뉴스레터 같은 것이 많았다. 대부분 예전에 이미 읽은 것인데다가,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무슨 대단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김주희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이라도 감을 잡고 싶었다. 결과적으로는 김주희가 워낙에 모든 성공한 인물이 인터뷰에서 할 법한 얘기들만 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 무명시절의 고달픔과 거기에 대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기연민이 드러나는 뻔한 이야기들도 빠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들은 처음 읽었던 때나 지금이나 솔직히 실망스러웠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그럼에도 죽도록 애썼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는 식의 단순하고 깔끔한 서사를 정치인이 아닌 소설가가 펼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읽고 나서 약속날짜가 다가오기까지 며칠 동안 문득문득 김주희의 표현들이 떠올랐다. 세수를 하다가, 야채를 씻다가, 신발을 신고 문손잡이를 돌려 열다가 이명처럼 문장들이 언뜻 스쳤다. 그 문장들은 대부분 신파적이었다. 너무 일반화하기 쉬운 감정들이어서 거기에 감응하는 것은 금요일에는 잘 놀아보자, 새해에는 잘 살아보자는 수준의 값싼 공감밖에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런데도 한 번 떠오르면 자꾸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 비유, 시선, 나도 이미 겪어본 적 있는 선명한 감정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과몰입하게 되었다.

일요일 정오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나는 박물관을 현실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이미 저문 골목에 숨어 계속 썼다. 사람들이 어디론가 걷고, 서로를 만나고, 먹고 자고 소비하는 동안 나는 계속 썼다. 이미 죽어버린 장르의 페이지들이 무덤을 이루는 한가운데에 들어앉아 있으면 내가 곧 그 죽은 장르가 된 기분이 들었다. 시간은 계속해서 가느다란 활자들의 모양으로 녹아내렸다. 그렇게 김주희는 썼다. 그렇게 나도 썼다. 그런 사람끼리 마주보고 표절에 관하여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기까지 일 분 남짓한 사이에 나는 빈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것이라고 거의 확신했다.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중견 작가라면 으레 까탈스럽고 오만하게 굴면서 편집자를 바람맞히는 인간들 아닌가. 내가 새로 온 편집자라고 구구절절 소개하는 문자에 하루 만에 만나자고 답을 한 것부터 선입견에 도통 들어맞지 않아서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덜컥 열렸을 때도 도무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문장을 통해서 수없이 만난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눈앞에 서있는 모습은 기이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김단영 편집자님? 들어오세요.”

김주희의 말투는 뭐랄까, 노련하지만 별다른 열정은 남아있지 않은 오십대의 교수 같았다. 나는 작가의 현관에 꽂혀 있는 우산이며 조금 흐트러진 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신발들, 그리고 안쪽으로 깊숙이 이어지는 어둑한 공간, 그 끝에 서쪽을 향해 나있는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희뿌연 빛 같은 장면들이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책의 청구기호처럼 머릿속으로 시끄럽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외면하려고 애쓰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과 거실 사이의 작은 부엌으로 나를 안내하고 자리를 권하는 김주희의 동작에서는 특이하거나 괴짜 같은 면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유명작가들과 마찬가지로 김주희에 대해서도 편집자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느니 하는 말들이 나돌았지만, 실제로 마주한 김주희에게서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더 이상 놀랍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식의 나른하면서도 조용한 인상

이었는데, 내가 이전에 김주희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표절 사태 이후로 의기소침해져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김주희는 준비한 듯 정연한 동작으로 인사를 건넸고, 내가 어색하게 주억거리는 소개를 우아하게 들었고, 내 앞에 찻잔을 놓아주었다. 그러고는 본론부터 얘기해보라는 듯 말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할 말을 몇 번이나 생각해보고 왔지만 막상 김주희 면전에서 표절 운운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초조한 기색을 들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대표님이 작가님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대응한 것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계십니다. 대표님과는 만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들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김주희는 속내를 알 수 없는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미소를 지었다기 보다는, 미소를 지으려다가 실패한 표정에 가까웠다.

“이제 와서 이 대표님이랑 무슨 얘길 하겠어요. 서로 불편하기만 하지. 그리고 사실, 편집자님하고도 딱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신입이라고 하시니 제가 안 만난다고 버티면 괜히 편집자님 입장만 곤란해질 것 같아서 오시라곤 했는데, 글썽요. 계약 문제도 이미 다 정리됐고, 무슨 다른 용건이 있으실까요?”

시선이 마주쳤고, 순간 김주희의 눈이 내 눈동자 너머의 생각들을 넘겨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소름이 돋았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대답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용건은 없습니다.”

“편집자님.”

김주희에게는 익숙하겠지만 정작 당사자인 나에게는 아직 어색한 호칭이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부를 때마다 인생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거듭해서 확인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다.

“모든 사람이 표절 작가라고 하는 저한테 사과를 받는 게 아니라 하겠다고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그 말을 하는 김주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아까부터 느껴지던 묘하게 가라앉은 공기에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체념한 사람의 분위기. 이준성도 체념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 합평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글에 대해서 칭찬과 지적이 적당히 오가는 와중에 유독 이준성의 글에 대해서만 누구 하나 좋은 점을 말해주지 않을 때, 그게 딱히 이준성에게 악감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뭐라도 장점을 찾아주려고 억지로 애를 써도 도무지 찾기가 어려워질 때, 이준성은 허탈하다는 듯 웃었고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이준성과 지금의 김주희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내기 어려웠다. 자기 안의 한계를 대면한 사람과 바깥의 벽을 만난 사람 사이의 차이일까.

“... 제가 그 원문들 전부 찾아봤습니다. 국내에서 텍스트 구할 수가 없어서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작가들도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주희가 말을 잘랐다. 작가의 긴 손가락이 제 몫의 찻잔을 힘주어 움켜잡는 것을 보았다.

“모든 사람이요, 편집자님. 독자들이 아니라,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저를 표절한 소설가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표절은 문학이 아니라 도덕의 문제니까, 쉽고, 자극적이고, 훈수두기 좋고. 게다가 벌써 일 년이나 지난 일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그래도 객관적인 사실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목소리에 전에 없던 열의가 실려 있어 스스로 조금 놀랐다. 척추가 뿔뿔하게 당겨지며 속에서 어떤 온도를 가진 덩어리가 머리 쪽으로 치밀어 오르는 느낌. 이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는 한 번도 느낀 적 없는 것이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방법도, 조금 늦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꼭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고요.”

김주희는 따분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측은해하는 것 같기도 한 표정으로 가만히 듣고 있었다.

“작가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리트머스에서 다음 작가님 원고를 최대한 적절한 시점에 출판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하려던 말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였는데, 선심 쓰듯 도와주겠다는 표현은 불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서 급하게 말을 돌렸다.

“... 잘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할 말을 다 했느냐는 듯이 김주희가 몸을 조금 뒤로 기대며 찻잔에서 손을 땀다. 그리고 나지막이 물었다.

“그게 되겠어요?”

그 말이 어쩐지 익숙해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이준성에게 했던 말이었다. 리트머스는 김주희와 관계를 회복하고, 김주희는 리트머스에서 출판하는 다음 작품으로 재기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균열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천진한 희망, 그게 되겠냐고. 나는 평생을 비관적인 사람이었지만 정말로 내 힘으로 손쓸 수 없는 위기 앞에서는 갑자기 맥락 없는 긍정적 전망이 차오르는 때가 있었다. 그게 건강한 작용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상황을 합리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심리적인 방어기제를 돌리는 것에 불과했다.

김주희와 나의 문장이 똑같은 것을 깨닫고 나자 내가 김주희를 만나러 온 것이 단지 이준성의 출판사 매출을 올리자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김주희에게 그것을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나는 작가의 탁자 위로 시선을 떨구고 생각을 정리해보려 했다. 그러다 문득 탁자의 가장자리에 열 자루는 족히 넘는 똑같은 모양의 연필들이 질서 없이 뒹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 자리에 앉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을 정도로, 연필들은 마치 탁자의 무늬라도 되는 양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었다. 글을 발표할 기회를 흔히 ‘지면을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쓰는 일에는 지면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것을 김주희도 알고 나도 알았다. 내가 연필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의식한 김주희가 흩어진 연필들을 그러모아 다소 성마른 동작으로 벽 쪽으로 밀어냈다. 똑같은 모양의 연필들이 작가의 손바닥 밑에서 육각의 모서리를 탁자 표면에 부딪히며 본래 있던 곳보다 더욱 구석진 자리를 향해 굴러갔다.

“저도 그렇게 말하긴 했습니다.”

솔직해지기로 하니 차라리 홀가분했다. 나는 문득 바람이 부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직 겨울기운이 다 가시지 않았는데도 작가의 부엌에는 창이 한 뼘쯤 열려 있었다.

“사실 저는 출판사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편집자 중에서 그런 사람 많겠지만 글 쓰려다가 잘 안 풀려서 밥벌이 하려고 내내 다른 직장 다녔고요. 작가님 작품 언제 어떻게 출간할 수 있을지, 시장 반응이 어떨지 사실 잘 몰라요. 그저 저는 편집자보다 독자를 오래 했고, 독자로서 작가님 글 계속 읽고 싶어서 찾아 왔습니다. 리트머스가 아니어도 저로

서는 상관없어요. 출판사 측에서 여전히 계약할 의사가 있다는 거, 그것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짐작하겠지만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말주변이 없다기 보다도, 뭐랄까, 소리 자체를 잘 통제하지 못했다. 가장 미세한 감정동요도 목소리에 그대로 다 드러났고, 당황스럽게도 나 자신은 별 감정이 들지도 않는데 목소리만 멋대로 떨리기도 했다. 김주희에게 아무 말이나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마음은 편해졌지만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흔들렸다. 진의를 의심하기 딱 좋은 태도랄까. 나는 김주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김주희의 눈을 마주보았다. 작가의 눈은 여전히 잔잔했고, 상대를 끊임없이 읽어낼 뿐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고마운 일이네요, 하고 말하는 모습이 마치 남의 일에 대해 무신경하게, 하지만 예의를 갖춰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시 책을 낼 수 있든 없든.”

나는 김주희 책을 중고서점에 내다 팔다가 그 자리에서 김주희를 마주친 사람처럼, 뭐라 할 말이 없는 표정만 짓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도 너무 가식적으로 들리거나 감정과잉처럼 보일 것 같았다. 편집자들이 독자로서의 지위를 내세워가며 일을 하는 게 흔히 있는 일인지 어떤지 나는 알지 못했다. 다만 그게 그다지 전문가답지 못한 태도이고 작가의 입장에서 일하기 불편해질 뿐이라는 생각은 들었다. 나는 그저 머뭇거리고만 있었고, 김주희가 말을 이었다.

“그저 내가 만족할 만큼 쓰면 되는 거지, 읽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 몫이라고. 그런 생각은 원래부터 했어요. 그러다가

한동안은, 내가 꽤나 철이 들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때에는 그게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뭔가 작가의 태도로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거기서 또 지나고 나니까, 다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하나하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그렇다고 절필하신다거나…….”

“절필한다는 말이, 나는 좀 우습던데. 한 번 쓴 사람이 계속 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발표하지 않을 뿐이지.”

바깥에서 커다란 경적소리가 들려와서 나는 흠칫 놀랐다. 소음이 만든 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김주희가 아주 당연한 말처럼 그 말을 했다.

“궁금한 게 그거라면, 네, 발표하지 않을 거예요. 독자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김주희가 다음 말을 하기까지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그것이 내가 김주희와의 대화에서 꼽을 수 있는 유일하게 감정적인 대목이었다.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제는 내가 자신이 없어서.”

작가의 눈꺼풀이 평소보다 아주 조금 더 느린 속도로 두어 번 움직였다. 나는 계속되는 일들에 관한 몇 개의 문장을 떠올렸는데, 김주희가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문을 나서자 다시 큰 길의 한복판이었다. 작가의 문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그들은 구체적인 목적지에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분명한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그 사실이 전될 수 없었다. 다들 어디로 저렇게 확신에 차서 걷는단 말인가. 그 끝에 뭐가 있을 줄 알고? 나는 버려진 습작들을 생각했다. 십 년을 일한 회사에 대해 생각했다. 나보다

앞서 회사를 나간 선배들, 요즘도 신춘문예가 있냐고 웃던 대학동기들, 기억에 없는 만남들과 절대 잊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비틀린 인연과 성과 없는 노력에 대해 생각했다. 구부러진 시간에 대해, 더는 젊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김주희가 절필한 세계에 대해, 실체를 알 수 없는 표절 이전의 원문들에 대해 생각했다.

숨이 찰 때까지 빠르게 걸었다. 그러다 문득 뭔가 생각난 사람처럼 갑자기 멈춰 섰다. 어딘가에 전화를 걸면 다 해결되기라도 한다는 듯 다급하게 전화기를 꺼냈다. 뭘 해결해달라고?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귓가에 이준성의 목소리가 울렸다.

“어떻게 됐어?”

“이런,”

뭐라고 말해야 할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탄식 같은 욕설이 연이어나왔다. 누구를, 무엇을 향한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대표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든 문우에게 오래 읽어온 작가의 절필 소식을 알리는 것이든 뭐라 말을 해야 하는데 뇌가 정지한 기분만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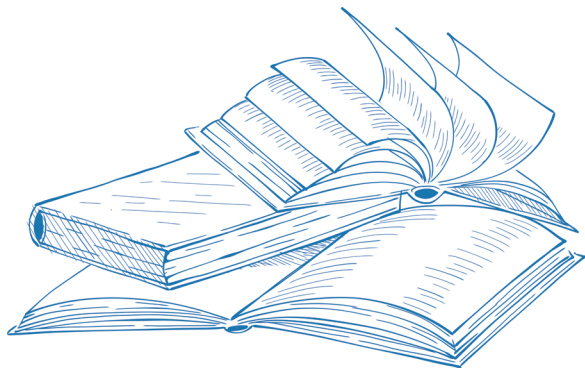
“뭐야, 얘기가 잘 안 됐어? 김주희가 화라도 내? 아, 오지 말래도 그냥 같이 갈 걸 그랬나.”

이준성의 목소리는 왜 조금도 변하지를 않고 그때와 똑같은가. 전부 변했는데 왜 그것만 똑같은가. 무엇 하나라도 변치 않았다는 사실이 기뻐야하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무작정 서러웠다. 너는 요즘도 쓰냐, 끝까지 쓸 거냐, 묻고 싶었다. 우리가 남들이 한 번도 안 쓴 것을 쓸 수는 없어도 남들이 한 번도 안 읽을 것을 쓰는 건 확실히 가능하겠다고, 형편없는 농담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 그는 내내 쓰던 사람 특유의

목소리로 웃겠지.

“야, 너 괜찮아?”

이준성이 물었다. 이미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영원처럼 반복한, 그러나 순간에 단단히 박혀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C선생님의 소식을 전해준 것은 뜻밖에도 A였다.

“그래도 우리 넷 중에 네가 선생님과 제일 가깝지 않았니?”

서울에 정착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건만 아직도 어딘가 어색한 서울 억양을 쓰며 A가 말했다. 지영은 A와도 오랜만의 통화였기에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A는 운전 중이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K시 인근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선생님을 봤다는 이야기만 전한 채.

통화가 끝난 뒤에도 지영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다가 연락처 검색 칸에 C선생님 이름을 입력해 보았다. 당연히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지영 스스로 연락처를 삭제하고 수신 차단 까지 했기 때문이다.

겨울 햇살이 발밑까지 길게 뻗은 식탁 의자에 앉아 지영은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때를 기억해 내려 애쓰고 있다.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지영의 기억은 정리되지 않은 서랍 속 잡동사니처럼 자주 뒤섞이고 때로는 맥락이 끊어진 채 섬처럼 떠다니곤 했다. 더욱이 선생님과 의 만남과 통화는 늘 비슷한 풍경으로 이루어져 선후 구별이 어려웠다. 언제였지? 언제였던가? 시험지를 마주한 학생처럼 지영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그날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에어컨을 떠올렸다.

아마도 삼 년 전, 어쩌면 사 년 전 여름이었을 것이다. 아이 방의 에어컨

청소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지영은 에어컨을 송풍으로 가동시켜 놓고 날개가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넣어 안쪽의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다. 그런데 거실 어딘가에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청소를 끝내고 받으려 해도 전화기는 집요하게 울어댄다. 몇 번이나 끊어졌다가 울기를 반복하는 벨소리가 거슬려 주의가 산만해진 순간, 악! 지영의 손가락이 날개에 끼여 버렸다. 피멍이 든 손톱에 밴드를 감고 지영은 부재중 번호를 확인하였다. 선생님이었다. 그날의 대화 내용은 잘 떠오르지 않지만 흥분한 선생님이 소리를 질렀던 기억은 생생하다. 유, 현, 정 개새끼! 강, 은, 수 개새끼!

도무지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선생님이 몇 번이나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기에 지영의 머릿속에 그 이름들은 개새끼로 남아 있다. 그리고 끝.

하지만 요양병원이라니. 의외였다.

“선생님이 다리가 불편하시긴 해도 요양병원 계실 정도는 아닐 텐데. 연세도 그렇고. 정말 C선생님이야? 사실 나도 선생님과 연락 끊어진 지 좀 됐거든.”

“그러니? 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어. 너는 몰라도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이잖아. 외모는 많이 변하셨더라. 살도 찌시구. 그런데 선생님 목소리가 좀 특이하잖니? 간호사랑 실랑이를 벌이시는데 목소리가 귀에 딱 찢히는 거야. 인사드리기도 민망해서 모른 척 했어.”

지영은 천천히 일어나 이삿짐을 싸기 위해 따로 묶어둔 앨범들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기차역 선로에 정차해 있는 무궁화 열차를 배경으로 익살맞은 포즈를 취한 여고생 넷이 환하게 웃고 있다. C선생님이 사진 속에 없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아마도 이 사진을

찍고 있었을 것이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사진 속 인물들을 응시하면 으레 과거 회상장면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지영도 삼십오 년 전 여고시절을 과거 완료의 시간 속에서 호출하였다. 지영이 기억하고 싶은 선생님의 모습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날 우리는 무언가 어색했다. 2학년으로 올라와 갓 임원 선거가 끝난 뒤였다. 실장인 P와 부실장인 A는 1분단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앉았고, 서기인 나와 총무를 맡은 E는 4분단 맨 끝줄에 나란히 앉았던 터라 우리 넷이 한 자리에 모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학급 임원 단합 모임으로 C선생님이 우리를 학교 앞 분식집으로 불러 모았던 것이다. 대범한 기질에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었던 P와 애교가 많으면서도 한편으론 소심한 성향의 A, 매사에 냉소적이지만 통찰력을 제법 갖춘 E와 고독을 즐기며 모범적인 방관자로 살아가던 나 사이에 교집합을 찾기는 힘들었다. 교실 자리 배치 때문에 P와 A, E와 내가 조금 더 가깝게 지내긴 했지만 그때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복잡한 고민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은 채 일상을 견디고 있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튼 선생님의 의도대로 단합이 잘 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 뒤로는 넷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우정을 쌓았으니까. 어쩌면 서로 닮은 구석이 없다는 것이 흡인력을 발휘했는지도 모르겠다.

C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리가 다닌 고등학교는 지역에서 가장 큰 사학재단의 유일한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입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했다. 아무리 학교 장사로 재산을 축적해 온 이사장이라지만 뒷돈을 받고 채용한 사립대 출신

교사들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을 것이다. 더구나 그때는 사교육이 금지된 시절이라 오롯이 학교수업만으로 입시를 대비해야 했다. C선생님은 국립 사범대 출신으로 독일어에 가까운 영어 발음을 구사하는 것이 흥미였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적어도 학교에 외국인이 방문하면 맨 먼저 사라진다는 1학년 때 영어 담당 ‘곱슬머리’와 자기 반 아이들의 이름은 몰라도 그 아버지가 뭐하는지는 훤히 꿰뚫고 있는 앞 반 영어 선생 ‘뺨질이’ 보다는 훨씬 나았다.

나는 C선생님이 교사답지 않아서 좋았다. 그녀는 예쁘기보다는 감각적이었고, 지적으로 보이지만 순진무구함을 지니고 있었다. 화려한 패션 경쟁을 벌이는 사립대 출신 여선생들이나 지리멸렬한 복장으로 국립대 출신임을 이마에 써 붙이고 다니는 몇몇 여교사와 달리 검소하면서도 개성 있는 그녀의 옷차림은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학급에 문제가 생기면 확고한 교육적 신념으로 아이들을 선도하려 들거나 권위적인 태도로 팔짱을 끼지 않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학급 임원인 우리 넷에게 자주 담임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했으며 연륜이 많은 노 교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종례 후 출석부를 갖다놓기 위해 교무실에 들어갔을 때, 월급봉투의 지폐를 일일이 세어보며 좋아하는 그녀의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도 내게는 속물적이기보다 인간적으로 다가왔다. 따지고 보면 C선생님은 우리와 겨우 열 살 차이일 뿐이다.

그녀를 생각하면 도미노 게임이 연상되곤 한다. 미리 준비된 불행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서고 있다가 하나의 촉발된 원인에 의해 연쇄적으로 넘어져 그녀의 삶을 무너뜨리고 마는. 이제 그녀는 평균적인 삶의 궤도 안으로 다시 진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그녀의 첫 번째 불행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5월 한 달, 인근의 사립대 영어교육과에서 온 남자 교생 세 명이 학급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휘젓고 간 뒤였다. 키 순서에 따라 우리가 도, 레, 미라고 별명을 붙였던 그들은 외모만큼이나 기질이 제각각이었다. 도는 귀염성있는 용모에 사교적인 성격을 지녀 아이들과 쉽게 어울렸으나 조금 친해졌다 싶으면 모든 대화가 기-승-전-교회로 끝나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쉽게 질리곤 했다. 넉넉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무테안경을 쓴 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끼함을 장착하고 어떻게 하면 여고생 하나를 꼬셔서 놀아볼까하는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피대상 1호였다. 마지막으로 미는 평균 신장을 훨씬 웃도는 키가 흰칠하다기보다는 멀대같이 보였고 유난히 피부가 까매 영어보다는 스와힐리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미는 실력에 비해 열정이 지나쳐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았으나 첫 문장부터 더듬거리더니 공개 수업 내내 버벅거리려 아이들 비웃음만 샀다. 그렇게 아이들 입방아에 오르고 은근히 무시당하던 그들이었지만 막상 실습이 종료되고 세 명 모두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나니 웬지 허전해지는 아이들이 생겨났다. 누구는 야간 자습 시간 내내 도가 학급문고에 꽂아두고 간 성경책을 정독하고, 누구는 영어 문제를 물어볼 때마다 당황하며 땀을 빼질빼질 흘리던 미가 그림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반에서는 꽤 돋보이는 외모를 보유하고 있던 Y가 폭탄선언을 했다.

“사실은 나, 요즘 레 만나고 있어. 실습 마치던 날 한 번만 만나자고 사정사정하지 뭐야.”

교복 자율화 세대라 대학생 언니의 조다쉬 청바지를 몰래 입고 오면 Y는 여고생으로 보이지 않았다. 능구렁이 레가 한 달 내내 Y를 흠쳐보며

침을 질질 흘리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역겨웠지만 인터넷도 휴대폰도 존재하지 않던 그 시절, 기나긴 야간 자습시간을 오로지 수다와 몽상으로 버텨야 했기에 Y와 레의 연애담은 몇 날 며칠 아이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이 녀석들! 조용히 안 해?”

뒷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습 감독 선생님께서부터 번번이 야단을 맞으면서도 나와 E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레와의 연애담에 감정이입하며 시간을 죽이던 그때, C선생님에게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날아왔다. 남편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거였다.

“오후 네 시입니다.”

휴대폰 알람의 익숙한 기계음이 지영을 깨운다. 콜라겐을 복용할 시간이다. 영양제 먹는 것조차 자주 잊어버리는 탓에 하루에 먹는 영양제 개수만큼 알람을 설정해 두었다. 아랫배에 뭉근한 통증을 느낀 지영은 탁상달력에서 지난 달 생리날짜를 확인한다. 아직 할 때는 아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 폐경을 맞았지만 지영은 이제껏 생리주기가 규칙적인 편이다. 폐경 전후로 겪게 되는 갱년기 증상, 예컨대 안면홍조라든가 불면증,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도 딱히 없다. 그런데도 지영은 자신이 갱년기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했다. 기억력이 너무 급속히 쇠퇴하고 감정 변화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부쩍 외로움과 노여움을 느낀다는 친구들과 달리 지영은 예민하고 감정이복이 심했던 성향이 오히려 지나치게 무덤덤하게 바뀌었다. 웬만한 일에는 화도 나지 않고 눈물도 나지 않았다. 호르몬 변화가 아니라면 이럴수 없을 것이다. 활달한 걸모습과 달리 지영의 마음속에는 수십 년간 사춘기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소녀가 무뚝뚝한 아저씨로 변해 버린 것이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잘 모르겠다고 지영은 생각한다. 소녀는 세상의 작은 일에도 가슴이 아팠고 상처받았고 우울하면서도 행복했다. 아저씨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고민도 없었다. 다만 내내 평화로울 뿐이었다. 그리고 지루했다. 지루함이란 열여덟의 지영에겐 존재하지 않는 감정이었다.

당시 군의관이었던 C선생님의 부군은 제대를 불과 석 달 앞두고 부대 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선생님은 몇 달간 투명인간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표정 없이 지나쳤고 그녀가 불완전하게나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을 때 우리는 고3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선생님은 P의 집근처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우리들은 아지트였던 P의 집에 모일 때마다 선생님 댁을 방문하여 선생님의 쓸쓸함을 달래주려 노력했다. 겨울방학이 시작될 무렵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바닷가 여행을 제안했을 때, 자갈치 시장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사진과 눈으로 담으며 평소보다 들떠 즐거워 하실 때 눈치챌어야 했다. 선생님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이듬해 3월이 되자 P와 A는 악명 높은 수학 선생님 반으로, 나와 E는 로맨티스트 국어 선생님 반으로 진급했고 C 선생님은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인생에서 가정이란 아무 소용없는 노릇이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본다. 만약 그때 남편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아니 선생님이 유학을 떠나지 않았다면……. 시간을 더 거슬러 공립학교 발령을 친구에게 양보하지 않고 신분이 불안정한 사립학교에 몸담지 않았다면 지금쯤 선생님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인생이란 맞닥뜨리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두 갈래 길 앞에서 어느 길로 가야할지 당시에는 가늠할 수 없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쪽 길을 선택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 회한에 잠기는 것이다.

고3이 되어 우리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P와 A는 성적 때문에 자주 담임에게 불려갔고, E는 느닷없이 영어 실력을 키워보겠다고며 일요일마다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드나들었다. 나는 야간 자습 시간에 미적분과 씨름하는 틈틈이 C선생님에게 국제 편지를 썼다. 그리고 다음 해, 우리 모두는 지역에 있는 국립대와 사립대로 반반씩 진학했다.

우리들의 대학 생활은 적당히 혼란스러웠고 적당히 순탄했다. P는 강의실보다 시위 현장에 나타나는 일이 더 잦았고,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결국 서울 소재 대학원에 진학했다.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A는 집안의 반대로 사귀던 남자와 헤어진 후 주말마다 정장을 빼입고 선을 보러 다녔는데 나오는 남자마다 키가 너무 작거나 성격이 이상해서 지쳐버렸다. 너무나 지친 나머지 A는 돌연 - 당시에는 드물었던 - 캐나다 어학연수를 떠남으로써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화려한 싱글을 꿈꾸던 E는 원했던 영문학과 대신 중문학과에 입학하게 되어 한동안 학교 앞 술집들을 전전하더니 열거에 들어간 서예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와 부어라 마셔라 한끝에 졸업과 동시에 결혼해 버렸다. 아마 속도위반을 했을 거야. 말은 안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짐작했다. A와 E의 뒤바뀐 삶을 보면 인생이란 항해보다 표류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격랑 속에서 배의 방향키를 움켜잡고 고군분투한 것 같지만 실상 우리를 육지로 데려간 건 운명이라는 바다의 힘이 아닐까. 사범대에 진학한 나는 문예창작과에 가지 못한 아쉬움을 문학동아리를 기웃거리면서 달렸고 평범한 외모에 어울리지 않게 연애와 실연을 반복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의 마침표를 찍을 무렵, 사 년 만에 선생님이 잠시 귀국하셨다.

선생님은 확연히 달라졌다. 렌즈 대신 안경을 쓰고 유행에 뒤쳐진 코트 안에 늘어진 티셔츠를 아무렇게나 받쳐 입었으며 머리카락은 제대로 손질하지 않아 부스스했다. 미국은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하다, 교수도 반바지 입고 강의한다, 인건비가 비싸서 파마하기가 힘들다, 류머티스 관절염 약을 복용해서 얼굴이 많이 부었다, 지도교수를 잘 만났지만 논문을 완성하려면 몇 년이 더 걸릴 것 같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던것 같다. 우리는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E와 나는 알고 있었다. 류머티즘의 원인이 스트레스임을. 예전보다 훨씬 수줍은 듯한 선생님의 모습이 사실은 위축된 모습이라는 걸. 저녁을 먹고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이제 겨우 삼십 대 중반의 선생님은 점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은 예쁘구나.”

그 후 어학연수에서 돌아온 A가 외국 항공사에 취업하여 서울로 가고, E 역시 남편을 따라 서울로 갔다. 나는 지역의 중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아 해직 교사였던 고등학교 선배의 권유로 교육 운동에 매진하게 되었다. 교육자료집을 만들고 각종 연수에 참가하면서 문학에 대한 꿈은 멀어졌지만 내안에 작가로서의 재능보다 교사로서의 재능이 더 반짝거리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교직 삼 년차에 접어들어 교육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열정이 사그라들 때면 그 틈을 비집고 창작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와 자주 헛헛함을 느꼈다. 자아가 강해서인지 연애는 쉬워도 결혼은 어려웠고 같은 학교 선생님 소개로 만난 남편을 두고 결혼과 독신주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길거리 스피커마다 경쟁적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타다 만 연탄재 같은 하늘빛에 유난히 어깨를 웅송그리던 날, 유선 전화 속의 낯선 목소리는 C선생님의 사고 소식을 담담히 전해 주었다. 몇 달 전, 곧 논문이 완성될 거라는 전화 이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였지만 그저 바빠서일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석 달 전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아직도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영 씨 편지가 기속사로 계속 오는데 아무래도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C선배 수첩을 보고 연락드려요. 회복하시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끝나도…….”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날 오후에 만난 남편을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리는 것 외에. C선생님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은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를 만들었고 그 구멍이에 주저앉아 바라본 남편은 그 전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초스피드로 남편과의 결혼이 진행되고 만기가 되어 학교를 옮길 무렵 선생님은 귀국하셨다. 지팡이를 의지한 채로. 서른여덟의 생일을 한 달 남겨둔 초봄이었다.

대학 때 쓴 다이어리를 보면 온갖 잡다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매년 반복되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나의 소중한 인간관계, 라는 타이틀 아래 순위를 매기는 따위. 어떤 사람은 한 해만에 랭킹에서 아예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꾸준히 상위권에 올라가 있다. 내게 있어 C선생님은 순위를 매길 필요가 없는 가족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대학 시절, 아니 그 전부터 나는 많이 외로웠다. 외로워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결손가정이나 폭력 가정도 아니었고 집안형편도 딱 그 시대의 평균치만큼 어려웠다, 부모님은 내가 성장하는 데 모자람 없는 사랑을 주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희생적인 분들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강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등록금이 싼 국립 사범대에 진학했지만 그 시절에 그런 일은 흔했다.

내가 외로운 이유는 그냥 그렇게 생겨났기 때문일 거다. 나와 꼭 닮아 가끔 쌍둥이로 오해 받는 한 살 아래 여동생이 평균 이상의 낙천적인 기질을 지닌 것처럼. 키 유전자를 대물림 받듯이 나는 외로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 뿐이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 라는 통속적인 시구처럼 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꼈고 외로운 만큼 나 자신을 과장했다. 유머가 많고 사교적인 사람. 나를 스쳐간 사람들이 기억하는 나의 모습은 대개 그런 식이었다. 야누스의 얼굴처럼 내 안에는 대내용과 대외용의 상반된 모습이 아슬아슬하게 세력을 다투고 있었고 때때로 지독한 외로움과 불안과 허무한 감정들이 악덕 사채업자처럼 내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그 시절, C선생님과의 서신 왕래로 인해 나는 위로받았다고 생각한다. 일상을 공유하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외려 친밀감과 따뜻함을 느낀다. 어쩌면 선생님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지 모르겠다. 남편을 잃고, 직장을 잃고, 먼 이국땅에서 경제적 압박과 인종차별을 견디며 학위 논문을 쓰는 선생님에게 모국어로 된 편지는 춥고 으스스한 겨울밤, 간이역 대합실의 연탄난로와 같은 온기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가족이 아니면서 가족과 같은, 아니 가족을 뛰어넘는 유대감을 느낀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그때 난 몰랐다.

선생님이 귀국한 후로 나는 주기적으로 선생님을 방문했다, 선생님과 터울이 많이 나는 언니들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특유의 냄새가 열게 배어 있었다. 대학 시절 장애인 시설에

봉사활동을 갔을 때 자폐아들이 수용되어 있는 방문을 열면 혹 끼쳐오던 텅텅하고 비릿한 냄새. 나는 그 냄새를 참는 것이 오물이 묻은 옷가지 빨래나 청소보다 더 힘들었다. 거실에 두꺼운 커튼을 치고 온종일 침잠하는 공기 속에서 선생님은 정물처럼 앉아 있다가 나를 맞이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왜 선생님이 언니들과 함께 살지 않는지 의아했다. 바로 위의 언니는 남편과 사별하여 혼자 살고 있었고 상당한 재력도 있었다. 언니들이 선생님께 반찬을 가져다주며 나와 마주칠 때 고마워하면서도 어딘가 허둥대던 이유를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깨달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생님의 정신은 불편한 다리와 함께 100% 회복되지 않았던 것이다.

선생님과의 만남은 항상 이런 패턴을 반복한다. 선생님 댁 벨을 누른다. 지팡이를 짚으며 선생님이 천천히 문을 열어준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케이크나 과일을 내밀면 함박 웃으시며 내 팔을 이끄신다. 식탁에 미리 준비해둔 다과를 먹으며 정겨운 이야기를 나눈다. 대개는 나와 P, A와 E의 근황이거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다. P는 박사 과정을 밟으며 시간 강사 하느라 좀 힘든 것 같아요, A는 회사 간부와 결혼했는데 얼마 전에 50평대로 이사했대요. E는 시누이와 같이 산 원룸 가격이 크게 올라 앞으로 계속 부동산쪽으로 투자하려나 봐요. 저요? 저야 뭐 늘 똑같죠. 선생님도 학교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때 선생님 저희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내가 그랬니? 호호호.

그렇게 준비된 정겨운 이야기가 끝나면 선생님은 설 새 없이 나에게 질문을 쏟아 붓는다. TV 뉴스가 전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각종 사건들과 그에 대한 나의 의견, 새로운 시사용어들의 의미……. 선생님이 떠나있던 팔 년간, 아니 귀국한 뒤에도 대한민국은 롤러코스터처럼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나는 초등학생보다 부족한 선생님의 현실 감각에 맞춰 하나하나 설명하느라 목이 아플 지경이었다. 언제 일어날 것인가, 타이밍을 잡느라 나는 계속 초조했고 그럴수록 선생님은 점점 더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 미국에 있을 때 기숙사에 박지만 씨가 왔거든. 박정희 대통령 아들 말이야. 그렇게 시작하는 이야기는 TV 프로 그림 ‘서프라이즈’ 처럼 선생님 머릿속에서 현실과 미스터리로 넘나들며 급기야는 선생님 논문을 가로채기 위해 지도교수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확신으로 끝나곤 했다. 어색한 핑계를 대며 자리에서 일어나면 선생님은 다시 수줍은 모습으로 돌아와 나를 배웅하신다.

그렇게 선생님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녹초가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무력감에서 오는 피로였다. 선생님의 상태는 호전과 악화를 되풀이하면서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려갔다. 맑은 눈빛으로 논문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들떴다가도 다리 수술 경과가 나빠지면서 우울증 증세는 더 심해졌다. 그리고 나는 지쳐갔다. 이따금 서울 방문길에 P와 A, E를 만나 선생님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면 모두들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나는 선생님과도, 아이들과도 겉돌게 되었다.

“너는 젊구나.”

나를 통해 자신의 젊은 날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쓸쓸한 눈빛에 나는 왠지 채무자가 된 기분이었다. 답답한 선생님의 일상에 작은 창문이 되고 싶었던 나의 선의는 의도와는 달리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방문 주기가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달에 한 번으로, 두 달마다 한 번이 계절마다 한 번씩으로 길어졌고 어느 해에는 명절에 선물을 보내드리고

가끔 안부 전화 드리는 것으로 나는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다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 나 모든 연락처가 날아가 버렸을 때 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마음만 먹으면 선생님 댁을 방문해서 전화번호를 다시 저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알파한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선생님을 잊을 준비를 했다. 항상 내 쪽에서 먼저 연락을 드려서인지 몇 년 동안 선생님한테서도 연락이 없었고 그 동안 나는 사춘기에 접어들어 파충류처럼 사방으로 독을 뿜어대는 아이를 감당하느라 완벽하게 선생님의 존재를 잊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을 삭제하듯이 말이다. 화를 못 이긴 아이가 가방을 발로 차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간뒤 너털너털한 기분으로 멍하니 앉아 있을 때였다.

“지영이니?”

전화기 속의 낯선 번호에서 선생님의 수줍은 음성을 들었다. 오래 전에 결별한 연인이 설렘도 없이 재결합하듯 그렇게 선생님과 의 만남은 다시 이어졌다. 연락이 끊어진 사이 선생님은 영어 학원을 내려다 사기를 당했고 박사 논문을 찾기 위해 미국에 갔지만 관광 비자가 만료되는 두 달 만에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살면서 불행한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어떤 불행은 자신의 의지나 잘못과 상관없이 굴레처럼 씌워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불행과 불행 사이의 조각난 삶을 이어 붙여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머리맡에 양말을 걸어두고 눈을 뜨면 ‘짹!’ 하고 바라던 선물이 도착하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다. 태풍이 지나간 후, 빼적거리는 문짝에 기름칠을 하고 깨진 유리

창을 갈아 끼우며 집을 보수하듯이 우리 인생도 그때그때 닥쳐온 고난과 불행을 쓸어내기 위해 빗자루를 들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선생님에게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삐삐삐삐삐 드르르

“불도 안 켜고 뭐해?”

생각보다 일찍 귀가한 남편이 거실 조명 스위치를 누르며 지영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두 팔로 무릎을 감싸 안고 소파에 우두커니 기대어 있던 지영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겨울의 해는 짧아서 어느새 주위가 어둑어둑해졌다.

“저녁 먹고 온다더니?”

“일이 빨리 끝났어. 당신 저녁은?”

“만두 먹으려고. 같이 먹을래?”

이사 가기 전에 냉동실에 있는 식재료들을 다 처치하려고 지영은 며칠째 만두와 식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에어프라이어에서 잘 구워진 만두를 식탁에 놓고 남편과 마주앉은 지영은 우편물을 뜯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마 부근 머리숱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중년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이사 가기 전에 우편물 받을 주소도 미리 옮겨 놔야겠지? 카드 회사랑 정기구독 잡지, 또 뭐가 있나? 은근히 할 일이 많네.”

남편에게 선생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지영의 입안에서 만두 껍질이 종이처럼 씹힌다. 남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정의롭고 이타적인 편이다. 그래서 불편한 자리인 줄 알면서도 선생님과 저녁 식사 자리에 두어번 동행하여 선생님 기분을 맞춰드리기도 했다. 선생님은 남편

직장이 지역방송국인 걸 알고 아이처럼 좋아하며 수줍게 웃으셨다. 남편의 입장에선 지영과의 결혼에 촉매제 역할을 한 선생님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 기구한 삶이 안타깝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과 그 사람의 인생에 깊숙이 발을 담그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오늘 A한테 전화가 왔는데 K시 요양병원에서 C선생님을 봤대.”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던 남편이 고개를 들고 지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영이 선생님을 방문하는 일이 뜸해질수록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자주 걸려왔다. 어느 날은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을 바꾸라고도 했다. 마침 옆에 남편이 있어 무슨 일이냐고 조심스레 여쭙었더니 누군가 선생님의 컴퓨터에 도청장치를 해 놓고 모든 정보를 빼간다는 것이었다. 선생님의 컴퓨터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으니 당장 남편과 같이 와서 도청장치를 끊어달라고 했다. 그 후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집 앞 교회에 갔는데 교인 중 한 명이 선생님의 지팡이를 훔쳐갔다고 남편에게 취재하러 오라고 했다. 선생님, 남편은 피디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에요. 그저 엔지니어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은 취재거리가 될 수 없어요. 정 억울하시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세요. 장애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지팡이를 훔쳐간 일이 취재거리가 아니면 뭐가 취재거리라니? 교회 사람들 모두가 한 패거리로 나를 속이는데!

“이 녀석 많이 컸네.”

남편이 시선을 돌려 우편물 속에서 해외 후원 아동이 보낸 사진을 꺼냈다. 재작년, 십 년간 후원했던 인도 아이가 성년이 되자 후원 단체에서는 새로 베트남 아이를 선정해 주었다. 매달 삼만 원의 금액이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고, 아이의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별도의 선물을 보내준다. 일 년에 세 번 정도 아동의 편지와 사진을 받고 한 번 정도는 답장을 해 준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베트남에 가서 만나볼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때는 제법 묵직한 선물을 건네리라. 선생님께도 이 정도였다면 어땠을까? 가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아무런 부담 없이 관계를 이어 갔다면.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가족같은 사람에겐 타인에게 베푸는 호의로는 부족하다. 더욱이 인간관계가 거의 단절된 선생님은 지영이 내미는 손에 자신의 존재를 오롯이 실으려고 했다. 지영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이어가려는 것이다.

바깥나들이가 거의 없는 선생님을 위해 지영이 소일거리로 몇 권의 책을 가져다 드린 적이 있었다. 상처받은 삶을 위로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책들은 어쩌면 지영이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것이다. 다음 만남에서 선생님은 지영에게 답례로 한 권의 책을 주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선생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잡한 스릴러물인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에게 미스터리와 수수께끼가 난무하는 그 이야기가 공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문제는 며칠 간격으로 전화를 해서 그 책의 내용과 지영의 감상을 물어오는 것이었다. 그 책이 얼마나 위대하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호의가 호의로 받아지려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비록 그것이 지영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선생님 나름대로의 방식이었다 해도 직장과 가사를 병행하는 지영에게 선생님은 밀린 숙제처럼 지영을 지치게 했다.

“이번 달 카드 대금이 많이 나왔네.”

남편이 카드 명세서를 훑어보더니 찢어서 휴지통에 버린다. 이제야 포렛이 되살아나는 선생님과 마지막 통화. 처음에는 예의 그 수줍은 목소리로 아이와 남편의 안부를 물었다. 남편은 여전히 방송곡에 다니니? 그러면 내가 부탁할 게 있다. 선생님이 증언부언하는 데다 앞뒤 논리가 맞지 않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은행에서 직원 둘이 짜고 선생님 통장의 돈을 빼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니 빨리 남편이 와서 취재를 해야 한다고. 지영은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다. 선생님,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만 하세요! 제발 그 피해망상에서 벗어나시라고요! 뭐가 말이 안 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통장에 있는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단 말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결코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공허한 언어만이 메아리쳤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쥐어짜 내지르는 선생님의 절규. 유, 현, 정 개새끼! 강, 은, 수 개새끼! 그들이 은행 직원들인지 아니면 선생님의 논문을 가로채기 위해 지도교수와 협력한 유학생들인지 지영은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지영은 이제 마지막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영은 조용히 전화를 끊고 선생님 연락 처를 삭제한 뒤 통화목록에서 선생님 번호를 찾아 수신차단 처리했다. 그 후 며칠 간 통화 기록을 확인할 때 선생님 것으로 추정되는 번호가 거절 표시와 함께 몇 번 목록에 표시되었지만 지영은 애써 외면했다. 아이의 대학 입시 뒷바라지와 친정어머니 간병만으로도 충분히 벅찼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영에게 건망증이 찾아왔다.

설거지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 소파에 앉으니 남편은 습관대로 영화 전문케이블 방송을 틀어놓고 있다.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지영은 보통 과일만 함께 먹고 바로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TV 화면에서 눈을 떼 수가 없다.

몇 년 전 개봉한, 한국영화로는 드물게 여배우 둘이 투탑을 맡아서 화제가 되었던 영화였다. 영화 관련 TV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소개할 때는 뻔한 스릴러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 탄탄한 사건 전개와 의외의 반전이 지영을 붙들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후 육아와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워킹맘 지선은 조선족 한매를 보모로 맞이하게 된다. 딸에게 헌신적인 한매의 모습을 보고 지선은 그녀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의지했는데 어느 날 한매와 지선의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추적 과정에서 한매의 가슴 아픈 과거사가 드러나고 희귀병을 앓던 한매의 딸 재인이 병원에서 쫓겨나 죽은 이유가 응급 환자로 왔던 지선의 딸이 병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한매는 그들에게 복수하러 다가갔지만 지선의 딸을 돌보며 자신의 딸로 여기게 되고 둘만의 삶을 찾아 중국행 배에 승선한다.

두 여배우의 연기가 상대에게 조금도 밀림 없이 불꽃이 튀었지만 지영은 보모 역을 맡은 배우에게 자꾸만 마음이 갔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공허하고 먹먹한 눈빛을 날것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뒤쫓아 온 지선과 갑판에서 대치하던 한매는 아이와 함께 바다로 뛰어들려고 했으나 지선이 건네준 조각보를 보고 딸이 죽었음을 인지하게 된다. 그 조각보는 한매가 딸의 이름을 새겨 만든 것이었다. 현실을 자각한 한매의 선택은 지선의 딸을 넘겨주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지영의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움이 솟구쳐 오르고 굵은 눈물이 견잡을 수 없이 흘러나와 지영의 어깨가 들쭉인다.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지영은 알 수 없었다.

그때 살고 싶더라. 분명히 죽으려고 했는데 말이야. 친구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을 열어준 건 나였어. 죽을힘을 다해서 현관문까지 기어갔지. 죽고 싶어서 약을 먹었는데 왜 살고 싶었을까……. 언젠가 선생님은 담담하게 얘기했지만 지영은 그 무겁고 어두운 슬픔의 빛깔이 자신에게 이염되고 있음을 느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수술대에 올라 뱃속의 아이를 지워야 했던 선택이 오랫동안 선생님을 힘들게 했을 것이다. 어쩌서 한 사람에게 삶의 불행이 집중되어야 했을까? 왜 선생님은 그 불행 앞에서 조금 더 강해질 수 없었을까? 왜 나는……, 나는 선생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렸을까? 모르겠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영은 주체할 수 없는 울음에 입술을 깨물었다.

근래에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남편이 살짝 당황한 듯 지영의 어깨를 감싸 안는다.

“공효진이 연기를 진짜 잘 하네.”

지영은 코맹맹이 소리로 그렇게 얼버무렸지만 진심으로 자신이 우는 이유가 여배우의 연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다. 선생님의 상처를 위로하고 다독이기엔 너무나 깊은 동굴 속에 그녀가 유폐되어 있으니까. 그 옛날 스물여덟과 열여덟의 청춘들이 흩뿌리던 싱그러운 웃음소리들이 지영의 귓속을 맴돈다. 오월의 햇살 아래 교정의 라일락 꽃잎들이 눈처럼 흩어지고 벤치에 앉은 그녀들이 도란도란 정담을 나누는 장면이 오래된 영화 필름처럼 펼쳐지는 것 같다.

뒤따라 물속에 뛰어들 지선의 손을 뿌리치고 조각보와 함께 차가운 바다속으로 천천히 멀어지는 한때. 그 투명하게 말간 얼굴을 보며 지영은 자신을 묶고 있던 오랜 인연의 끈이 완전히 떨어져 나감을 느꼈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했다면서요?”

부임 첫날, 나의 환영 인사를 받자마자 쏘아붙이듯 그녀가 물었다. 방금 닦아놓은 양 얼룩 한 점 없는 투명한 안경알 뒤로 날 선 눈빛을 번뜩이며.

“아... 아이가 아직 어린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미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해 말을 더듬거렸다.

그러나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눈을 휘둥그레 치뜨며 되물었다. “초등학교 다닌다면서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 바닥이 좁은 건 알지만 언제 내 호구조사까지 다 끝냈단 말인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사담 속에 잠시라도 오르내렸다는 사실이 짐짓 불편해지며, 아침에 먹은 것이 내려가다 말고 목구멍으로 다시 치받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마른침을 꿀꺽 삼키고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이제 2학년에 올라가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탄엔 웃는다고 웃었는데, 입가가 부자연스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쟈장.

잠시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만 놓아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달리 그녀의 매서운 눈초리는

여전히 내게 꽃혀있었다. 맹수가 눈앞의 먹이를 가늠하기라도 하는 것 같은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고 있는데, 그때 마침 사무실로 들어서던 총무계의 박 계장이 그녀를 보고 알은체를 했다.

“어이, 차 계장. 여기서 또 만나네.”

그 소리에 순간 눈가가 풀어진 그녀가 얼른 몸을 돌려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아, 오랜만이네요. 박 계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때다 싶어진 나는 고개를 한차례 주억인 후 재빨리 자리로 돌아왔다. 휴-, 의자에 앉자마자 참았던 숨이 토하듯 터져 나왔다. 등으로 식은땀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뒤늦게 불쾌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뭐야,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혼자 씩씩대며 고개를 드는데 창밖으로 스산한 풍경이 보였다. 차가운 사각의 프레임 속, 텅그러니 홀로 선 나무 한 그루가 겨울바람에 바싹 말라버린 가지를 가늘게 떨고 있었다.

차 계장은 연초 정기인사 때 우리 계로 발령이 났다. 한동안 민원계의 공석이었던 자리가 드디어 메꿔지는 터라 그것은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제 좀 사정이 나아지겠군, 생각하며 공문들 위로 사내 조직도를 열었다. 어떤 사람일까. 검색창에 이름을 넣고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이 바뀌며 개인정보와 함께 사진이 떴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것은 증명사진이 아닌 사무실을 배경으로 한 셀카였다. 사진 속 그녀는 새초롬한 미소를 띠며 시선을 45도쯤 위로 향한 채였다.

증명사진을 대신한 그 셀카가 어쩐지 신선해 나는 그 위로 마우스를 올려 클릭했다. 순간 사진이 확대되며 저만치에 있던 그녀가 훌쩍 눈앞으로 다가왔다. 마른 체격에 둥근 얼굴, 동그란 안경 아래 힘주어 부릅뜬 작은 눈. 그 나이대 여느 직장인의 표정과는 달리 생기있어 보이는 인상이 썩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왕이면 좀 편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하며 책상 아래로 발목을 까딱이다 문득 묘한 김새를 느꼈다. 민원실을 낀 탓에 평소에도 늘 어수선하긴 하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술렁임이었다.

나는 목을 빼고 사무실을 휘휘 둘러보았다. 과연 여기저기서 두서너 명씩 머리를 맞댄 채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도 하듯 속삭이는 게 보였다.

무슨 일일까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데 마침 뒤쪽에서 “아, 차 계장이 여기에…?”하는 민원계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썩 달갑지 않은 투였다. 뭔가 예사롭지 않다. 나는 곧장 사내 대화장을 띄워 과 소식통인 은주에게 톱을 보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실 내 작은 소요의 이유는 차 계장에 대한 것이었다. 자기주장이 강한 데다 본인 생각에 맞지 않으면 참지 않고 말하는 탓에 다들 꺼리는 분위기라고.

이맛살이 절로 찌푸려졌다.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끝으로 멈춘 대화장 속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점멸하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왜 하필 그런 사람이 우리 계로. 모르긴 몰라도 계 직원 대부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터였다.

나는 웬지 모를 불안감에 다리를 달달 떨며 손톱으로 마우스를 갑작거렸다. 그러다 무심결에 클릭이 되었는지 딸깍 소리와 함께 조금 전 띄워두었던 사진이 맨 앞으로 튀어 오르며 나는 그만 사진 속의 살짝

치픈 눈과 맞닥뜨렸다. 그 눈은 이렇게 묻는 것 같았다. 너는 나를 얼마나 아느냐고. 순간 가슴이 뜨끔해진 나는 얼른 창을 닫아버렸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인사차 사무실로 들어선 차 계장의 첫인상은 듣던 것보다 평범했다. 생각보다 좀 더 작은 키에, 뺨이 반쯤 풀린 머리를 뒤로 한데 묶어 올린 전형적인 오십 대 직장인의 모습. 다만 가는 은테 안경 아래로 연신 주위를 살피고 있는 까만 눈만은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그녀는 눈에 띄게 굳은 얼굴로 과장실로 향하는가 싶더니 십여 분 뒤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여전히 얼굴을 찌지 못한 채였다. 잠시 후 몇몇 아는 얼굴과 가볍게 인사를 나눈 그녀가 자신이 앉게 될 책상 옆으로 쭈뼛쭈뼛 섰다. 막 발령받은 사무실이 아직 낯설 터였다.

나는 조심스레 그쪽으로 다가가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내 이름을 들은 그녀가 인사 대신 건넨 말이 바로, ‘시간선택제를 왜 하나’는 것이었다.

나는 정규직이지만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오전만 근무하고 있다. 과 내에서 유일한, 그리고 첫 시간선택제 전환자.

내가 일하는 곳은 공공기관이라 다른 사기업보다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로운 편이다. 덕분에 대부분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와 초등학교 입학할때 적절히 나눠서 휴직을 사용하곤 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병치레가 잦았던 데다 시댁이나 친정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던 나는 진즉에 휴직을 다 써버렸다. 그러고 나니 막상 아이가 입학할 때가 되자 난감해졌는데 그때 시간선택제에 대해 듣게 되었다. 보통 줄여서 ‘시선제’라고 칭했는데, 1년씩 전환 신청을 해서 원하는 시간만큼 근무가 가능한 유연 근무제의 일종이었다.

듣는 순간 나는 이거다 싶었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안 그래도 빠듯한 월급이 형편없이 줄겠지만 상관없었다. 아이를 내 손으로 먹이고 돌보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그날 저녁, 남편과 의논을 하고 다음날 바로 민원계장에게 전환신청을 알렸다. 나의 선택에 대한 사무실의 반응은 대동소이했는데, 한마디로 하자면 ‘굳이 왜?’ 였다. 하지만 보통은 살짝 돌려 말하며 말렸다. 아이야 학원 몇 군데 보내면 되지 않느냐? 승진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사실 저 위에서야 갓 도입된 시선제 전환 제도의 사용을 독려할지언정, 정작 현장에선 반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근무 형태가 달가울 리 없었다. 하지만 전환신청 자체가 유난스러워 보일지언정 그 자리에 인력이 보충되는 터라 더는 반대하지 않았다.

적어도, 앞에서는 그랬다.

그런데 차 계장은 일면식도 없던 첫 만남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따져 물은 것이다. 그 말의 속뜻을 나는 단박에 알아들었다. 남들 다 애 키우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구느냐는.

물론 차 계장과의 첫 대면이 유독 당혹스럽기는 해도 그런 반응이 새삼스러운 일만은 아니었다.

처음 시선제로 전환을 하고 한동안 과장 이하 전 계장들에게 인사를 하고 퇴근했다. 남들 다 일하는 시간에 그러는 게 껄끄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냥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원계장이 나를 조용히 불렀다.

“지원 씨, 이제 퇴근할 때 나한테만 살짝 하고 가.”

“……네?”

영문을 모르는 내가 멀뚱멀뚱 쳐다보자, 계장이 코를 찡긋거리며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업무 회의 때 총무계장이 굳이 뭐 하러 그러고 가느냐고 하더라고. 그냥 가라고.”

알겠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인 후 급히 돌아 나오는데 무안함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시선제가 환영받을 존재가 아니란 건 알고 있었지만, 인사를 하는 나보다 인사를 받는 사람들이 더 불편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어서 적당히 눈에 띄지 않게 퇴근을 했다. 굳이 다른 이들의 이해까지는 바랄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니까.

며칠이 지나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소소한 불만과 들쭉임이 가라앉고, 차 계장의 표정도 눈에 띄게 누그러졌다. 인사에 따른 본인 나름의 고충이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인사이동의 시즌은 끝난 것이다.

그렇게 차 계장과의 첫 대면의 기억이 희미해질 즈음 슬그머니 의문이 일었다. 발령 전 들었던 악명에 비하면 너무 조용하지 않은가. 오자마자 사람들과 척을 질 이유야 없겠지만 듣던 것과는 한참 거리가 있어 보였다.

차 계장은 이따금 민원대 쪽으로 나와 대체 인력인 선미 언니에게 말을 걸었다. 자신과 비슷한 연배에 무슨 이야기든 척척 잘 받아주는 언니가 편한 모양이었다. 나는 듣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어 일하는 틈틈이 살짝 살짝 이야기를 엿듣곤 했다. 대화 중간중간 예의 그 톡톡 쏘는 차 계장의 말투가 튀어나오곤 했는데, 얼핏 투명스럽게 들리기는 해도 별 뜻 없이 본래가 말을 돌리지 않고 바로 말하는 성격인 것 같았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차 계장이 부러워지고 있었다. 고개를 뺏뺏이

든 채 어떤 필터링도 거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해서 혼자 끔끔대는 일 따위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였으니까.

연초의 민원실은 그야말로 시장통을 방불케 한다. 민원대 앞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고, 여기저기서 울려대는 전화 소리, 민원들과 직원들이 주고받는 소리 등으로 왁자지껄 소란스럽기 그지없다. 그러다 한순간, 소음이 푹 멎을 때가 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때는 장터 한가운데 같다가도, 돌연 파장 무렵의 시골장처럼 적막하리만치 고요해지는 순간이.

이때다 싶어 냉큼 텀블러를 들고 일어섰다. 출근하자마자 타 놓은 커피는 업무시간 전부터 몰린 민원에 이미 차갑게 식은 지 오래였고, 나는 카페인 충전이 간절히 필요했다.

그렇게 쟁쟁음으로 탕비실로 막 들어서는데 먼저 온 누군가가 믹스를 뜯고 있는 게 보였다. 차 계장이었다. 나는 들인 발을 회수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고민했다. 마음은 굴뚝같지만 여기서 돌아나가는 건 더 이상할 터였다. 그래,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자연스럽게.

나는 다른 발을 마저 들이며 태연스레 말을 건넸다.

“계장님도 커피 타러 오셨네요. 오늘 다들 바빠서 커피 한 잔 마실 틈도 없었죠?”

“……그렇네. 오늘 유독 더하네. 지원 씨도 거기 있지 말고 들어와. 물방금 끓어서 지금 부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그녀는 내가 들어오도록 옆으로 한발 비켜주었다. 그 선선한 행동에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풀어졌다.

“감사합니다.…… 참, 선미 언니한테 들었는데 계장님도 아드님만 있으시다면서요? 저도 아들만 하나거든요. 아드님은 나이가?”

“이제 대학 졸업반.”

“와, 다 키우셨네요. 부럽다-.”

“뭐, 시간 지나면 금방인걸……. 그런데 지원 씨는 이제 승진도 해야 하는데 왜 시선제를 하는 거야? 육아휴직도 다 써서 순서도 늦다며.”

또 그 애기인 건가. 속으론 뜨끔하면서도 지난번과는 다른 유한 분위기에 사고가 낙관적으로 흘렀다. 같은 여자이자 워킹맘으로서 조금은 이해받을 수 있을 것도 같았다.

“아이가 허약해서 자주 아프기도 하고, 양가 부모님들이 다 멀리 계셔서 도움받기도 힘들어서요. 게다가 지금처럼 방학이면 아이 점심 챙겨줄 사람도 없거든요.”

그렇게 말하며 머쓱하게 머리를 긁적이자, 차 계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뭐, 아이가 중요하긴 하지.” 했다.

이번에는 잘 넘어가는 건가 내심 안도하고 있는데, 커피를 한입 홀짝인 차 계장이 셀쪽한 얼굴로 덧붙였다.

“……근데 있잖아, 애 너무 끼고 키우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 해. 오냐 오냐 키워놔더니 커서 제구실 못 하는 애들 요즘 많잖아.”

걱정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그 말에 열심히 커피를 휘젓던 손이 툭 멈췄다. 이 묘하게 기분 상하는 멘트는 뭐지?

그러거나 말거나 차 계장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뜨거운 김이 나는 커피를 호호 불며 획 돌아 탕비실을 나갔다.

혼자 덩그러니 남은 나는 조금 전의 상황을 곱씹었다. 내가 뭐 실수라도 했나? 아니면 내가 싫어서 일부러 저러나? 나는 고개를 내저었다. 그렇진

않을 것이다.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굳이 나만 콧 집어 괴롭힐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선의로 대해도 그녀와는 번번이 어긋나 버리는 것도 사실이었다.

오후 내내 고민한 끝에 나는 혼자만의 결론을 내렸다.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처럼 누구나 자신만의 주파수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녀와 나는 서로 그 주파수 대역이 다를 뿐이다. 그 격차를 억지로 끼워 맞출 수도 없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건 각자의 선호 문제일 뿐,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니까.

이후 나는 차 계장과 가까워지려는 마음을 고이 접었다. 일정 거리 유지와 적당한 무관심. 그러면 더는 서로 얼굴을 붉힐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날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로 직원 회식이 있는 날이었다. 퇴근 후 저녁상을 차리고 기다리다 신랑이 오자마자 아이를 맡기고 부랴부랴 회식 장소로 향했다.

뒤늦게 도착하고 보니 남은 자리라고는 맨 구석의 차 계장 옆자리 뿐이었다.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후회하며 억지 발걸음을 떼다 차라리 잘 되었던 생각이 들었다. 이참에 술도 한잔하면서 좀 친해지자 싶었다. 같은 계 내에서 언제까지고 데면데면한 채로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시작은 좋았다. 아무래도 술이 들어가니 기분도 오르고 말도 쉽게 나왔다. 차 계장의 어투도 한결 나긋해져 있었다. 술잔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조금 편해지나 싶었는데, 너무 편해졌나 보다. 소주잔을 비워내던 차 계장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다.

“지원 씨는 그 연차에 사무실에서 너무 하는 일 없는 거 아냐?”

뭐? 계장을 위해 부지런히 고기를 뒤집던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실내는 한창 시끌시끌했으니까. 그러나 설마, 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내가 노릇노릇하게 구워놓은 삼겹살 한 점을 살포시 집어 입에 넣으며 태연히 말을 이었다.

“같은 직급인 수정이 봐봐. 어려운 업무 다 도맡아서 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다.

보자 보자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는 집계를 탁자 위로 세게 내려놓으며 항의했다.

“계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시선제로 전환 근무 중인 거 아시면서 종일제 근무하는 사람하고 비교하시는 저의가 뭡니까?”

나의 격앙된 반응에 열심히 고기를 우물거리던 차 계장의 표정이 뜨악하게 굳어졌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말이지. 흠, 흠.”

혈, 기가 차다 못해 압담할 지경이다. 나는 받아만 놓고 조금씩 나눠 마시던 술잔을 단숨에 비워냈다.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내리며 뱃속으로 찌르르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제가 시선제하는 게 못마땅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

차 계장은 늘 고분고분하기만 하던 나의 의외의 공세에 놀랐는지, 눈을 이리저리 굴러다다 슬쩍 옆으로 돌아앉아 혼자 음료수를 홀짝였다.

말할 수 없이 속이 상한 나는 소주병을 들어 빈 잔을 채웠다.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러는 걸까. 분한 마음을 삭이며 다시 목구멍으로 소주를 털어 넣던 그때였다.

불현듯 머릿속으로 파고드는 생각에 나는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차 계장의 말처럼, 그 말 속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순간 모멸감이 솟았다. 처음 시선제로 전환하면서 느꼈던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그것에 익숙해지는 데 여러 달이 걸렸는데,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가시방석 같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누르고, 회식이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빠져 나왔다. 제일 먼저 눈에 띈 택시를 잡아타고 그제야 한숨을 돌리려는데 체한 건지 메스꺼운 건지 가슴이 답답했다. 찬바람이라도 쐬까 하고 창문을 열어 밤공기를 들였다. 서늘한 냉기가 피부에 닿는 것을 느끼며 숨을 들이쉬려는 찰나, 어째서인지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까 했는데 주말 내 호흡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억지로 숨을 들이켜느라 갈비뼈가 빠근할 지경이었지만, 정작 공기는 폐에 닿지 못하고 목구멍 어디선가 계속 막히고 있었다.

급기야 안방 서랍에 옷을 개켜 넣던 중 갑작스레 숨이 막혀왔다. 겁에 질린 나는 침대를 부여잡고 가슴을 크게 들썩이며 연신 숨을 들이켰다. 그러다 어느 순간 과호흡이 되었는지 머리가 하얘지는가 싶더니 풍경이 빙글 거꾸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현기증을 느끼며 눈을 뜨니 침대 위였다.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밖으로 나오는데 거실에서 놀고 있는 아이와

신랑이 보였다. 눈물이 왈칵 솟았다.

실은 올해 시선제를 한 해 더 연장할 생각이었다. 조만간 사무실에 말을 꺼내려던 참이었는데 결심이 흔들렸다. 차라리 그만둘까? 다시 그 비난섞인 시선들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 벌써부터 두려워지고 있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겹게 출근한 월요일 아침, 차 계장의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회식 때 상사인 자신에게 대든 것을 두고두고 양값음할 요량인 것 같았다.

마침 그날은 차 계장의 생일이었다. 11시 반쯤 그의 가족이 보낸 꽃다발과 케이크가 사무실로 도착했다. 입가에 흡족한 미소가 걸린 차 계장이 그것들을 받아들며 “아유, 이런 걸 왜 보냈네.”하며 호호 웃자, 여기저기서 “생일, 축하해요”, “이쁘네”, “좋겠네”하는 말들을 건넸다.

나는 민원 처리를 하며 뒤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애써 못 들은 척했다. 월요일이라 민원이 많은 게 이럴 때는 다행이다 싶었다. 그런데 민원이 잠시 끊기고 한숨을 돌릴 때였다. 언제 왔는지 바로 등 뒤로 평소보다 두어 톤은 올라간 듯한 차 계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미 언니, 애들이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보냈네.”

“계장님, 좋으시겠어요.”

“케이크를 참 큰 것을 보냈어. 사무실 식구들 나눠 먹으라고 말이지. 언니, 우리 점심 먹고, 오후에 나눠 먹어요. 고생하는 사람들이 먹어야 하지 않겠어? 오호호.”

비웃음 같은 억지 웃음소리가 날카롭게 귓가로 꽃혔다. 차 계장은 흐응하고 흐뭇한 콧소리를 내며 자리로 돌아갔다. 한 방 제대로 먹었다는 듯 경쾌한 발걸음으로.

동요하지 않으려 했지만,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나 유치해질 수 있는가. 눈이 절박하게 모니터의 시계로 향했다. 퇴근 한 시간 전. 이제 한 시간 남았다.

1시 정각이 되자마자 나는 잔뜩 욕였던 스프링이 튕겨 나오듯 곧장 사무실을 빠져 나왔다. 조금 전부터 다시 숨이 막혀오고 있었다.

주차장까지 단숨에 달음박질한 나는 차 안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렇게 십여 분쯤 지났을까.

서서히 가슴께가 진정되자 돌연 분노가 치솟았다. 내가 차 계장에게 뭘 그리 잘못된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이유 없는 적의는 처음이었다.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되었다. 차 계장은 틈만 나면 민원대로 와서는 보란 듯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다가 돌아가곤 했다. 마치 내게 각인이라도 시키고 싶은 것 같았다.

우리 계에서 너는 은파라고.

2월 초가 되자 과장과 직원들과의 오찬 자리가 마련되었다. 오랜만에 나도 직원들과 같이 점심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이번 주부터 아이 봄방학이었다. 아쉬운 마음을 접으며 “아이 점심을 챙겨야 해서 먼저 갈게” 하는데, 뒤에서 빈정대는 목소리가 날아왔다.

“초등학생이면 식사 한 끼 정도는 혼자 못 챙겨 먹나?”

돌아보니 차 계장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웃고 있었다. 불쑥 오기가 났다.

“네.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내 말에 차 계장은 실췌 웃고는 직원들과 어울려 사무실을 나갔다. 그제야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엇질러진 물이었다.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아이에게 전화를 거니, 아이는 오전 돌봄을 막 마친 참이었다.

조금 늦을 테니 간식거리 챙겨 먹고 있으라는 말에, 잠시 머뭇대던 아이는 이내 “네!”하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작년까지도 혼자 집에 있는 걸 무서워하던 녀석은, 어쩌다 퇴근이 조금 늦는 날이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현관 앞 자전거에 앉아 날 기다리곤 했다. 그러던 것이 언제 이만큼 자랐는지 기특하고 대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덕분에 나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러 갈 수 있었다.

점심은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었다. 남이 차려준 밥상을 받는 것도 직원들과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간만이라 좀전의 불쾌했던 기분은 금세 사라졌다. 나는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아 들고는 기분 좋게 식당을 나왔다. 그러나 집으로 향하는 사이, 아이 혼자 너무 오래 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한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뛰다시피 내려 빛의 속도로 현관 도어록 비번을 눌렀다. 그런데 번호를 채 다 누르기도 전에 문이 벌럭 열리며 아이가 뛰어나왔다. 엄마, 하며 허리춤에 매달리는 녀석을 보고 있자니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우리 아들, 엄마 많이 기다렸지? 혼자 안 무서웠어?”

아이가 대답 대신 고개를 힘차게 끄덕여 보였다.

“엄마가 얼른 점심 해줄게. 늦게 와서 미안해.”

나는 아이의 머리를 격하게 쓰다듬고는 걸옷을 벗어두고 안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방이 환했다. 아침에 안 끄고 나갔던가? 고개를 갸웃하며 나오는데 작은 방도 마찬가지로였다.

“아들, 엄마가 아침에 불 안 끄고 갔나 보네. 안 쓸 때는 다 좀 꺼주세요.”

그러자 언제 왔는지 아이가 문 뒤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는 쭈뼛대며 말했다.

“…… 쪼-금 무서워서 전부 다 켜놔어요.”

아, 그랬구나. 순간 뭉클한 것이 목구멍을 짹 메웠다. 판엔 의젓한 척해도 아직 1학년인 것이다.

아이가 늦은 점심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마음을 굳혔다. 내일은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하겠노라고.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소소한 것이다. 아기가 소년이 되고 소년이 청소년이 되는 그런 일상의 순간들을 함께하며 두 눈으로 찬찬히 봐두는 것. 어떻게 해도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어머, 승진도 늦었는데 자꾸 그래서 되겠어?”

다음 날 민원계장에게 연장 신청을 알리자, 옆에서 듣던 차 계장이 먼저 호들갑을 떨며 나섰다.

“그래, 지원 씨도 이제 승진에 신경 써야지.”

민원계장이 미간에 주름을 한껏 잡고는 볼펜으로 결재서류를 탁탁 내리 찍으며 말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푹 수그러들었다.

“죄송합니다, 계장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요. 승진은 욕심 없습니다.”

“쫓-, 어쩔 수 없지 뭐. 알겠어.”

마지못한 계장의 대답을 뒤로 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뭔가 잘못이라도 한듯한 기분이 되었다. 지난 일 년 내 그랬다. 사무실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나는 죄지은 양 위축되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으니까.

일반적인 흐름을 따르지 않고 정도에서 벗어난 ‘아싸’의 죄명. 한 해 더 그렇게 견뎌야 한다. 후-, 한숨이 나왔다.

그래도 조금 더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다행스럽게도 퇴근 전 과장의 승인이 떨어졌다. 결재가 난 공문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불현듯 뒤통수로 얹은 불안감이 달라붙었다. 시선제로 근무하는 이상 다른 과로의 발령은 제한된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꼼짝없이 차 계장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입춘이 한참 지나고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아침 수시 인사공문이 떴다. 과 직원 몇이 바뀌며 사무실이 다시 들썩였다. 그럴 때마다 늘 있는 약간의 어수선했음과 막연한 불안감.

하지만 이번에는 그 불안감이 제대로 적중했다. 민원계 직원이 바뀌며 업무 분장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차 계장이 내 업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반쪽짜리인 나는 책임 있는 업무가 아닌 단순 발급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나는 느닷없이 이제껏 하던 업무를 바꾸라는 차 계장의 독단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한껏 목청을 드높이는 차 계장 뒤로 이맛살을 잔뜩 찌푸린 민원계장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죽은 조개처럼 입을 꼭 다물고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엉뚱한 데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란 듯, 또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듯.

망할! 나는 옥지거리를 삼키며 자리로 돌아왔다. 분을 삭이며 앉아 있는데 뒤에서 계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분장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민원계장이 나를 사무실 밖으로 불러냈다. 예상대로 업무가 바뀐 것이다.

“지원 씨가 좀 이해해. 그래도 지원 씨는 금방 퇴근하니까 오전만 좀 고생하면 되잖아.”

계장이 손가락으로 담뱃재를 툭툭 떨어 말했다.

그래, 나만 조용히 하면 되는 거겠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눈을 질끈 감고 참았다. 나로서는 불합리한 일이지만 본인이야 내 업무가 무어든 상관없을 터였다. 어느 쪽이든 민원대만 굴러가면 되니까. 그는 단지 이 불편한 상황을 얼른 모면하고 싶을 뿐인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울분과 굴욕감에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원래 좋지않다 한동안 잠잠했던 잇몸이 다시 욱신거렸다.

그렇게 밤새 끙끙대며 뒤척이다 잠시 잠에 빠져들 때면 나는 계속 같은 꿈을 헤매고 있었다. 그건 아주 끔찍한 꿈이었는데, 이가 하나씩 둘씩 빠지다 마침내 잇몸까지 몽땅 다 허물어져 내리는 장면에서 나는 매번 가슴을 철렁이며 눈을 떴다.

거의 밤을 새운 다음 날, 출근해서 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자 새로 올려진 업무 분장 공문이 보였다.

나는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누르며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고 자리를 옮겨 앉아 뚫어져라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그러는 사이

점점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되고 있었다. 업무가 시작되지 않은 사무실은 조용하다 못해 괴괴했고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들이 거칠게 날뛰었다. 모두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시치미를 떼고 앉아서는 슬쩍슬쩍 결눈질을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업무가 시작되자 통합민원대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전혀 없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드는 민원에 나는 정신없이 서류를 발급해야 했다.

그러나 그건 그것대로 꽤찮은 일이었다. 더 바빠진 만큼 시간도 훨씬 빨리 갔고 무엇보다 마음을 괴롭히던 것들을 떠올릴 틈조차 없었으니까. 덕분에 밤사이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차 계장에 대한 분노도 뒤로 미뤄졌다.

오전 내 통합민원대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한숨을 돌린 나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미처 마시지 못한 커피를 집어 들었다. 하지만 식은 지 오래된 커피는 군데군데 하얀 지방층이 떠있었고 오래된 기름에서나 날 법한 텃텃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옆으로 밀어놓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다. 그때 불쑥 나타난 손 하나가 책상 위로 무언가를 내려놓았다.

커피였다. 방금 타낸 듯 하얀 김이 솔솔 오르고 있는.

“미안해, 지원 씨. 연차도 있는데 이 자리에 앉게 해서.”

…차 계장? 앞도 뒤도 없는 뜬금없는 사과에 나는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이건 또 뭐 하자는 걸까.

내가 잠자코 쳐다보자 그녀가 주뻗대며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전의 업무는 지원 씨 퇴근하고 나면 곤란할 때가 있더라고.

발급업무는 상관없으니까. ...내 생각엔 이게 맞지 싶네. 지원 씨가 좀 힘들겠지만 이해해주길 바랄게.”

사과인지 변명인지 모를 그 말을 끝으로 차 계장은 새초롬하니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쪽을 망연히 쳐다보는데 울컥 화가 치밀었다.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로 넘기기엔 너무하지 않았나? 나는 가슴을 시근덕거리며 그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속이 울렁거리고 뱃속에서 명명할 수 없는 갖가지 감정들이 튀어나올 듯 부글대기 시작했다.

그건 화해의 제스처인 걸까.

하지만 도대체 뭘 이해해달라는 거지.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운 와중에 돌연 명치께가 싸해 왔다.

나는 배를 부여잡고 앉아 의자 안으로 몸을 움츠렸다. 배 안쪽에서 시작된 작은 소요가 순식간에 몸집을 불러 내장을 휘젓고, 뒤엎킨 채 팽팽히 대치하던 어떤 것들이 서로 부닥치며 끊어질 듯 말 듯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낼 것만 같다고 생각하던 그때, 뱃속에서 무언가 물결 몸을 틀었다.

잠시 후 메스거림이 가라앉으며 가슴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허물어져 내렸다. 이윽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든 감정은 분노가 아닌 안도감 이었다.

허탈함에 그만 헛웃음이 나왔다. 그거면 된 건가.

나는 지난했던 두 달 남짓의 시간과 미안하다는 심플한 말 한마디를 번갈아 떠올렸다. 그리고 그냥 다 잊기로 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에 더는 에너지를 쏟고 싶지도,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함몰되고 싶지도

않았다. 그건 다른 이가 아닌 나 스스로를 좀먹는 일이기도 하니까.

다음날부터 차 계장은 더는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딱히 살갑지는 않아도 나를 대하는 게 이전과는 달랐다.

늦도록 맹렬히 기세를 떨치던 추위가 마침내 물러난 어느 3월의 아침, 나는 창밖으로 봄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을 마치 계절의 변화를 처음 목격이라도 하듯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영원할 것만 같던 긴 겨울의 끝이 어느새 발을 빼고 저만치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조금 늦더라도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오고야 마는 것이다.

간만에 사무실이 고요했다. 퍽툼툼툼 민원을 처리하는 사이 간간이 전화가 울리는 게 다여서, 뒤쪽 테이블에서 차 계장과 선미 언니가 속삭이는 소리가 아까부터 고스란히 들려왔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딱히 궁금한 건 아니었는데 커피를 흘쩍이는 소리 사이로 화기에애하게 주고받는 이야기가 정감 있게 들렸다고나 할까.

그런데 한순간 차 계장이 길게 한숨을 내쉬는가 싶더니 곧 오래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언니…… 나는 애 키울 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 신랑이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 그때는 휴식도 어렵지, 몸은 안 좋은데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정말이지 힘들어서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는데……
훗, 결국 못 그만두고 아직 이러고 있네.”

나는 슬쩍 고개를 돌려 차 계장을 훑쳐보았다. 그녀는 주름진 입가에 얇은 미소를 띠우고 먼 기억을 되새기듯 초점 없는 눈동자를 허공으로 향한채였다.

그제야 알 것 같았다. 내가 나대로 힘든 시간을 지나왔듯, 그녀는 그녀대로 힘겨운 시간을 건너왔다는 것을.

그녀가 보기에 내 길은 좀 더 쉬워 보였을까?

하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니잖아.

잠시 억울한 마음이 일었지만 이내 차 계장이 안쓰러워졌다.

내가 선택한 길은 그녀가 포기한 길이고, 그녀가 선택한 길은 내가 포기한 길이다. 내 손안에 든 것에 만족한다고는 해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테지만, 우리는 각자의 선택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에 따라 각자 다른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뿐인 것이다.

창밖으로 완연한 봄빛이 아른아른하는 날이었다. 사무실로 들어서는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자 노란 포스트잇 한 장을 살며시 흔들고 있는 차 계장이 보였다.

“지원아, 방금 네 자리에 전화왔었는데, 여기 전화해서 답변 좀 해줄래?”

네, 하고 대답하려 무심코 입을 열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지원 씨가 아닌 지원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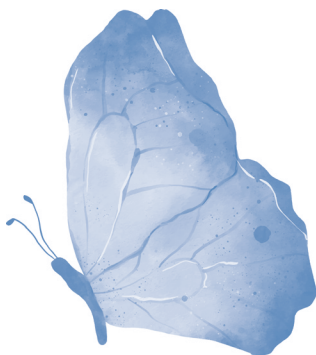
석 달이 넘도록 다른 직원에게와는 달리 내 이름에만은 꼭 ‘씨’란 호칭을 붙이던 차 계장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빠진 것이다.

조금 얼떨떨한 기분으로 멀뚱히 섰는데 마침 창으로 훅, 바람이 불어들어왔다. 아직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봄바람에 얇은 셔츠 아래로 오소소 소름이 돌아났다. 유난히 길었던 겨울의 마지막 기억처럼 찌릿하니 기분좋은 그 감각에 몸이 부르르 떨렸다.

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키고는 “네! 계장님!” 하고 대답했다. 소리가

너무 컸는지 몇몇이 돌아보다 다시 시큰둥하게 고개를 돌렸다. 머쓱해서 헛기침을 하는 참에 차 계장과 눈이 마주쳤다. 빠져나오는 웃음을 지그시 참고 있는 그녀의 손가락 끝에 노란 나비 한 마리가 곱게 내려앉아 있었다.





검은 개는 커다란 앞발을 모아 그 위에 턱을 괴고 있었다. 복부는 얇게 오르내렸고 낮게 누운 몸이 길었다.

“계세요?”

열려있는 대문 틈으로 몇 차례 주인을 불러보았지만 작은 집은 조용했다. 오랜 시간 산적된 적막 같았다.

“너 혼자야?”

개는 앞으로 접힌 귀 한쪽을 느리게 들어올렸다. 가까이 놓인 밥그릇과 물그릇이 소복이 차있었다.

작은 흙마당에 다른 건 더 없었다. 평상도, 벽에 늘어놓은 고추 따위도, 물조리개나 진흙 묻은 고무장화도 없었다. 정면 두 칸짜리 집의 벽면엔 시계도, 모자도 걸려있지 않았다. 조금씩 뒤틀린 나무 문틀이며 반드러운 텃마루, 모서리 닳은 댓돌 같은 것들이 집의 세월을 말해주었고, 담 바깥의 소나무들은 굵은 줄기 그대로 같은 자리에서 영겁을 쌓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규정 상 빈 집엔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대문 밖에서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들고 온 서류를 내려놓고 집을 품고 있는 숲을 둘러보았다. 아직 어린 연두색 이파리들 사이로 조각별이 내렸다. 어느 나무에선지 매미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자 주변의 매미들이 일제히 울음을 질렀다. 온 숲에

산불이 번지는 듯했다.

“네 주인이 임창목 씨 맞아?”

가까이 와주면 목이라도 쓸어줄 텐데 문을 넘지 않는 방문객에게 경계를 거두었는지 개는 고개를 사선으로 바꿔 괴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너무 늦어지면 근무시간에 바람이라도 쐬고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저희들끼리 은밀히 생성해 공유하는, 내게는 표하지 않는 말들이 한 겹 더 쌓이겠지.

20분을 더 기다리다 방문 기록지를 꺼내 ‘1차 방문. 4월 20일(화) 15:30, 산호면 종천로 32, 대상자 부재’라 적고 담당자 서명란에 내 이름을 적었다. 집 전면과 대문에 걸린 도로명 주소판이 나오게 사진 한 장을 찍었다.

서울의 한 원룸촌에서 지체 장애인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된 사건에 이어 지방의 작은 마을들에서 발생한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연달아 언론에 보도되자 보건복지부에서 특별 관리 대상자를 추출해 전국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하게 했다. 1인 가구 중 장기간 병원 방문 이력이 없거나 세금 체납이 누적되었거나 우편물 수신 내역이 없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건강상태와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조사였다.

도시에서 먼 이곳은 1인 가구 수나 독거노인의 인구비율을 추릴 필요가 없는 곳이다. 거의 모든 주민이 나이 많은 이들이었고 그들의 대부분이 외파로 떨어진 곳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짊어지고 있는 질병의 병명이 무엇인지, 평균 월수입이 얼마쯤 인지, 의식주와 병원비와 취미활동과 종교활동에 어느 정도씩을 지출 하는지를 묻는 것은 유쾌하지도 보람차지도 않은 일이다. 책임질 수 없는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산호면 대상자는 아흔여덟 명이었고 면사무소 사회복지사는 셋이었다. 내가 서른네 명을 맡았다. 노인일자리 담당자에게 명단을 구해 스물두 명을 확인했다. 도로변에 꽃을 심거나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고 마을회관 청소를 하며 한 달에 이십칠만 원씩 받는 노인들이었다. 남은 열두 명 중 아홉 명은 여섯 마을의 경로당을 돌며 소재를 파악해 처리하였다. 이제 남은 대상자는 셋.

그들 중 한 명은 사망자였다. 효심이 유별났던 아들이 서류에서까지 어머니를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다며 1년 넘게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긴 설득 끝에 아들이 면사무소를 찾아와 과태료를 내고 사망신고를 했다. 쉴새 없이 울던 그의 얼굴이 오래 남아 곤혹스러웠다.

다른 한 명은 얼마 전 딸네 집으로 거처를 옮긴 84세 남자였다. 병원 갈 일이 없었고 우편물을 보내올 곳도 없었다. 딸과 통화해 전수조사 사정을 설명하고 남자의 주소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자신은 아주 잠시만 아버지를 맡고 있을 뿐이라며 거절했다.

남은 한 명이 임창목이다. 사람 사는 기록이 이렇게까지 얇을 수 있을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전부였다. 가족 관계도 연락처도 주소를 옮겼던 내역도 복지 서비스를 받았던 적도 없었다.

“가끔 그런 분들 있어. 사정이 어려워도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한다거나, 알고 있다 해도 면사무소에 전화 거는 것조차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의 역사에 자기 산 흔적을 새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삶의 기록이 비어있어. 깨끗하지 아주. 시스템만 보면 아무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상흔 씨, 그런 데서 일 나는 거다.”

팀장이 말한 앞의 두 부류를 복지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것이 내가 해온 일이었다. 세 번째 역시 나의 일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누군가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가능한 걸까? 제도권 안에 있다면 안심해도 될 만큼 안전한 걸까? 복지를 만들고 행하는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지?

임창목이 무탈하길 바랐다. 나의 과오에서 나지 않은 꼬리표를 더하고 싶지 않았다.

초여름 아침의 산자락은 생명의 밀도로 가득했다. 밤사이 살아있는 것들이 쌓아놓은 날숨들을 들이마시며 솔밭길을 올랐다. 풀잎에 베인 발목에 이슬이 닿아 쓰렸다.

“계세요?”

대문이 닫혀있는 걸 보니 사람이 들긴 한 모양이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면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철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느릿한 기척이 있었다. 마른 침을 삼키며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기척은 문 가까이 오더니 안쪽에서 멈추었다. 불안한 침묵이었다. 땅에 무릎을 대고 두 손을 짚어 대문 밑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검은개였다.

“너구나. 사람은? 또 혼자야?”

일곱 시였다. 더 일찍 왔어야 했을까.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는 건 해보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가윗것을 가져본 적이 없다. 아침의 새들이 바빠 날았다.

챙겨온 소시지를 꺼내 껍질을 벗겨 대문 밑으로 내밀었다. 개가 냄새를 맡고는 접힌 귀를 움직였다.

“먹어도 돼. 너 주려고 가져온 거야.”

동한 눈치였으나 혼련을 잘 받았는지 개는 고개를 돌렸다.

“그만두시오.”

예상치 못한 소리에 놀라 일어서 뒤를 돌아보았다. 백발의 노인이 매서운 눈으로 빠르게 나를 훑었다. 각진 어깨와 반듯한 눈매가 집 마당과 닮아있었다.

“혹시 임창목 님 되세요?”

답은 없었다.

“안녕하세요. 면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아침엔 계실 것 같아 일찍 방문했습니다.”

“돌아가시오.”

옆을 지나쳐 가는 노인에게서 적의가 느껴졌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노인이 들어가는 사이, 대문 틈으로 큰 꼬리를 느리게 흔들며 일어서는 검은 개가 보였다. 문은 바로 닫혔다.

“임창목 님 맞으시죠?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잠깐이면 됩니다.”

노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버리기 전에 필요한 대답을 들어야 했다. 목에 걸고 있던 공무원증을 빼 대문 너머로 떨어뜨렸다.

“혹시 도움 필요하신 게 있는지 여쭙보러 왔습니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믿으셔도 됩니다.”

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니 노인은 아직 문 뒤에 있을 것이었다.

“제가 어르신 담당 공무원인데 전화번호를 찾을 수가 없어 연락을 못 드리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편찮으신 데는 없는지, 생활하실 만큼 수입이 있으신지, 그 정도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조바심이 났다.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소.”

어디에서 갈피를 찾아야하는지, 예상치 못한 반응에 화급해졌다.

“나라에서 어르신 살피드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뭘 뒤져서 어르신을 찾아낸 게 아니라 나라에서,”

“나라에서 나를 어찌 안단 말이오!”

거센 노여움이 노인에게서 쏟아져 나왔다. 응수할 수 없는 전개였다.

“그건, 어르신이 국민이니깐요. 나라는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곳이고,”

“그렇지 않소. 돌아가시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길 기다려 홀로 사무실에 남게 되었을 때 임창목을 마주보았던 잠깐의 기억으로 방문 결과 보고서를 썼다. 마르긴 하였으나 급지 않은 몸이었다. 색 바랜 옷이었지만 단정한 차림이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잠깐 열렸던 대문 틈으로 구형 오토바이에 매달린 리어카와 거기에 담긴 폐지더미가 보였다. 건강상태, 영양섭취, 소득 모두 ‘양호’라 적어 넣었다. ‘이름’과 ‘결과’는 있었으나 ‘어떻게’와 ‘왜’는 없는 보고서였다.

모니터의 한 점, ‘양호’라는 글자 뒤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한참을 바라보다 적어두었던 것들을 모두 지우고 빈 공간으로 두었다. 짐작으로 결과를 짓는 건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한 게 된다.

노인의 마지막 말, ‘그렇지 않소’를 생각하며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군(郡) 사회복지과 과장에게 전화가 왔다. 윗사람이 특정인을 말할 땐 정치가 들어온 것이니 영리해야 한다고 팀장이 말한 적이 있었다. 일한 티를 내는 건 아부와 다른 것이라고도 했었다. 육 개월 뒤 지방선거가 있다.

임창목을 만나 보았느냐는 과장의 물음에 외딴 술숲에 두 번 찾아가 아침이슬이 채 마르기 전 만나보았다고 답했다.

“그래. 상훈 씨 기회 잘 타고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눈에 띄지 않으려면 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말인데, 요즘 하고 있는 전수조사 말이야. 결과 보고서 어차피 여기로 올릴 거니까 거기 넣을 사진 내 메일로 하나 먼저 넣어주면 좋겠는데.”

보고서는 군(郡)을 거쳐 도(道)로, 복지부로 올라간다. 결재선에 있는 과장이 어차피 보게 될 사진이었다. 사진에 주소판은 있지만 명패가 없었으니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망설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또? 조사 다 끝난 거 아니었어?”

퇴근하는 팀장에게 내일 아침 임창목에게 들러 출근하겠다고 하자 맞은편에 앉은 직원이 물었다.

“네. 남은 한 분이 만만치가 않네요.”

“상훈 씨 또 A부터 Z까지 죄다 규정 맞춰가면서 하고 있구나? 피곤하지 않아? 이제 슬슬 요령 터득할 때도 된 거 같은데. 무조건 규정대로 한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해. 효율, 능률 이런 걸 따져봐야지. 일머리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지 눈치껏 빨리 잡아내야 된다고. 자기는 융통성을 좀 키워야 돼. 내가 상훈씨 아끼니까 이런 말도 해주는 거다, 알지?”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한다. A부터 Z까지를 모두가 알 수 있는 상상. 그 모두를 공유공간에 올려두고 모든 이가 보게끔 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잘못 평가될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상.

흙길에 난 바퀴자국을 따라 아침 숲을 걸어 올랐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콧마루 안쪽 숨길을 따라 솔향이 깊이 들어왔다.

“임창목 님 계세요? 어제 뵈면 인사사무소 직원입니다.”

닫혀있는 대문 너머에서 검은 개가 가까이 오는 모습을 그려봤다. 기척이 없었다. 데리고 나간 걸까. 내가 개에게 약이라도 탄 무언가를 먹일 거라 생각했을까.

“혹시 안에 계시면 대답만 해주셔도 됩니다. 어르신 일상생활 하실 만큼 건강하신 걸로, 반려견과 생활하실 만큼 소득 있으신 걸로 보고하려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숲 가득 바쁘게 사각거리며 나뭇잎 사이를 다니는 바람소리도 이 집 마당엔 스치지 못했다. 빈틈없는 침묵, 오직 적막뿐이었다.

“편찮으시거나 생활이 어려우시면 말씀해주세요. 밖에서 받아 적고 돌아가겠습니다.”

군데군데 녹이 슨 대문을 바라보며 어제 그 너머로 떨어뜨린 공무원증을 떠올렸다.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인사사무소의 복지팀장과 면장의 결재를 거친 신청서가 필요했다. 접수된 신청서는 다시 인사과의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받아 보존된다. 신청서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는 공간도 있었다. 분실은 책임을 말하는 단어다. 미숙을 뜻하기도 한다.

어제 아침 떨어진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밖에서도 손이 닿을지 몰랐다. 흙바닥에 엎드려 마당을 훑어보았다. 뒷마루 밑에 검은 개가 고개를 돌린

채 누워있었다. 불러보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를 아래 잠긴 검은 몸의 윤곽이 잘 보이지 않았다. 복부가 오르내리는지 알고 싶었다.

“오지 말라는 말을 따로 해야 하오?”

일어서 무릎을 털고 돌아섰다. 임창목의 손에 얇게 버린 낫 한 쌍이 들려 있었다.

“집을 들여다보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개가 기척이 없어서.”

임창목의 목줄대가 크게 흔들렸다. 휘우듬한 걸음을 떼는 그가 다그치듯 대문을 열어젖히고 마당을 가로질렀다. 뒷마루 위로 낫을 내던지더니 개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 개는 눈을 뜨지 않았다. 주저앉은 임창목의 마른 몸이 큰 개 옆에서 아이 같아 보였다. 임창목이 다급한 손길로 검은개의 여기저기를 만져보았지만 그 어느 곳도 움직이지 않았다.

대문을 넘어 개에게, 임창목에게 갔다. 길게 늘어진 개의 혀가 말라 있었다. 켜켜이 쌓인 집 안의 공기가 산화하듯 흠어졌다. 개의 복부에 손을 대보았다.

“숨이 있어요.”

임창목이 불안한 눈으로 내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가늘고 주름진 목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지도를 그려보았다. 면사무소 근처에 동물병원이 있었다. 휴대폰으로 검색해 전화를 걸었다. 진료시간이 아니라는 안내만 돌아왔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지도를 넓혀보았다. 군청에 닿았다.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공중방역수의사의 번호를 구했다.

“안녕하세요. 산호면사무소 복지팀에 있는 배상훈이라고 합니다. 아침 일찍 정말 죄송합니다. 개가 죽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상통화로 바꾸어 수의사에게 개를 비춰주었다. 수의사가 가늘게 뜬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더니 잠긴 목소리로 주소를 물었다. 임창목이 고꾸라지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집에 들어가 물 두 잔을 따라 나왔다. 한 잔을 임창목에게 건네고 다른 한 잔을 기울여 개의 혀를 축여주었다.

“죽은 줄 알았소.”

임창목이 흠바닥을 향해 말했다.

“노견이니 머지않아 가야 하겠지만 통 모르겠소.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고목의 수피 같은 손으로 마른 얼굴을 문지른 임창목이 무릎을 꿇고 일어섰다. 기운 결음으로 집에 들어가 부채를 꺼내온 그가 길게 바람을 끌어 개에게 부쳐주었다. 그 사이 한 세월을 더 살아낸 사람 같았다.

개의 검은 목덜미에 청진기를 대고 있는 수의사의 셔츠가 땀에 젖어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바로 출근을 할 테고 사연을 묻는 직원들에게 산호면 어느 직원의 개를 살리고 왔노라 답할 것이다. 직원이 공중방역 수의사에게 개인적인 일을 부탁해도 되는 것인지 말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잘 넘긴 것 같네요, 어르신.”

수의사가 청진기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고맙소.”

임창목이 바지 주머니에서 두 번 접힌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봉투를 열어본 수의사가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지금은 병원하는 수의사가 아니라 공무원 신분이어서 따로 돈 받으면 큰일 나요.”

“이 놈이 나한테 해준 게 많은 놈이요. 내 마음 편케 해주시오, 의사 선생.”

수 의사는 매우 난처한 얼굴로 내게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작게 목례했다.

몹시 피곤해 보이는 임창목에게 무엇도 더 묻고 싶지 않아 수 의사와 같이 돌아가기로 했다. 대문을 나서는데 임창목이 내게도 봉투를 내밀었다. 공무원증이 들어있었다.

“나는 잘 지내오.”

‘사각지대 숨은 취약계층 발굴’이란 제목으로 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보도된 며칠 뒤, 군(郡)이 속해 있는 지역의 한 언론에 특집기사가 실렸다. 한국전쟁 직후, 이십여 가구가 살던 작은 마을에 한국군 열두 명이 들어와 일흔 명을 총살했다. 빨갱이들에게 군량미를 대주었다는 죄목이었다.

바로 다음날 군수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다. 얼마 전 농수로 공사 중에 발견된 수십 구의 유골 사진 앞에서 그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들을 일일이 찾아 아픔을 위로하고 뼈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모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다. 자신이 직접 백방으로 뛰어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파헤쳐진 농수로 옆의 백골 더미와 임창목의 집 사진이 확대되어 있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군수의 순방 일정이 내려왔다. 다섯 집을 방문해 쌀과 생필품 몇 가지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뒤 군청 근처 식당에서

생존자들과 군수가 오찬을 하는 일정이었다. 임창목의 집은 세 번째 순서, 오전 11시 도착 예정이었다. 임창목에게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군수 일행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

순방계획을 내려보낸 군청 직원에게 임창목이 생존자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군수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타지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자 이곳에서 오래 살아온 원주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이를 덮을 보상이 필요했다고 한다. 군수의 선거캠프가 방법을 찾기 위해 지역 원로들에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 노인이 학살 사건을 꺼냈고 어느 집이 몇 명 끌려갔다, 어느 집은 일가족을 마당에 묶어놓고 쏘았다, 이제 남은 이가 누구누구 뿐이다,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군수의 재집권이 유력하다고, 다른 건 몰라도 논공행상만큼은 정확한 사람이라고, 담당자의 이름을 벌써 적어두었을 거라고도 했다.

저소득층 특별전형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공무원이 된 지 5년이 넘도록 떨어지지 않았다. 나의 시험 성적이 일반전형의 합격선보다 높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했다. 열심히 일했고 많은 걸 잘 해냈지만 합격은 가난의 덕이 아니라 실력이었다는 것, 성실은 가난의 파생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세월은 지난하고 소모적이었다. 너무 나도 비효율적이어서 몹시도 우스웠다. 나는 가난의 특혜를 받지 않았다. 나는 나라에 빚지지 않았다.

그 사이 솔숲의 질감이 달라져 있었다. 땅에 붙박은 것들의 공간인데도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다. 내려앉는 별의 무게도, 풀잎 사이를 흐르는 바람의 속도도, 숨을 들이킬 때마다 따라 들어오는 솔향까지도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한 계절을 더 살아낸 나무들은 또 다른 계절을 맞으려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가지마다 피운 솔잎은 키를 키우듯 색을 키워냈다.

등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가까워졌다. 옆을 지나는 임창목이 한 손을 들어올렸다. 뒤에 매단 리어카에 탄 검은 개가 귀를 한 번 달싹였다.

“태우고 다니시는 거예요?”

열어놓은 대문을 넘어 마당을 밟았다.

“집에 돌아와 죽어있는 걸 보는 것보다는 저한테도 나한테도 나올 거요.”

임창목에게 어떤 말을 내보내야 하는 건지 여전히 어려웠다. 이제 겨우 세 번째 만남이었다.

오는 길에 동물병원에서 사온 영양제를 꺼내 녀석의 밥그릇에 털어 주었다. 리어카에서 꾸러미들을 내리던 임창목이 밥그릇을 잠시 쳐다 보더니 하던 일을 마저 했다.

“좀 계시오.”

집 안으로 들어가던 임창목이 뒷마루를 가리켰다. 담 너머에 선 소나무가 흙마당까지 길게 그림자를 늘였다.

임창목이 소반을 들고 나왔다. 가지무침과 달걀부침, 소주 한 병과 잔 두개, 젓가락 두 쌍이 놓여있었다.

“아직 일이 남은 게요?”

“아뇨. 저 녀석 기운 차렸는지도 보고 싶고, 이쯤이면 매미 울음이 그쳤는지도 궁금해서요.”

임창목이 잔 하나에 소주를 채워 내 쪽으로 밀었다. 나머지 한 잔은 내가 채웠다.

“아직 우는 놈도 있지. 소용없는 걸 알 텐데 말이오.”

가지무침이 따뜻했다.

“녀석하고는 언제부터 같이 지내셨어요?”

“한 십 년쯤 됐나. 모종을 좀 사볼까 해서 장에 갔는데 노파가 사과 상자에 손바닥만한 것 네댓 마리를 담아 내줬더구만. 일을 다 보고 돌아 오는 길에 보니 이놈 혼자 상자에 남아 여기저기 냄새를 맡고 있었소. 사라진 것들을 찾고 있었겠지. 누구도 영문을 설명해주지 않았을 테니까.”

임창목의 빈 잔에 술을 채워주었다.

“어쩌다 나라 녹을 먹게 되었소?”

한 모금 술을 삼킨 임창목의 눈엔 예의 그 부러질 것 같은 눈빛 대신 걱정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어색해하는 임창목을 모른 척 하며 술잔을 비웠다.

“요즘 공무원 되기 엄청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 다 공무원 하고 싶어서 밥도 안 먹고 공부해요.”

임창목이 고개를 저으며 잔을 비웠다.

“그래, 나랏일 하니 어떠오.”

공무원이 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었지만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던 적 또한 없었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공무를 맡아볼 사람이 필요하고 공무원은 그 일을 직업으로 삼은 직업인이라고 여겨왔다. 그래서 가끔은 공무원들의 업무뿐 아니라 사생활에까지 가해지는 유독 높은 기준치와 손가락질, 이를테면 과도한 친절이라든가 엄격한 도덕성 같은 것들에 대한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왔다.

일반 대중과 언론이 공무원들에게 내비치는 공공연한 적개심에 대해서도 억울한 마음을 가져왔다. 면사무소를 찾은 사람들은 부러 소리를 질러가며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 통에 일을 할 수가 없어 자제시키려

할 때마다 “저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여기서 이러세요.”라는 말을 하게 됐고 그 때마다 그들은 “그럼 나라 욕을 여기서 하지 어디서 하느냐”고 분해했다. 한바탕 소동이 일 때면 내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기분이었다. 억울하고 무력했다.

“면사무소 직원이 나랏일이랄 거까지 있나요. 위에서 시키는 일 하는 거죠 뭐.”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웃고 싶었으나 웃어지지 않았던 건지 모를, 웃음보다는 호흡에 가까웠던 무엇을 내뱉으며 임창목이 내 잔을 채워 주었다. 소주병을 쥔 그의 손이 내게 가까이 왔을 때 사람보다 큰 무엇이 오는 것만 같았다. 그가 술병을 기울여 내 앞에 놓인 잔을 채우는 동안 세월보다 큰 말들이 내 안에 쌓이고 있었다.

“부탁 하나 해도 되겠소.”

거절할 수 없을 것이었다.

“예, 그러시죠.”

답하며 그의 잔을 채워주었다.

“위에 있는 자들, 그 높은 양반들이 누군지, 그들이 선생에게 시키는 게 뭔지, 어쩌서 그런 걸 시키는 건지…….”

말은 이어지지 않았고 임창목과 나는 오래 눈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 안에 너무나도 많은 말들이 담겨있었다. 골라내고 있는 걸까. 망설이는 그에게서 아주 잠깐, 죽어가던 개 옆에서 작은 아이처럼 앉아있던 그때의 모습이 비쳤다.

“그런 것들을 유념하라는 말씀이세요?”

임창목이 검은 개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모르겠소.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나는 그냥 선생이…… 자신이

무얼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어주었으면 해서. 나라 없이 살아온 늙은이가 하는 술주정이었다 생각하면 될 듯하오.”

나 역시 오늘 이 집에 다시 온 이유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르신. 저도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밥그릇을 비운 개가 뒷마루 아래 자리를 잡고 앞발을 모아 그 위에 턱을 괴고 누웠다. 임창목이 달걀노른자를 떼어주자 받아먹었다.

“이틀 뒤에 제가 이 집을 빌리고 싶습니다.”

개의 검은 목덜미를 쓸어내리는 노인의 손마디가 오래 산 나무의 옹이 같았다.

“좋을 것 없는 곳이오.”

“술향이 좋습니다.”

산새는 모두 돌아왔고 마당에 누웠던 그림자는 다시 제 몸으로 돌아갔다. 자신이 돌아온 이유를 새들은 알고 있을까. 그림자를 거둔 소나무는 내일 아침 다시 그림자를 키워낼 것을 알고 있을까.

두 개의 잔에 다시 술이 채워졌다.



2022년 공직문학상

동시

손거울 세개

담쟁이덩굴

달

수저 보름달

소풍



외할머니 다녀가신
빈 방구석에
외로이 놓여있던
낡은 손거울

뒷면 글씨 닳고 닳아
보이지 않는
외할머니 손때 묻은
그 거울을

들여다보던 엄마 눈에
눈물이 글썽
텅달아 나도
눈물이 글썽

엄마도 엄마의 엄마가
보고 싶구나

엄마 물건 정리하다
 손거울 보았다
 까만 바탕 빨간 테두리
 둥근 손거울

어디에 둘까
 망설이다
 외할머니 손거울과
 함께 두었다

외할머니 거울엔 외할머니 얼굴
 엄마 거울엔 엄마 얼굴
 서로 마주 보며
 웃고 있겠지

슬그머니 내 손거울도
 함께 두었다.





식물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다

초록초록 잎을
망토로 두르고

연두연두 발을
개구리처럼 뻗어

꼬불꼬불 길을
해님처럼 찾아서

살금살금 빨판을
청진기같이 대며

나무와 함께
쑥쑥 오른다



푸르뎡뎡한
솔가지에 찢린
어설픈 달

내 마음 같다





추석날

할머니 집에 모여

수저를 놓아요

아빠 수저 옆엔

할머니 수저

엄마 수저 옆엔

할아버지 수저

내 수저 옆엔

사촌 오빠 수저

고모 수저 옆엔

고모부 수저

앞은행이 상에

모두 모여 앉아

둥그런 보름달이 되었습니다.

참 맛있는 보름달



가방을 찢다 풀었다
순서가 바뀌어 가는 사탕과 과자들

창틈으로 보이는 먹구름

내 마음은 솟갸정이 되어
엄마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엄마가 깨우는 소리에
후다닥 대청마루로 달려 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나는 첩퍼덕 주저앉아 울었다



2022년 공직문학상

동화

비밀 친구

생일날 온 특별한 편지

사라져, 압!

진실 게임



3월 1일 일요일. 해 짱짱.

밀아, 안녕! 너 나의 비밀 친구니깐 줄여서 '밀리' 라고 할게. 너도 괜찮지. 이모와 함께 간 마트에서 널 처음 본 순간 맘에 쏙 들었어. 표지에 그려진 하얀 고양이도 예뻐고, 손에 쏙 잡히는 크기도 좋았어. 무엇보다도 너에 달린 반짝이는 자물쇠! 난 결심했어. 비밀 일기를 쓰기로 말이야. 나도 이제 나만의 비밀을 가질 나이가 되었어.

아침, 내 소개를 안 했네. 난 강민정이야. 10살이고 고사리초등학교에 다녀.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살아. 아빠는 집처럼 큰 농기계를 고쳐. 그래서 늘 바빠. 우리 동네에 있는 기계들을 모두 고쳐야 하거든. 할머니는 잔소리쟁이야. 어디 안 아픈 데가 없다면서 잔소리를 시작하면 멈추지를 않아.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귀가 따가울 정도야.

밀아. 난 내일이 무척 기대 돼. 너에게 처음 말하는 건데, 나 좋아하는 아이와 같은 반 됐다. 너무 떨려! 그 아이와 짝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밀아, 행운을 빌어줘. 할머니가 또 부르셔. 이젠 정말 자야겠어. 잘 자, 내 비밀 친구야.

“출다! 옷 바꿔 입어라!”

할머니가 뺨 고향을 치셨다. 그래도 난 바꿔 입지 않았다.

“조그만 게, 누구 닮아 저래 고집이 세노. 얼어 죽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할머니는 콧잔등을 잔뜩 찡그리고는 부엌으로 나가셨다. 치,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데, 좀 추우면 어때. 난 이 원피스가 좋다. 예쁜 자주색도 좋고 가운데 그려진 태양 얼굴도 좋다. 삐죽삐죽 뺨은 노란 햇살과 빨려들 것 같은 검은 눈, 그리고 붉은 입술 까지! 사람들의 눈을 확 끌만큼 멋있다. 이 옷을 입으면 나도 멋있어진 기분이 든다.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다. 우리 학교에 딱 두 명밖에 없는 귀한 남자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이 말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으흠!” 선생님도 멋쩍으셨는지 헛기침을 했다.

“자, 짝부터 정해 볼까. 남자는 뒷문 쪽에, 여자는 창가 쪽에 키 순서대로 서 보자. 짝은 한 학기에 한 번씩만 바꿀 거야.”

남자 줄을 힐끔 보았다. 영준이는 여덟 번째쯤 되어 보였다. 난 슬그머니 가영이, 은지 뒤에 가서 섰다. 은지 뒤에 있던 아이가 나를 뺨히 봤다. 나도 안다, 내가 좀 작다는 거. 그래서 뭐?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 못 본 체하며 계속 서 있었다.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폈다.

“네가 좀 작네. 너랑 자리 바꿔라.”

화단에서 쑥 뽑힌 잡초처럼 난 커다란 선생님 손에 쑥 뽑혀 앞쪽으로 옮겨졌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짝인 아이는 남보라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얼굴이 까매서인지, 눈의 흰자위가 유달리 하얗다. 어쩐지 좀 낯설었다. 영준이는 나와 두 줄이나

떨어진 곳에 앉았다. 영준이와 짝이 된 아이가 너무너무 부러웠다.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난 얼굴을 찌푸리며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다. 초록 안경을 낀, 남자아이가 나를 보며 하하하 웃었다.

“너희 둘, 완전 천생연분이네.”

“뭐? 너 뭐라고 했어?”

난 기분이 팍 상해 그 애를 노려보았다. 초록 안경이 말했다.

“너 웃 그림, 너 짝이 태양이잖아, 이태양. 너희 둘 완전 천생연분이네!”

난 짝을 봤다. 짝은 초록 안경을 보며 웃고 있었다. 재 뭐야? 지금 웃음이 나와. 아무튼 영준이가 보기 전에 저 초록 안경의 입을 막아야 했다.

“야, 놀리지 마라. 선생님에게 이른다.”

난 초록 안경을 보고 무섭게 말했다. 하지만 그 녀석은 더 날뛰었다.

“3학년 4반, 태양 커플 탄생! 뚜둔 툼 뚜둔~.”

아이들이 킁킁 웃었다. 난 영준이를 봤다. 영준이도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난 책상에 엎드려 엉엉 울어버렸다.

잠시 후 선생님이 부르셨다. 나는 또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웃인데, 이제 이 웃 못 입겠어요!”

선생님이 불쌍한 눈으로 나를 보셨다.

“선생님 짝 바꿔주시면 안 돼요?”

“참 예쁜 웃인데, 못 입으면 되나. 다시는 못 놀리게 선생님이 혼내줄게.”

선생님은 나를 보며 병긋 웃으셨다. 그리고는 책을 내미셨다. 그림책이었다.

“민경아, 태양이가 아직 한글을 모른다. 독서 시간에 네가 책 좀 읽어 줘라. 부탁한다.”

선생님은 힘을 잔뜩 준 눈으로 나를 보았다. 꼭 ‘태양이를 너에게

맡기니, 네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이젠 아닌데…….

난 짝 바뀌달라는 말을 더는 하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왔다. 선생님이 부탁하시니 안 할 수도 없고.

3월 2일 월요일. 흐림.

밀아, 오늘 완전 망했어. 그 초록 안경 정말 싫어! 짝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놀리는데, 웃기만 하는 거 있지.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 그리고 태양이는 한글도 몰라. 정말 짜증나! 가영이가 1학년 때, 태양이랑 같은 반이었대. 태양이 엄마가 베트남에서 오셔서, 태양이가 아직 한글을 못 배웠을 거라고 했어.

그래도 왜 내가 책 읽어줘야 하냐고, 영준이면 몰라도.

어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 걸까? ㅠㅠ

이렇게 포기할 수 없어. 방법이 있을 거야. 밀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다음 날, 나는 태양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그림책을 짹 폈다.

“내가 읽을 테니깐 따라 읽어.”

태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긋 웃었다. 한 권을 다 읽고 나니 독서 시간이 끝나는 종이 올랐다. 책상에는 내가 읽으려던 책이 놓여 있었다. 책도 못 읽고, 흠 한숨이 나왔다. 선생님이 나가시자, 초록 안경이 태양이에게 왔다. 무슨 장난을 또 치려고. 난 초록 안경을 보며 눈을 흘겼다.

“오, 김태양, 너 시계 샀냐?”

“응, 어제 엄마가 사줬어. 멋지지!”

태양이는 손목을 들어 올렸다. 시계와 줄이 모두 하얀 동그란 전자

시계였다. 가운데는 검은 바탕에 파란 숫자가 깜박였다. 초록 안경은 태양이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한번 껴 보자.”

“안 돼. 이거 하루도 안 지난 거라고!”

태양이는 웃으면서 가슴 쪽으로 양손을 모았다.

“취봐. 한번 껴 보자니깐!”

시계를 잡으려는 초록 안경이 태양이를 덮쳤다. 태양이는 초록 안경을 피해 내 쪽으로 몸을 돌렸고, 순간 거센 파도처럼 아이들이 나에게 밀려왔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난 피할 사이도 없이 아이들에 밀려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 나를 본 태양이의 눈이 탁구공만 해졌다.

“미, 미안해, 괜찮아?”

“이시, 죽을래!”

난 뻥 소리쳤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 모두 나를 봤다. 영준이도.

나는 바닥을 보며 터덜터덜 걸었다. 감기에 걸린 것처럼 힘이 하나도 없었다.

“민경아.”

아빠가 뒤에 있었다.

“학원 갔다 오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빠, 집에 가?”

“그래. 빨리 가서 저녁 먹자. 오늘 할머니가 뭘 해 놓으셨을까?”

아빠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아빠에게 말해볼까? 잘하면 될지도 몰라. 하지만……. 난 똥 마려운 사람처럼 끄끙거리며 말할까 말까 망설였다.

“민경아, 왜? 어디 아파?”

아빠가 뻔히 보았다. 난 말해버렸다. 아빠의 얼굴이 노을처럼 붉어졌다.

3월 3일 화요일. 흐림.

밀아, 아빠에게 짝이 자꾸 괴롭힌다고, 의자에서 밀어서 넘어졌다고 말해버렸어. 사실 태양이가 괴롭힌 건 아닌데, 그래도 태양이와 앓기 싫어.

밀아, 넌 내 마음 알지. 내가 짝을 얼마나 기대했는데.

그리고 있지, 아빠가 변한 것 같아. 맨날 밤늦게 들어왔는데, 요즘 술도 안 마시고 일찍 집에 와. 아빠는 이제 괜찮아진 걸까? 난 아직 안 괜찮은데…….

다음 날 아침, 선생님이 부르셨다.

“민경아, 어제 의자에서 넘어졌다며, 태양이가 너 괴롭혔어?”

나는 아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친 곳은 없어? 그런 일 있으면 선생님에게 말하지? 어제 아빠 전화 받고 알았잖아. 그런데 태양이가 왜 밀었어?”

“몰라요. 그냥 확 밀쳐서 넘어졌어요.”

태양이에게 밀려서 넘어진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 잠시 후 태양이가 선생님에게 불러갔다. 태양이는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그때, 초록 안경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태양이가 민경이 민 거 아니에요. 제가 태양이 밀쳤는데, 그때 민경이도 같이 넘어졌어요. 민경이도 알아요. 제가 민 거.”

“몰랐어. 그때 갑자기 넘어져, 누가 밀었는지 어떻게 알아?”

난 초록 안경을 무섭게 노려봤다. 초록 안경도 어이없다는 듯 나를

봤다.

“그랬구나. 김수영, 교실에서 장난치면 위험한 거 몰라. 하마터면 친구 다칠 뻔했잖아. 앞으로 조심해, 알았지!”

선생님은 초록 안경에게 호통을 치셨다. 그리고 나를 보며 빙그레 웃으셨다.

“민경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다.”

3월 4일 수요일. 날씨 바람이 많이 봄.

밀아, 짹 바꾸기 또 실패했어. 아빠가 전화했는데도 선생님은 짹을 바꿔주지 않으셨어. 진짜 선생님은 안 변하셔.

밀아, 선생님은 알았을까? 내가 거짓말한 거.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찌지? 아이, 진짜! 난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다른 아이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나는 정말 불행한 아이인가 봐.

아빠가 교실로 들어왔다. 교실 뒤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엄마들 사이에 들어가지 않고, 아빠는 뒷문 앞에 섰다. 그 옆에는 태양이 아빠도 있었다.

오늘은 학부모 공개수업 날이다. 우리 반은 이십 년 후의 내 모습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때면 난 서른 살, 어른이 된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디에 살까? 혼자 살까,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했다. 내 앞에 앉은 예서가 발표를 마치고 들어왔다. 다음은 내 차례였다. 난 앞으로 나갔다. 뒤에 서 있는 아빠와 눈이 마주쳤다. 아까 까지만 해도 하나도 안 떨렸는데, 갑자기 가슴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했다. 뭐였더라? 시작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뭐지, 뭐지? 앞이 막 캄캄해졌다.

“의, 의사가 되어 아, 아픈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난 말을 더듬으며 겨우겨우 발표를 끝냈다. 손바닥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런데 오늘 태양이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태양이의 꿈은 공룡 박사라고 했다. 한글도 모르는 태양이가 공룡 이름을 줄줄이 말했다. 최근 공룡의 뼈에서 뼈세포를 찾았으며, 머지않아 영화처럼 공룡을 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자기는 공룡을 살려내 공룡 파크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3월 6일 금요일. 흐림.

밀아, 나 영준이 안 좋아하기로 했어. 영준이 나쁜 아이야.

오늘 공개수업에 아빠가 왔어. 태양이도 아빠가 왔더라. 그런데 있지 그걸로 아이들이 또 놀렸어. 둘 다 아빠가 왔다며, 또 천생연분이래. 정말 유치해서. 하지 마! 하며 소리를 뻗 질렀어. 그런데 영준이도 같이 놀리는 거야. 진짜 영준이가 그럴 줄 몰랐어. 작년에 내가 얼마나 잘 해줬는데. 이제 영준이 꼴도 보기 싫어.

참, 나 오늘 태양이 발표하는 것 보고 놀랐다. 진짜 공룡 박사처럼 말했어. 발표하는 것 보면 머리는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왜 한글을 모를까?

밀아, 난 공개수업이 싫어. 모두 엄마가 오는데, 나는 아빠가 와야 하니까. 엄마는 오고 싶어도 못 와. 하늘나라는 너무 멀거든.

영켜버린 실타래는 끊어야 풀린다. 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이다. 그날도 그랬다. 뒤에서 가영이와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어제 이것 사주셨다. 예쁘지.”

가영이는 갖가지 보석 모양 스티커를 들고 은지에게 자랑했다.

“와 예쁘다!”

스티커를 본 은지가 눈을 초승달처럼 해서는 감탄했다.

“은지야, 우리 중간 놀이 시간에 이거 가지고 놀자.”

“그래. 예쁘게 그림도 그리자.”

가영이와 은지는 서로를 보며 깔깔깔 웃었다.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아이들이 부르지만 기다렸다. 하지만 부르지 않았다.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배신감이 들었다. 난 별떡 일어나 가영이와 은지에게 갔다.

“야, 너희들은 왜 너희들끼리만 노는데!”

가영이와 은지의 눈이 뚱그려졌다. 너무 놀라, 말을 잊어버렸는지, 아무 말도 못 했다. 나는 아이들을 계속 보고 있기가 이상했다. 돌아서 교실 밖으로 나갔다. 2층 계단을 내려와 운동장으로 갔다.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힘껏 발을 굴렀다. 그네는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랐다 내려왔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간질였다. 시원한 봄바람이 볼을 타고 귀 뒤로 지나갔다. 파란 하늘이 엄마처럼 안아 주는 느낌이 들었다.

3월 9일 월요일 해가 반짝반짝

밀아, 주말에는 일기를 못 썼어. 이모 집에 갔거든. 아직 이모에게 보여주기가 그래서 널 두고 갔어.

밀아, 오늘 가영이, 은지랑 싸웠어. 나만 외톨이가 된 것 같아 너무 속상했어. 나도 알아, 둘이 더 친하다는 거. 그래도 나도 좀 끼워주지.

같이 놀고 싶었는데, 그냥 가서 같이 놀자고 할걸. 화를 내버렸어.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다음 날도 쉬는 시간이면, 달려가 그네를 탔다. 그네를 안 타면 건널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움직이는 그네 위에서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좋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경아, 나도 좀 타자.”

태양이었다. 나는 못 들은 척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민경아, 나 좀 타자. 곧 종 친단 말이야.”

시끄럽게 또 졸라댔다. 눈을 감고 탈 수가 없었다. 입술이 짙근 깨물어졌다. ‘오늘 나 건들지 마라. 저리 가라!’ 난 속으로 말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계속 쪼들거렸다.

“민경아, 선생님이 혼자 타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난 그만 폭발하고 말았다.

“저리 가 한글도 모르는 바보야! 너희 나라로 가버려!”

태양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난 한국인이야.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라고!”

“넌 우리와 달라. 베트남 사람이야!”

“넌 엄마도 없잖아!”

그네에서 내려 태양이에게 달려갔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태양이 가슴을 확 밀쳤다. 태양이가 모랫바닥으로 쓰러졌다. 태양이는 벌떡 일어나 손에 쥔 모래를 나에게 뿌렸다. 눈과 입으로 모래가 쏟아졌다. 아! 눈이 따가웠다. 눈물이 펄펄 났다. 옆 그네를 타고 있던 4학년 언니가 나를 데리고 보건실로 갔다.

안변해 선생님은 송충이 눈썹을 치켜올리고는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셨다. 나는 바닥만 보았다. 태양이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우리 둘은 점심시간 교실에 남아서 책 읽는 벌을 받았다. 창으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교실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책 읽기가 싫어, 나는 가방에서 밀이를 꺼냈다. 옆에 태양이가 있었지만, 한글을 모르니깐 모든 말든 괜찮았다.

3월 10일. 화요일. 맑음.

밀아, 어제 할머니와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버렸어. 자고 있었지만 다 들렸어. 새엄마가 온대. 새엄마가 오면 곧 동생이 태어난대.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쉬시며 말했어.

“새사람이 들어오면 아기도 곧 태어날 낀데, 민경이는 우짤끼고? 자 이모가 민경이 키우고 싶다 안겠나? 그 사람도 혼자 사니깐 좋을지도 안있나?”

“어떻게 그렇게 해요.”

“꼬여버린 실타래는 끊어야 풀리는 뱀이다. 생각해 보라. 민경이에게 뭐가 좋은지?”

밀아, 어제 정말 무서웠어. 어떻게 하지? 난 가기 싫어…….

“너도 여기 떠나기 싫구나.”

태양이었다.

“뭐? 뭐라고 했어? 너 글자 읽을 수 있어?”

나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태양이도 깜짝 놀랐는지 얼굴이 벌게졌다. 나를 똑바로 못 보고 태양이의 까만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였다.

나는 버럭 소리쳤다.

“빨리 말 안 해!”

흠칫 놀라던 태양이가 교실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 엄마, 아빠가 알면 나를 베트남으로 보낼 거야.”

“베트남으로, 왜?”

“아빠가 그랬어. 내가 한글을 다 배우면 우리 가족은 베트남으로 간다고. 베트남이 살기가 더 좋대. 하지만 난 가기 싫어.”

“너 여기 있고 싶어서 한글 모르는 척했어?”

“응”

“베트남이 왜 싫어?”

“그곳에 가면 다시 친구 사귀어야 하잖아. 수영이와 지난 체험학습 가서야 친해졌어. 그전까지는 친구가 없었거든. 또 베트남 말도 배워야 하고. 지금이 좋아. 친구도 있고, 한글도 알고. 너도 좋고!”

“피, 거짓말. 맨날 괴롭혔는데 내가 왜 좋아?”

태양이의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그런 태양이를 보며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아빠, 엄마에게 가기 싫다고 말하지?”

“말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맨날 ‘넌 위해 그러는 거야.’ 하시거든.”

태양이가 자기 이야기를 다 하는 바람에 나도 내 이야기를 다 해버렸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야기. 아빠와 할머니 이야기. 새엄마가 오는 이야기. 은지, 가영이와 싸운 이야기까지…….

이상하다. 이야기를 다 해버리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다.

‘딩동, 딩동’

종이 올렸다. 아이들이 교실로 우르르 들어왔다.

나는 태양이를 보며 다급하게 말했다.

“우리 둘 다 비밀이다.”

“응”

밀아, 오늘은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아. 태양이 비밀을 알게 되었어. 웃기만 하는 바보, 나무늘보인 줄 알았는데, 엉큼한 여우였어. 어떻게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서 모른다고 할 수 있어? 아침 시간에 나만 목 아파게 고생했어. 어쩐지 공룡 이름도 척척 다 알고, 수상하다 했어. 거짓말쟁이, 사기꾼, 나무늘보, 여우. 하지만 불쌍하기도 해. 베트남에 가면 어렵게 사귀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고, 또 모든 걸 다시 다 배워야 하잖아. 엄마, 아빠에게 가기 싫다고 말하지. 바보처럼, 말도 못 하고. 말 못 한 건 나도 똑같네. 바보처럼……

4월이 되었다. 새엄마가 왔다. 나는 새엄마와 함께 매일 아침 등교를 한다.

“썬 짜오(Xin chào)”

태양이가 베트남 말로 인사했다. ‘썬 짜오’는 베트남 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이란 다. 요즘 태양이는 베트남 가는 대신 엄마에게 베트남 말을 배운다. 바보처럼 웃지 말라고 말을 해도 태양이는 또 웃는다. 태양처럼 밝게.

태양이와 난 친구가 되었다. ‘밀이’처럼 비밀까지 말하는 그런 친구.



“맴맴, 맴맴. 맴맴, 맴에에에.”

한여름 뜨거운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떠오르자, 가로수에 붙은 매미들이 제 세상을 만난 양 시끄럽게 울어댔다. 귓가에서 우는 것처럼 우렁찬 소리에 머리가 다 지끈지끈 아파 왔다.

“아이 씨,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시끄럽게 난리야.”

나는 치밀어 오르는 짜증을 참지 못하고 애꿎은 가로수를 발로 뺑 차 보았지만, 도무지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

매미의 울음소리는 꼭 내 동생의 울음소리 같았다. 시끄럽고, 짜증나고, 듣는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놓는다. 아니, 엄마한테만큼은 예외일까. 엄마는 동생의 말매미 같은 울음소리마저도 예쁘다고 하셨으니까.

작년 가을, 아홉 살이나 차이가 나는 늦둥이 동생이 태어난 이후로 엄마 눈에는 동생만 보이는 것 같았다.

그전까지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했던 엄마였는데, 이제는 동생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고, 나한테는 매일 짜증만 내면서 동생만 보면 눈에서 꿀이 똑똑 떨어졌다.

그래, 여기까지는 나도 엄마를 용서할 수 있었다. 나는 엄마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오늘은 정말 엄마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오늘은 내 열한 번째 생일이었다. 생일은 일 년에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날이니까, 나만을 위한 날이어야 하고, 엄마가 작년에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엄마는 ‘약속’은 커녕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았다.

아침 반찬은 평소처럼 밥과 달걀 장조림, 참치 통조림이었고, 밥을 대충 먹고 열 시가 가까워지자 엄마는 나를 재촉하기 시작했다.

“김나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영어학원 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아직 그러고 있어?”

“엄마. 나 오늘도 학원 가야 해요?”

“애가 지금 무슨 소리야. 학원비가 얼마데.”

“하지만 작년에 약속했잖아요. 오늘 바다 데려가 준다고.”

“뭐? 엄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너 학원 가기 싫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냐?”

다짜고짜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야속한 엄마의 대답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비죽비죽 솟아올랐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에 엄마가 약속했잖아요.”

“또, 또. 울지 말고 말하라고 몇 번이나 말해. 바다는 주말에 아빠 쉬시면 가든가 하고, 일단 학원부터 가.”

나는 엄마의 등쌀에 어깨에 가방을 메고 집 밖으로 나왔다.

“엄마는 바보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작년에는 안 이랬는데.”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행복했던 작년 내 생일날을 떠올렸다.

작년 내 생일날도 오늘처럼 몹시 더웠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찜통더위 속에도 엄마는 남산만큼 부른 배를 부여잡고 아침 일찍 장을 봐서 내 생일상을 차려 주셨다.

생일선물로는 무엇을 받고 싶냐는 아빠의 물음에 나는 바다가 보고 싶다고 했고,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우리 세 가족은 강릉을 향해 출발했다.

길이 막혀서 늘 다니던 시간보다 두 배는 더 걸려 도착했지만, 들뜬 마음 덕분이었는지 평소 나를 괴롭히던 멀미도 그날만큼은 잠잠했다.

아빠와 나는 발바닥이 벗겨질 것처럼 뜨거운 모래사장 위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모래성을 쌓았고, 엄마는 근처 카페에 앉아 우리를 보며 행복하게 웃고 계셨다.

여름의 긴 해가 다 저물 정도로 늦은 시간이 되자 아빠와 엄마는 그만 집에 가자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쉬운 마음에 조금만 더 놀다 가자며 아빠와 엄마를 졸랐다.

“엄마, 아빠. 진짜 조금만 더요.”

“나윤아. 시간이 너무 늦었어. 아빠는 내일 출근도 하셔야 하는 걸.”

“진짜 조금만. 응?”

“그러지 말고, 내년 생일 때 또 오자. 동생 태어나면 동생이랑 다 같이.”

“싫어. 엄마는 맨날 깜빡 잊어버리잖아요.”

“아냐, 이번에는 엄마가 꼭 기억하고 있을게.”

“거짓말. 그냥 오늘 더 놀다 가요. 아빠, 더 놀다 가요. 네?”

“애가 진짜. 여보, 안 된다고 해요. 얼른.”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아빠는 난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모녀의 따가운 눈빛을 피해 저 멀리서 시선을 돌렸다. 그때 아빠의 시야에 빨간 우체통이 하나 들어왔다.

“어? 느린 우체통이 여기에도 있네?”

“느린 우체통? 그게 뭐예요?”

“응. 저건 그냥 우체통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넣으면 일 년 정도 뒤에 편지를 배달해 주는 우체통이야.”

“우와.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 여보, 나윤아.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느린 우체통에 편지를 써볼까? 나윤이는 오늘 엄마랑 한 약속도 쓰고, 아빠랑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도 쓰고 해보자. 아빠랑 엄마도 나윤이한테 편지를 쓸게. 그럼 내년 나윤이 생일쯤에 편지가 올 테니 오늘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아빠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나는, 생일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우편함을 열어보며 편지를 기다렸다. 그러나 올해 내 생일 무렵이면 온다던 편지는 생일 당일인 오늘까지도 오지 않았다. 오늘이 지나고 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말이다.

“엄마는 진짜 나빴어. 맨날 약속도 까먹고. 아빠도 거짓말쟁이야. 온다는 편지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나는 서러움에 뽕뽕 솟아오르는 눈물을 소맷부리로 짊어내며 아파트 현관으로 나왔다. 습관처럼 우편함으로 눈이 갔다. 아침에 집배원 아저씨가 다녀가셨는지 집집마다 편지가 꽂혀 있었다.

‘오늘이야말로 편지가 왔을지 몰라.’

나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대를 하며 우리 집 우편함을 열었다. 손을 넣어 보니 대여섯 장 정도 되는 종이들이 손에 잡혔다.

“어디 보자. 관리비 고지서, 이건 아빠한테 온 편지네. 어?”

두 장의 편지를 넘기고 나니 강릉 바다가 그려진 엽서가 나왔다. 정확히 세 장. 작년에 엄마와 아빠와 함께 썼던 편지였다. 나는 기쁨에 가득 차 속으로 만세를 불렀다.

‘엄마랑 아빠가 나한테 써주신 편지는 이따 따로 읽고, 내가 쓴 편지는 엄마한테 여기 증거가 있소이다. 하면서 드려야지. 히히. 그럼 엄마도 꼼짝 못 하시겠지?’

나는 가방 안에 편지 두 장을 잘 챙겨 넣고, 나머지 편지들과 내가 썼던 편지를 손에 쥐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올라갔다.

- 퍽, 피리릭 -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동생은 아기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엄마는 안방에서 이모와 전화를 하고 계신 듯했다. 살짝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정말 그렇더라니까. 다들 둘째는 첫째랑 또 다르다고 해서 설마 했는데, 진짜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뭐야. 첫째 때는 나도 어리고, 애들 아빠도 어리고 해서 애가 예쁜 줄도 모르고 그냥 막 키웠는데. 둘째는 얼마나 예쁘지 모르겠어. 울음소리까지 다 예뻐, 호호호.”

엄마는 내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아휴, 나윤이? 말도 마. 작년까지는 안 그러던 애가 요새는 사춘기가 왔는지 말도 안 듣고 얼마나 뻘질거리는지 몰라. 아까도 학원 갈 준비도 안 하고 뭉그적거리는데, 속 터져서 정말.”

난생처음 들어보는 엄마의 속마음에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세계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멎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한참 동안 그 방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자니, 전화를 끊고서야 비로소 인기척을 느낀 엄마가 거실로 나오셨다.

“어머. 나윤아, 너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여태 여기 있어?”

“아니, 편지가 와서 전해드리려고 올라왔어요.”

“지금 편지가 중요하니. 식탁 위에 올려놓고 얼른 뛰어서 가.”

“네...”

나는 식탁 위에 주춤주춤 편지를 올려두고 어색한 걸음으로 집을 나왔다. 드라마에 나오는 ‘우연히 엄청난 비밀을 듣게 된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공동 현관을 지나 아파트 정문을 나올 때까지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엄마가 사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세상이 온통 조각조각 나서 와르르 무너지는 듯했지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어쨌거나 영어학원에 가야 했다. 학원비가 비싸니까.

나는 하릴없이 영어학원을 향해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가로수에 붙은 매미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오늘따라 더 시끄럽게 울어 대고 있었다.

길을 아무리 걸어도, 애꿎은 나무를 걷어차며 화풀이를 해봐도 속상한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십 분 정도를 걸어 학원 문 앞에 도착했지만, 도무지 들어갈 마음이 들지 않았다. 나는 학원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왔던 방향으로 다시 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속상한 마음이 커지고 커지다 못해 급기야는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고 말았다.

“엄마는 진짜 나뻐어. 속 터지게 하는 나는 사라져 드릴 테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둘째랑 잘 지내보시라지. 그래도 아빠는 나를 제일 사랑

한뎃으니까, 내가 사라지면 아빠는 슬퍼하시겠지? 그럼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니까 아빠가 슬퍼하는 걸 보면 엄마도 슬퍼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을걸.”

극단적이고 슬픈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때마다 눈물 콧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나는 이제 엄마도 아빠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사라져 버릴 예정이다.

어디로 가야 할까, 민영이네 집? 아냐. 민영이 핸드폰 번호는 엄마가 알고 계시는데. 엄마가 모르는 친구가 누가 있지. 올해 새로 사귄 소희는 어떨까. 아냐, 소희는 아직 그만큼 친하지는 않은데.

친구네 집으로 가자니 마땅한 곳이 없었다. 어디에 숨어야 아무도 찾지 못할까 고민하던 그때, 머릿속에 나만 알고 있는 비밀장소가 떠올랐다.

우리 아파트 뒤편 야산에는 작은 느티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나는 그 나무를 참 좋아했다.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에서 제제가 밍기뉴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 나무는 인적이 드문 곳에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나무여서 크게 눈에 띄지도 않고,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으니까 부모님도 전혀 모르실 것이다.

숨을 곳을 정한 나는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산 위로 올라갔다.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쩌나 조마조마했지만, 평일이라 그런지 여름 한낮의 오후라 그런지 길에도, 산에도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에 땀이 뻘뻘 나서 등 뒤가 흠뻑 젖을 때쯤 나는 느티나무 아래에 도착했다.

산을 오르느라 시간이 꽤 지났으니 지금쯤이면 학원에서 엄마께 전화를

드렸을 것이다. 이제 엄마도 내가 학원에 빠진 걸 아셨겠지. 화를 내실까, 걱정을 하실까, 어쩌면 동생을 보느라 바빠서 신경도 안 쓰실지 몰라.

나는 슬며시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핸드폰 잠금화면을 풀었다. 부재중 전화가 세 통이나 와 있었고, 카톡도 여러 건 와 있었다. 전부 다 엄마였다.

나윤이 너 어디야?

학원은 왜 안 갔어?

너 정말 이럴래!

진짜 들어오기만 해봐. 가만 안 댈.

아, 화를 내시는구나. 아무런 연락도 안 와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전화랑 카톡이 와 있는 걸 보니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흥, 엄마가 아무리 화내도 나는 못 찾을걸.”

나는 엄마를 골탕 먹이고 있다는 생각에 통쾌함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히죽히죽 웃으며 느티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았다. 바닥에 털썩 앉고 나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리고 보니 아침도 제대로 안 먹고 나왔구나.

한 번 배가 고프다고 의식하고 나니, 허기가 견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뭐라도 먹을 게 없을까 싶어 가방을 여니 편지 두 장이 눈에 들어왔다.

아까 나오기 전에 챙겨 넣었던 엄마와 아빠가 써주신 ‘느린 편지’였다.

“그냥 먹을 거나 챙겨 나올걸.”

나는 입이 한 발은 나와 투덜땄지만, 엄마와 아빠가 뭐라고 써주셨을까 궁금한 마음에 편지를 집어 들었다. 두 장 중에 먼저 잡히는 한 장을 들어 뒤집자 아빠의 글씨체가 보였다.

나운아,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증인이다.

엄마 이지영은 딸 김나운을

내년 김나운의 생일날에 바다에 데리고 가준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아빠 김종훈의 용돈을 10퍼센트 인상한다.

평소 장난을 많이 치시는 아빠답게 장난스러운 문구로 편지가 쓰여 있었다. 나는 속상했던 것도 잠깐 잊고 킁, 웃음을 터트렸다. 그다음은 엄마의 편지였다.

나운아, 엄마야.

오늘 행복한 생일날이 되었을지 모르겠다.

엄마는 오늘 하루 나운이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나운아, 이제 곧 동생이 태어나는데,

그럼 엄마랑 아빠가 무척 바빠질 거야. 아기는 손이 많이 가거든.

혹시 나운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줄지도 몰라.

그래도 너무 서운해하면 안 돼.

엄마의 첫사랑은 누가 뭐래도 김나운, 우리 첫째 딸이니까.

엄마가 항상 사랑한다는 걸 잊지마.

내년 생일 때는 동생이랑 넷이 또 오자. 사랑해, 우리 딸.

나운이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 엄마가

나는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아서 눈을 깜빡거리며 애써 눈물을 참았다.
‘엄마도 참.’

그동안 쌓이고 쌓여 딱딱해진 서운함과 원망이, 조금은 말랑말랑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제 엄마가 또 전화하시면 받아줘야지.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아셨을 테니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 못 이기는 척 받아드려야겠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으니 산을 오르느라 쌓인 피로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나는 가물가물 감겨오는 눈꺼풀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르륵 잠이 들고 말았다.

찬 기운을 실은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화들짝 놀라 일어나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주위가 온통 어둠으로 덮여있었다.

“뭐야, 지금 몇 시지?”

나는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려 했지만, 핸드폰은 배터리가 다 돼서 꺼졌는지, 전원을 아무리 눌러봐도 반응이 없었다.

밤이 되니 기온이 급격히 뚝 떨어져서, 반팔 티셔츠를 입어 드러난 팔에는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어떻게든 산에서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로 더듬더듬 땅을 짚으며 이동을 하려던 그 때, 어둠 속에서 한 쌍의 안광이 번득였다.

“으아악. 으아악.”

“엄마야.”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로 우는 커다란 짐승 앞에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다.

“너 뭐야, 저리 가아아.”

나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고, 내가 놀란 만큼 정체 모를 짐승도 놀랐던지 경중경중 뛰어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이 쿵쥔대고 몸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다.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서 다시 느티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엄마랑 아빠는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실 텐데. 나 이제 어떻게 해.’ 하루종일 흘렸는데도 마르지 않았는지, 눈물이 또 왈칵 쏟아지려고 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나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잊은 채 불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불빛이 점차 내 쪽으로 다가왔고, 가까이 오자 그 불빛의 정체는 우리 엄마와 아빠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엄마아, 아빠아.”

나는 마음이 탁 놓여 그만 엉엉 울고 말았다.

“나윤아. 아이고, 우리 딸. 많이 놀랐지. 이제 엄마랑 아빠가 왔으니까 괜찮아.”

가까이 다가온 엄마가 나를 끌어안고 도닥여 주셨다. 따뜻한 엄마의 품에 안기자 내 마음속에 말랑말랑해진 채로 남아 있던 서운함과 원망이 흐물흐물 사라지는 것 같았다.

“엄마가 우리 나윤이 생일인 걸 깜빡해서 진짜 진짜 미안해.”

“아빠도 진짜 진짜 미안해.”

산을 내려가면서 엄마와 아빠는 계속 사과를 하셨다.

“이제 됐어요. 엄마는 진짜. 꼭 기억한다고 했으면서.”

“그러게 말야. 엄마가 이렇게 정신이 없다. 나윤이가 좀 봐줘.”

“그래도 아빠 말대로 편지를 쓰길 잘했지? 안 그랬으면 나윤이 생일도 그냥 지나가 버릴 뻔 했잖아.”

“흥, 아빠도 제 생일을 잊어버린 건 똑같잖아요. 아빠도 미워. 그나저나
엄마는 내가 여기에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야 당연히 엄마는 네가 좋아하는 건 전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엄마는 엄마잖아.”

“치이~. 나 아까 엄마가 하는 얘기 다 들었거든요? 동생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나는 말도 안 듣고 해서 속 터진다고.”

“아냐. 동생이 예쁘기는 정말 예쁜데..., 엄마 첫사랑은 우리 나윤이야.
엄마는 나윤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진짜요?”

“그럼. 그리고 솔직히 말은 좀 잘 듣자. 딸.”

“뭐예요. 엄마도 참.”

“저기, 나윤아. 올해는 조금 늦기는 했는데, 생일선물로 뭐 받고 싶어?”
아빠가 엄마와 나의 대화 사이에 멧쩍게 끼며 물어보셨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일 바다 보러 가고 싶어요. 이번에는 동생이랑 넷이요.”

“하하. 알았어. 내일은 꼭 바다에 데리고 갈게.”

아빠의 약속에 나는 마음속으로 작게 다짐을 했다. 내일도 바다에 가면
느린 우체통에 편지를 써야지. 내년의 김나윤을 위해서 말이다.



“으악, 엄마! 이게 뭐예요?”

“응? 뭐? 아, 이거 너무 귀엽지? 엄마가 어제 사진 정리하다가 찾았지 뭐야. 이게 아마 너 다섯 살 때인가?”

축구 경기 결과를 보려고 엄마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배경 화면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사진 속 나는 분홍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고 그 뒤로는 내 머리카락을 이쪽저쪽 묶고 있는 바쁜 손이 보인다. 엄마 눈에는 뭐든 귀엽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나는 남자인데 왜 여자 옷을 입고 머리에 핀을 달고 있난 말이다! 이게 다 미용실 놀이를 좋아하던 누나 때문이다.

“엄마, 나도 형아 낳아주세요. 나는 정말 형이 좋아요. 승우는 형이랑 매일 축구도 같이 하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난 누나 때문에 어릴 때도 인형 놀이, 미용실 놀이만 했다고요.”

“아이고, 요 녀석아! 이 나이에 엄마더러 또 애를 낳으라고? 지금 엄마가 아들을 낳아도 그건 형이 아니라 네 동생이다. 동생! 하하하”

아차차, 그렇구나. 지금 낳아도 형은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어찌면 이렇게 머리가 나쁜 건지.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매번 누나한테 당하기만 하지.

“어머, 벌써 12시네. 애들아, 점심은 뭐 먹을래?”

나는 엉덩이를 들썩이며 크게 외쳤다.

“엄마, 나는 냉면이요! 시원한 물냉면!”

“흥, 냉면은 무슨 냉면? 엄마 난 떡볶이! 난 무조건 떡볶이!”

문을 벌컥 열며 누나가 나온다. 역시 우리 누나는 늘 제멋대로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떡볶이라니. 누나 말로는 이런 날씨에 뜨겁고 매운 떡볶이를 먹어서 이열치열을 해야 한다는데 이열치열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말이 되난 말이다.

엄마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내 귀에 대고 귓속말을 하셨다.

“민석아, 우리 떡볶이 먹어야겠다. 엄마가 저녁에는 꼭 물냉면 해줄게, 알았지?”

“치, 알았어요. 그 대신 저녁에는 꼭 물냉면이에요.”

엄마는 방긋 웃으며 말없이 나를 안아주셨다. 한참 냉장고를 뒤적여 재료를 꺼내시던 엄마는 대파가 없다며 누나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신다. 엄마와 눈이 마주친 누나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천장만 본다. 아, 웬지 내가 나서야 할 것 같다.

“엄마, 내가 대파 사 올까요?”

“정말? 엄마는 우리 민석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누나는 멧쩍은 표정으로 입을 삐죽이며 방으로 들어간다. 나는 누나 뒤통수에 메롱 혀를 내밀었다.

우리 집에서 단지 입구에 있는 마트까지는 계속 내리막이다. 그래서 갈 때는 신나게 갈 수 있는데 올 때는 죽을 맛이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오르막 댐 끝에 있는 아파트를 골랐는지 모르겠다.

“붕지 필요하지? 그런데 대파만 사는 거니? 다른 건 필요 없고?”

“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사실,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싶은데 내가 빨리 가야 엄마가 얼른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참아야 한다. 내 몸통만큼 키가 큰 대파를 노란 봉지에 넣고 헉헉거리며 오르막을 오르다 보니 갑자기 누나 얼굴이 떠오른다. 사실, 떡볶이는 누나가 먹자고 한 건데.

“에잇, 진짜 맘에 안 들어!”

길가에 작은 돌멩이를 뺨 찼더니 땡 하며 다시 튕겨 나온다. 놀라서 올려다보니 누런 종이상자가 가득 담긴 손수레가 보인다. 상자가 얼마나 가득 쌓였는지 끌고 가는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런데 이상하다. 손수레가 오르막에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다. 옆을 지나가다 보니 하얀 모자를 쓴 할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며 손잡이를 잡고 계시는데 팔을 부들부들 떠신다. 아, 너무 무거워서 못 올라가신 거구나!

“할아버지,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까요?”

“어? 뭐라고?”

할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리시나 보다. 나는 힘을 주어 큰 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잠깐만요.”

나는 대파 봉지 손잡이를 왼쪽 손목에 딱 끼우고 양손을 손수레 뒷면에 갖다 댔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손수레를 밀었다. 손수레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밀어도 내 발이 오히려 뒤로 밀리는 것 같다. 한 번 더! 영차! 손수레 바퀴가 살짝 움직이는가 싶더니 이제 제법 굴러간다. 끙끙거리며 밀다가 오르막을 다 올라와 멈춰 섰다. 땀방울이 이마에서 부터 목을 타고 주르르 흐른다. 할아버지는 ‘휴~’ 깊게 숨을 내쉬더니 땀범벅이 된 나를 보며 싱긋 웃으신다. 그리고 손수레 끝에 매달아 놓은

검은 봉지에서 주섬주섬 비타민 음료를 꺼내 주신다. 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드세요. 저는 집이 바로 여기인걸요. 집에 가서 물마시면 돼요.”

내 얼굴을 가만히 보시던 할아버지는 검은 봉지를 다시 뒤적거리시더니 작은 연두색 공책을 꺼내셨다.

“애야, 너라면 이 공책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구나. 꼭 필요할 때만 써야 한다.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나는 공책을 받아 들고 아파트 입구로 뛰었다. 입구에 다 와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되돌아보니 할아버지와 손수레가 안 보인다. 어, 어디로 가셨지? 잠시 생각하다가 계단을 올라갔다.

엄마에게 대파를 건네고 물 한 컵을 벌컥벌컥 마신 후, 선풍기를 강풍으로 틀고 소파에 벌러덩 누웠다. 아, 시원하다! 참, 공책! 손 씻느라 거실 테이블에 던져두었던 연두색 공책을 집어 들었다. 이렇게 얇은 공책도 있나? 누가 쓰다가 버린 건가? 공책을 펼치니 작은 종이 한 장이 팔랑 떨어진다. 이게 뭐지? 뒤가 살짝 비치는 반쯤 투명한 종이에 금색 글씨가 적혀있다. 사라지는 마법의 공책 사용설명서? 어, 이게 뭐야! 나는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사라지는 마법의 공책 사용설명서〉

1. 아무도 없는 곳에서 써야 합니다.
2. 소원은 한 장에 하나만, 내용은 간단하고 정확하게 쓰세요.
3. 마지막에 ‘사라져, 압!’이라는 주문은 꼭 빨간색으로 쓰세요.

이거 진짜인가? 공책을 앞뒤로 살펴봐도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다. 다만 종이가 달랑 세 장뿐이라는 게 이상했다. 공책 속의 종이 앞면은 옅은 은색이었고, 뒷면은 까만 색이었다. 글씨는 앞면에만 쓰라는 거 같았다. 진짜 되는 건가? 나는 얼른 방으로 뛰어가 필통을 뒤져 보았다. 실험해보려면 빨간색 펜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어찌지? 그래!

늘 잠겨있는 누나 방 문을 푹푹 두드렸다. 그리고 약간 귀여운 목소리로 누나를 불렀다.

“누나, 누나~ 나 빨간색 펜 좀 빌려주라.”

잠시 후, 딸깍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나가 냄새 나는 쓰레기통을 문밖으로 내민다.

“이거 버려주면 빨간색 펜 줄게.”

내가 코를 킁킁대며 빨간색 펜과 쓰레기통을 받아들자 문이 쾅 닫힌다. 으악! 난 정말 누나가 너무 싫다. 매번 이런 식이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부러먹을 생각만 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겁 없이 누나에게 대들다간 머리를 쥐어 박히기 일쑤다. 그러니 이번에도 착한 내가 참아야지.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마법의 공책을 책상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다. 그런데 무엇을 사라지게 할까? 엄마가 싫어하는 바퀴벌레? 아니면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모기? 뭐 만만한 게 없나? 주위를 살펴보다가 누나 방에서 가져온 쓰레기통이 보였다. 그래, 이거다! 나는 책상에 앉아 공책 첫 면을 펴고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래, 재미 삼아 한 번 해보지, 뭐. 간단하고 정확하게 쓰라고 했지?

‘누나가 쓰는 까만 쓰레기통 안에 담겨있는 쓰레기는 모두 사라져라, 사라져, 압!’

빨간색 펜으로 느낌표의 마지막 점을 찍고는 펜 뚜껑을 꼭 닫았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서 누나의 쓰레기통을 쳐다보았다. 아차, 뚜껑이 닫혀있어 바로 확인이 안 된다. 다가가 쓰레기통을 들어보니 아까보다 가볍다. 기분 탓인가? 손가락으로 뚜껑을 슬며시 열어보니 정말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 으악! 나는 깜짝 놀라서 쓰레기통을 던지며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 어, 이거 진짜잖아! 심장이 벌렁벌렁한다. 아, 어떡하지? 이 공책 정말 마법의 공책이었어!

“엄마! 엄마!”

“응, 왜? 우리 착한 아들.”

“엄마, 그러니까 내가 공책을 하나 받았는데.”

“응, 공책이 왜?”

아차, 엄마한테 비밀을 다 말해버릴 뻔했다. 누나가 이 비밀을 우연히 듣기라도 하면 마법의 공책을 뺏길지도 모른다.

“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녀석, 싱겁기는. 1시쯤 떡볶이가 다 되니까 그때까지 방에서 쉬고 있어.”

“네, 엄마.”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가만히 누웠다. 할아버지가 꼭 필요할 때만 쓰라고 하셨는데 실험한다고 쓰레기통을 비우는데 한 번의 기회를 써버리다니! 그것도 누나의 쓰레기통! 정말 울고 싶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정말 착하기만 한 바보다.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데 문이 부서질 듯 세차게 열린다.

“야, 장민석! 쓰레기통을 비웠으면 바로 바로 가져와야지! 바쁜 누나가 여기까지 찾으러 와야겠어? 응?”

누나가 허공에 주먹질하는데 내 몸이 자동으로 움찔한다. 에잇, 짜증

나! 누나는 매일 나한테 시비다. 쓰레기통을 들고 가는 누나 뒷모습을 찰려보다가 번개처럼 번쩍 생각이 스쳤다.

‘그래, 누나를 없애버리자! 저런 못된 누나는 커서도 나쁜 사람이 될 게 분명해. 저런 누나는 이 세상에 없는 게 나아!’

나는 문을 꼭 잠그고 씩씩거리며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마법의 공책을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고 단변에 이렇게 써 내려갔다.

‘나보다 네 살 많고, 나를 항상 괴롭히는 알미운 누나 장민지는 영원히 사라져라, 사라져, 얍!’

빨간색 펜 뚜껑을 팔각 닫는데 갑자기 덜컥 겁이 났다. 정말 누나가 사라졌으면 어떡하지? 등 뒤로 식은땀이 주르륵 흐른다. 순간, 작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생각났다. 까만 한복을 입고 눈이 별경게 붓도록 울던 엄마. 그 뒤로도 외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훌쩍훌쩍 울던 엄마가 생각났다. 그래, 아무리 화가 나도 누나를 사라지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나는 얼른 지우개를 들고 내가 썼던 나쁜 말을 뽁뽁 지웠다. 어, 그런데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연필로 썼는데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후다닥 뛰어 누나 방 문 앞에 섰다. 문고리를 잡고 눈을 질끈 감았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내 귀에 생생히 들리는 것 같다. 덜커덕 덜커덕 손잡이를 내렸지만, 누나의 방문은 열리지 않았다.

“누나! 누나!”

나는 애타게 누나를 부르며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문을 쿵쿵 두드렸다.

“아니, 왜 그래? 누나가 또 놀렸어?”

“그게 아니고 엄마, 부탁인데 누나 방 문 좀 열어주세요.”

“에? 누나가 문 안 열어주니? 민지야? 자니?”

몇 번 문을 두드리던 엄마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거리시며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신다. 그리고 문고리 홈에 동전을 맞추어 넣고는 팔각하고 돌리셨다. 나는 엄마가 문을 열자마자 쟁싸게 누나 방으로 들어갔다. 헉! 누나가 없다. 누나가 아까 입고 있던 옷만 침대 위에 사람 모양처럼 그대로 놓여 있다. 나는 입을 크게 벌린 채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버렸다.

“어머, 애가 문도 잠그고 어딜 갔어? 화장실에 갔나? 민지야, 화장실에 있니?”

엄마가 누나를 찾으러 화장실에 가는 동안, 나는 누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도 열어보고, 책상 서랍도 열어보고, 침대 밑도 살살이 뒤져보았지만, 누나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아, 정말 누나가 사라졌다. 이제 어떡하지?

“민석아, 누나가 어디 간다고 했어? 애가 점심 먹을 때가 다 되었는데 어딜 간 거야?”

“.....”

나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다. 엄마가 누나 책상 위에 휴대폰을 집었다.

“애가 휴대폰을 놔두고 간 걸 보니 어디 멀리 간 건 아닌가 보다. 민석아, 배고프지? 우리끼리 먼저 먹고 있을까?”

“아니에요, 엄마. 저도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지금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금방 갔다 올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떡볶이 다 되었는데. 점심 먹고 가!”

나는 내 방으로 뛰어 들어가 마법의 공책을 가방에 우겨 넣고 지퍼를 꼭 채웠다. 혹시라도 엄마가 이 공책을 보면 절대 안 된다. 누나를

사라지게 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면 엄마는 아마 기절할지도 모른다.
이게 다 나 때문이다.

“엄마, 죄송해요. 저 금방 갔다 올게요.”

“민석아, 민석아!”

나는 엄마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내달리기 시작했다. 더 늦기 전에
할아버지를 찾아야 한다. 이 마법의 공책을 준 할아버지.

얼마나 뛰었는지 발바닥이 뜨겁다. 무작정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재활용 수거센터는 다 뒤졌는데 할아버지가 안 보인다.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셨을까? 할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오르막까지 뛰어
올라갔다. 발을 동동 구르며 이쪽저쪽을 살펴봐도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때 공책을 받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머리를 써야 해, 장민석! 생각을 좀 하라고!’

나는 심호흡을 하며 생각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손수레는 꼭 차서
종이상자를 더 실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셨을까?
그래! 우체국 맞은편에 있는 고물상! 그곳엔 언제나 종이상자와 못 쓰는
냉장고, 텔레비전 같은 것이 산처럼 쌓여있었다. 공원을 지나 우체국까지
무슨 생각으로 뛰어갔는지 모르겠다. 땀땀 매미 소리가 귀에 들렸던 것도
같고, 안 들렸던 것도 같고. 나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팔다리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더 빨리 뛰어가고 싶은데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겁고 말을 듣지 않았다.

터질 듯 뜨거운 얼굴로 고물상 앞에서 숨을 몰아 쉬었다. 쿵쿵한
냄새가 코로 훅 들어온다.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할아버지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말을 거신다.

“여기는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손수레에 종이상자를 가득 싣고 다니시는 할아버지요.”

“글쎄,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아까도 만났는데 하얀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하얀 모자? 아! 혹시 옆 동네 김 씨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니?”

“할아버지 성함은 모르는데, 혹시 하얀 모자 할아버지를 아세요? 지금 어디계세요?”

“허허허. 지금 어디 계신지는 나도 모르지. 어르신이 휴대전화도 없으시고 종이 모으러 어디든 다니시거든. 아마 저녁쯤에는 집으로 가실 거야.”

“집만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갈게요.”

“그러면 길 건너 주유소 아니? 그 뒤편으로 쪽 올라가면 소망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골목에 할아버지께서 지내시는 고물상이 있어. 좀 멀긴 해도 가보면 금세 찾을 수 있을 거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나는 아저씨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햇볕에 머리 카락이 타는 것 같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다. 내가 사라지는 마법의 공책에 누나 이름을 적지만 읽았어도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자마자 나는 급하게 건널목으로 뛰어들었다. 갑자기 킁 소리와 함께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내 왼쪽으로 하얀 자동차가 멈춰 서있다. 자동차 창문이 내리더니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차 잘 보고 다니라고 욕을 한다.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펑 쏟아졌다. 그리고 갑자기 누나 생각이 났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그때는 어떤 아주머니가 나를 잡아먹을 듯이 야단치셨는데 그때 누나가 나서서 내 편을 들어줬다.

“아주머니, 죄송한데 지금 파란 불이잖아요. 저희가 파란 불이라서 건넌 건데 아주머니도 잘 보시고 우회전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재 좀 봐, 야! 너 말 다 했어?”

누나는 으박지르는 아줌마의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떨고 있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싱긋 웃으며 괜찮다고 얼른 건너가자고 했었다. 누나가 없다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주유소를 지나 오르막을 한참 올라가자 소망고등학교가 보였다. 낯선 동네여서 그런지 고물상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이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저 골목으로 나왔다가 정신 없이 고물상을 찾고 있는데 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얘야, 너, 거기서 뭐 하누?”

뒤돌아보니 하얀 모자를 쓴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뛰어가 펄펄 울며 말했다.

“할아버지, 어떡해요. 제가 누나를 없애버렸어요. 정말 나쁜 일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땀에 흠뻑 젖은 내 등을 토닥이셨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작은 마당이 있는 고물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자, 물부터 마시렴.”

나는 할아버지가 내민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리고 조심스레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다. 할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조용히

물으셨다.

“후회되니?”

“네, 제가 아주 잘못했어요. 누나를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은 없나요?
누나만 돌아온다면 제가 대신 사라져도 괜찮아요.”

눈물범벅이 된 나를 한참 보시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공책은 가져왔니?”

나는 얼른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 공책을 꺼냈다. 할아버지는
공책 속에 있던 사라지는 마법의 공책 사용설명서를 집어 드셨다. 그리고
꺼칠꺼칠한 손으로 내 얼굴에 묻어있는 눈물을 닦아서 사용설명서에
바르셨다. 그러자 사용설명서가 반짝하고 잠시 빛나더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4. 후회할 일이 생기셨나요? 만약, 공책에 종이가 남아있다면 사라지는
마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 5시간 내로 ‘돌아와, 얍!’이라는
주문을 초록색으로 써야 합니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얘야, 공책에 종이가 남아있니?”

“네, 딱 한 장 남아있어요.”

“다행이구나. 그런데 그 마지막 장을 누나가 돌아오는 것에 써도
괜찮겠니?”

“네! 그럼요!”

할아버지는 나를 꼭 안아주시며 커다란 손으로 등을 토닥여주셨다.

“어서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후회가 없도록 마지막 장을 쓰렴.”

나는 공책을 가방에 집어넣고 달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고물상이 있던 골목을 지나 소망고등학교가 보였다. 학교 시계탑에 시계바늘이 4시 47분을 가리켰다. 아까 엄마가 1시쯤에 점심을 먹자고 하셨으니 2시, 3시, …… 6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방 어깨 끈을 조여 매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주유소 앞 건널목을 건너 공원을 지나 계속 뛰어 드디어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가 빨리와야 하는데 맨 꼭대기 층까지 올라간 엘리베이터는 내려올 생각이 없다. 시간이 없는데 어찌지? 나는 비상계단 문을 열었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계단을 두 칸씩 올라가다가 헛디더 머리를 박았다. 이마를 쓰다듬으니 손에 피가 묻어난다. 그래도 멈춰있을 시간이 없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니 손이 파르르 떨린다. 띠리릭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누나 방으로 뛰어갔다.

“장민석! 너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엄마, 미안해요!”

엄마의 화난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나는 누나 방 문을 급히 잠그고 가방을 열고 공책을 꺼내어 누나 책상에 앉았다. 시계를 보니 5시 43분! 초록색 펜! 누나 필통을 거꾸로 들고 와르르 물건을 쏟았다. 있다! 떨리는 손으로 공책 마지막 장을 펼치고는 연필을 들었다.

‘나보다 네 살 많고, 가끔 나를 괴롭히기는 하지만 소중한 누나 장민지는 빨리 돌아와라, 돌아와, 얍!’

“누나, 제발 돌아와, 제발”

눈물을 후두두 흘리며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데 찰싹 등짝이
따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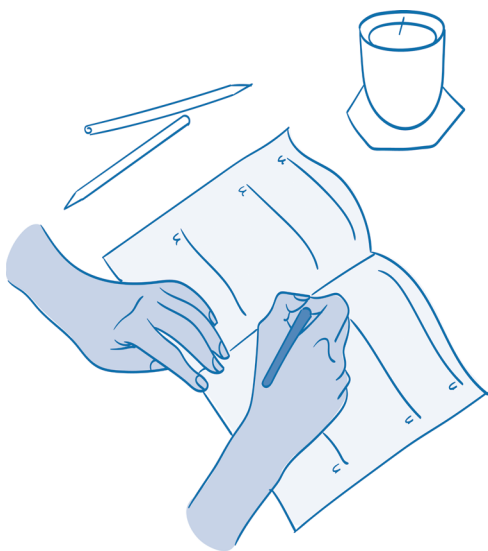
“야! 장민석!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 야! 내 필통 네가 다 쏟았니?
야! 빨리 안 나가!”

어, 누나다! 나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누나를 안았다.

“누나, 내가 다 잘못했어. 돌아와서 고마워, 누나”

“야, 왜 이래? 어, 콧물! 엄마, 민석이가 이상해요, 엄마!”

오늘만큼은 누나한테 맞아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 나의 소중한 누나가
돌아왔으니까.





은우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했다. 책상다리를 하고 앉은 모둠원들은 은우와 지용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내 거 빨리 내놓으라고!”

은우가 손을 뻗자 지용이가 피하더니 못 들은 척 손에 있는 직업카드를 하나하나 뒤집어 읽기 시작했다. 옆에서 바라보는 은우 얼굴은 더 일그러졌다.

“별것도 없구만. 다 아는 거잖아.”

지용이가 은우 앞으로 카드몽치를 휙 던졌다. 카드가 은우 무릎에 부딪히더니 바닥으로 쏟아졌다. 은우가 이를 악물고 퍽퍽퍽 말했다.

“김.지.용.사.과.해.”

“내가 뭘? 줘잖아?”

약이 오른 은우가 아랫입술을 짹 깨물었다.

“김지용. 주려면 제대로 줘야지. 은우 기분 나쁘게 던지면 어떡해.”

민영이가 은우 앞에 쏟아져 있는 카드를 추스르며 말했다. 카드는 이미 꾸깃꾸깃해져 있었다.

“은우야, 그냥 신경쓰지 마. 야, 김지용. 너도 집중 좀 해.”

민영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우가 벌떡 일어섰다. 선생님 책상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나가는 은우 손에는 민영이가 모아준 카드가

들려있었다.

“선생님.”

“응?”

선생님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턱만 까딱하며 대답했다. 선생님은 늘 바쁘다. 아이들이 모둠활동을 하면 선생님은 거의 항상 컴퓨터만 했다.

두 번 부르고 나서야 선생님이 은우를 쳐다보았다.

“은우구나.”

은우의 눈빛이 심각한 걸 보고 비로소 선생님이 키보드에 있던 손을 내리고 은우 쪽으로 의자를 돌렸다.

“선생님. 지용이가 제 카드를 뺏어갔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친절하게 웃고 있던 선생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셨다. 은우는 마음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다.

“지용이가?”

“네.”

“후. 어떻게 된 상황인데?”

팔짱을 끼고 눈을 감은 채로 묻는 선생님의 말투가 조금 차가웠다. 은우는 선생님 눈꺼풀을 보다가, 선생님 옷을 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이었다.

“지용이가 막 제 카드를 몰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억지로 뺏어갔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제 카드를 보더니 막 별거 없다면서 저한테 툴 던져서 줬어요.”

“그랬구나. 받긴 받은 거네?”

은우는 선생님의 말이 꼭 조금 전 지용이가 “줬잖아?” 했던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받긴 받았는데, 막 던져서 다 쏟아지고, 그래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안 해요.”

“지용이 오라고 해.”

지용이를 데리고 왔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번에도 은우가 말한 걸 지용이에게 확인만 하고 지용이를 혼내지는 않았다. 은우는 언제 선생님이 지용이를 혼내나 초조한 마음이 들었다.

“이제 이런 건 너희들끼리 해결할 때가 되지 않았니?”

은우가 멍하니 선생님 입술만 쳐다보았다. 지용이는 옆에서 “넵. 선생님. 맞는 말씀입니다”하고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지용이는 친구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은우도 자꾸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않겠어?”

은우의 입이 떡 벌어졌다.

“여러 번 얘기 했어요! 카드 달라고, 하지 말라고요!”

“지용이. 정말 은우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뺏고, 사과도 안 했어?”

지용이는 요리조리 눈만 굴리더니 입을 떼었다.

“했을...걸요?”

은우가 고개를 휙 돌려서 지용이를 쳐다보았다.

“네가 언제!”

“했을 걸요가 뭐야, 지용아. 지용이도 친구를 더 존중해야지. 서로 한

번씩만 배려하고 이해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꼭 선생님한테까지 얘기 해야겠어?”

“넌! 죄송합니다! 은우야, 미안!”

옆에서 지용이가 선생님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이더니 은우 쪽에도 고개를 까딱했다.

‘뭐야, 이게 사과야?’

“가 봐.”

선생님은 다시 모니터 앞으로 돌아앉았다. 지용이는 냉큼 모둠으로 돌아갔는데 은우는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이가 없어서 눈만 끔벅거리며 서있는데 선생님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돌아보지도 않았다.

집에 올 때도 터벅, 터벅 발걸음이 무거웠다.

“다녀왔습니다아.”

식탁 옆에 가방을 털썩 내려놓았다. 엄마가 은우 앞에 딸기가 담긴 접시를 밀어주었다. 그렇게 좋아하는 딸기인데 은우는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

“아들? 우리 아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엄마.”

“응?”

“선생님은 우리가 귀찮은가?”

엄마가 딸기를 입안에 넣다가 웃음이 터져서 퉁퉁 거렸다.

“뭐라구?”

“선생님은 우리가 귀찮은 걸까.”

“푸하하하하! 아이고, 무슨 말이야. 그제.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오늘도 지용이가 짜증나게 해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니들이 해결할 수 있지 않냐고 해서.”

“그래? 무슨 일이었는데?”

엄마가 딸기 하나를 포크로 찍어서 은우에게 내밀었다. 지용이와 있었던 일을 다시 엄마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막 지용이가. 막 내 직업카드를……. 또 흥분하니 말도 답답하게 나왔다. 우물우물. 딸기만 먹으며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가 입을 열었다.

“음, 뭐 그 정도는 선생님도 말할 수 있지. 애들이 몇 명인데 하나하나 선생님이 해결하려면 힘드실 테니까. 그리고 5학년이니까.”

엄마가 선생님 편을 드는 것 같아 은우는 순간 울컥했다.

“근데 선생님이 너무 귀찮다는 듯이 말했던 말이야.”

“선생님이?”

“응!”

은우가 눈을 크게 뜨고 대답했다. 다시 큰 딸기를 통째로 입에 넣은 엄마의 볼 한쪽이 볼썽 튀어나왔다.

“아이구, 참. 신은우! 느네 손생님 같은 분이. 어딴냐? 다른 반 음마들도 다 음마를 얼마나. 썩. 부러워하는데. 선생님이 그때만 바쁘시거나 그랬나 부지.”

엄마가 씹던 딸기를 꿀꺽 삼켰다. 은우의 입꼬리가 뼈죽 아래로 처졌다.

‘엄마는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은우는 입 안에 딸기를 세 개씩 넣고 와구와구 씹어먹었다.

‘우리 반 애들도, 엄마도, 다들 선생님 칭찬만 해. 진짜 어떤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선생님은 지용이같이 못된 짓만 하는 애들은 혼내지도 않고 맨날 대충이야. 우리가 귀찮은 거야!’

방에 들어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틀림없었다. 은우는 책상에 앉아서

생각공책을 꺼내 책상에 탁 올려놓았다. 생각공책이라고 표지에 붙은 스티커를 노려보았다. 선생님이 평소에 떠오르는 생각을 쓰라고 시키는 생각공책인데 말이 생각공책이지 일기 같은 거였다.

평소에는 무슨 생각을 쓰라는 건지 정말 생각이 안 나서 쓸 게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쓸 말이 산더미였다. 은우는 생각공책을 꺼내서 적기 시작했다.

“내 거는?”

은우가 민영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생님이 검사를 마친 생각공책을 민영이가 나눠줬는데 은우는 생각공책을 돌려받지 못했다.

“네 거? 없는데? 오늘 냈어?”

민영이가 은우에게 양손을 펼쳐보였다.

‘이상하다.’

“신은우. 이리 와봐.”

선생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은우가 멈칫 했다.

‘아, 맞다! 그거 안 가렸다!’

어제 열 받았던 일에 대해 막 쓰긴 했는데 진짜 선생님께 공책을 낼지 말지는 고민했다. 아니면 내더라도 아무도 못 읽게 종이를 붙여놓을까 했는데 깜빡하고 그대로 생각공책을 내버렸던 것이다.

은우가 선생님 책상 옆으로 가서 섰다.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공책을 들고 있는 걸 보니 은우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은우야.”

선생님이 그 글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이름을 불렀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이 은우 생각공책 잘 읽어봤어.”

가슴이 쿵닥쿵닥 뛰기 시작했다. 은우는 침을 꿀꺽 삼켰다.

“흠.”

팔짱을 끼고 있는 선생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조마조마했다.
고개가 푹 숙어졌다.

“선생님이 그날 너희들 얘기 듣는 게 귀찮아 보였니?”

선생님을 흘깃 올려다본 은우가 다시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랬구나. 음. 은우가 그렇게 느꼈구나. 선생님이 미안해.”

은우가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은우가 특히 요즘 선생님에게 너무 모든 걸 말하는 것 같아서
은우 스스로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랬던 건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던 은우가 갸우뚱했다. 생각보다 선생님이 화를
내지 않아 다행이긴 했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기분이었다.

‘너무 모든 걸 말하는 것 같다고? 내가 너무 말이 많다는 건가? 말하지
말라는 건가?’

선생님이 지용이를 크게 혼내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 것 같기는 했는데
은우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못된 애들은 혼내서 가르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결국 선생님이
들어주기 싫다는 거잖아. 아, 진짜 선생님하고는 안 맞아!’

은우는 자리에 돌아와서 선생님에게 돌려받은 생각공책을 가방에 쑤셔
넣어버렸다.

“와, 내일 진짜 재밌겠다!”

교실이 시끌벅적했다. 내일은 그토록 기다렸던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는

날이다. 화제의 중심은 단연 거짓말 탐지기였다. 아이들이 파티날 진실 게임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정말로 거짓말 탐지기까지 주문해 놓으셨다고 했다.

“거짓말 탐지기 해봤어?”

“아니.”

“난 해봤어!”

“어때? 어때? 진짜 짜릿해? 전기 오르면 엄청 아파?”

집에서 가족들이랑 거짓말 탐지기를 해봤다는 준영이를 둘러싸고 아이들이 질문 공세를 해댔다.

“진짜 우리 쌤 짱이지 않냐? 거짓말 탐지기를 학교에서 해보다니!”

“그니까! 진짜 너무너무 기대된다야!”

“우리들이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시는 선생님이야 정말.”

“아, 쌤과 함께 한 5학년이 벌써 끝나간다니!”

“진짜 그건 좀 그래.”

‘그렇긴 뭐가 그래.’

아이들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은우는 살짝한 표정을 지었다.

크리스마스 파티답게, 교실은 짝 바뀌어 있었다. 미술작품이 붙어있던 교실 게시판에는 MERRY CHRISTMAS 모양의 금색 풍선이 반짝였다. 교실 천장에는 루돌프와 산타 얼굴 장식이 깜빡하게 매달려 있었다.

“우와! 선생님! 완전 파티 분위기 살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다가가 너 나 할 것 없이 감격의 말을 쏟아냈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산타사탕을 하나씩 나눠 주었다. 방긋 웃고 있는 선생님을 은우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살짝

짜려보았다.

‘흥, 다 가식이야.’

은우는 오늘따라 선생님이 더 미워 보였다. 민영이가 사탕 하나를 더 받아와서 내밀었지만 필요 없다고 받지도 않았다.

드디어 진실 게임이 시작됐다. 앞사람이 다음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이 나와서 거짓말 탐지기에 손을 얹고 친구들의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 예, 아니오로 대답해야 했다. 진실이면 디리링-하는 기분 좋은 알람이 울리고, 거짓을 말하면 손바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다.

정말로 몇몇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떼었다. 그 모습에 아이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손바닥 전류를 느껴보고 싶어서 일부러 반대로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번 순서는 민영이에요. 민영이에게 질문하고 싶은 사람? 네, 이빈이.”

“나는 우리 반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예? 아니오?”

“오올! 박민영 좋아하는 사라암!”

이빈이의 질문을 듣고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오른손을 거짓말 탐지기에 끼운 민영이가 왼손을 가슴에 얹고 심호흡을 했다.

“아으, 긴장되는데. 예!”

“헐! 진짜?”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얼굴이 발개져서 신나게 조잘거렸다. 선생님도 웃었다. 금세 다들 조용해져서 거짓말 탐지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쿵쿵쿵쿵 공포 영화에 나오는 음악 같이 무시무시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디리링-. 진실을 뜻하는 소리가 나오자 아이들이 “까!”하고 소리를 질렀다.

“대박! 민영이가 우리 반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와, 이거 진짜 정확한가봐.”

아이들은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성과 민영이의 속마음에 놀라서 한참을 떠들었다. 민영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누구야. 자기들끼리 바쁘게 돌아보며 물었다. 민영이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우리 민영이가 좋아하는 친구가 우리 반에 있었구나. 선생님도 처음 알았네. 자, 민영이가 다음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친구들을 둘러보던 민영이의 시선이 은우에게 멈추었다.

“은우요.”

은우가 숨을 몰아쉬고 별떡 일어섰다.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시간인 걸 알고 있었다. 할 수 없이 오른손을 거짓말 탐지기에 올려놓았다.

“은우에게 질문할 사람?”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용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저요!”

지용이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아이들은 손을 드는 것도 까먹고 지용이를 돌아보았다. 지용이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오, 왜 하필 김지용이야.’

지용이와 마주보니 은우는 은근히 긴장되어 침을 삼켰다.

“나는 선생님을 싫어한다! 예? 아니오?”

갑자기 교실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이 흘끔흘끔 선생님 눈치를 살피다가 어색하게 웃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야유가 터져나왔다.

“뭘 질문이 그러냐? 김지용.”

“하여간.”

은우는 말없이 거짓말 탐지기만 쳐다보고 있었다.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야, 신은우! 빨리 대답해! 나는! 선생님을! 싫어한다! 예! 아니오!”

지용이가 재촉했다. 교실이 더 소란스러워졌다. 선생님이 팔짱을 끼고 칠판 옆에 서 있었다. 입을 꼭 다물고 있던 은우가 크게 외쳤다.

“예!”

갑자기 찬물 끼얹듯 교실이 조용해졌다. 은우를 쳐다보던 아이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앵? 레알?”

“말이 돼? 왜? 올 썸 같은 썸이 어딴냐!”

선생님은 태연하게 웃으면서도 은우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은우 정말 선생님 싫어해?”

“나는! 선생님이! 싫어요!”

은우가 거짓말 탐지기에 놓인 손이 들썩일 정도로 크게 힘주어 말했다.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은우와 선생님을 번갈아 보았다.

“신은우 오버하지 마!”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몇 명이 웃었다. 좀 민망해진 선생님이 헛헛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무시무시한 진실의 음악이 시작됐다. 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은우의 심장도 빠르게 뛰었다. 쿵광쿵광쿵광쿵광쿵광쿵광!

지지지지직!

“끄아악!”

은우가 거짓말 탐지기에 붙어있던 손을 번쩍 들어올렸다.

“푸하하! 재 표정 봐!”

“야, 거봐. 거짓이네.”

“진짜 정확하다니까 저거!”

“하하하하하! 재밌다!”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한마디씩 했다. 선생님도 웃는 소리가 은우 귀에 들렸다. 전류가 흐른 손끝이 너무 얼얼하고 아파서 은우는 왼손으로 오른손을 부여잡았다.

자꾸 입꼬리가 찡글대는 걸 은우는 참을 수 없었다.



2022년 공직문학상

공직윤리

아일랜드



그 곳은 아일랜드.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모래를 밀어내며 바닥에 결을 만들어내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그려지는 곳.

나는, 그 섬으로 무수한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탐험가이다. 그리고 나는 그 섬의 이름을, ‘행정복지센터’ 라고 붙인다.

이제는 조금 지난 이야기겠지만, 난 그 섬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그리고 이 길을 17년째 걸어왔지만, 내 기억과 내 마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던 섬사람들을 추억하며……. 그 섬에서 만났던 이들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다.

남을 돕는 일을 직업으로 할 수 있다는,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말씀이 무의식 속 어떠한 메시지로 작용한 걸까? 그 목소리 따라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당시 ‘복지’라는 개념조차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미지의 영역으로 내 발을, 겁 없이 성큼 들여 놓았던 것이다.

동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인생을 만났다. 그리고 수많은 인생 이야기를 들어왔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난 상담자, 그들은 내담자의 입장에 서게

되지만, 난 종종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여러 장르의 영화가 펼쳐진다. 스릴러, 호러, 때로는 로맨스……. 시대적 배경은, 일제 강점기부터 6.25, IMF시절까지, 다양하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것은, 드라마가 아닌 다큐멘터리. 그들의 ‘삶의 이야기’이다.

한때는 앙드레 김의 동업자이다가 IMF를 만나 지금 내 앞에 앉아 있기까지의 이야기, 풍족하던 삶……. 기대와 배신으로 점철된 세 번의 결혼 이후, 정신병을 얻게 된 아주머니의 막장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이야기, 자해하는 딸과 아들을 지켜보며 손자에게 희망을 엿는 할머니의 고단한 삶……. 희귀병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그들의 이야기. 그 외에도 그들의 수많은 이야기는 파도가 되어 내 마음의 모래사장에 곁을 남기고 거품과 함께 물러갔다.

특히 폭력과 학대의 이야기는 내 마음을 먹먹하게 한다. 모래사장에 꽂 던져지는 날카로운 돌조각처럼.

결국, 내 앞으로 밀려오기까지 그들의 등을 떠민 것은, 수많은 상처가 아닐는지…….

그들이 물러간 후, 그들의 온기가 다 식기 전에, 내 망각이 그들의 이야기를 삼켜버리기 전에, 복지전산망에 차곡차곡 입력해 놓는다. 타닥 타닥하는 키보드의 타자소리가 마치 모닥불 타는 소리 같다. 난 그들의 삶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은 인연. 내 앞에도, 그리고 내 뒤에도 그들의 삶이 이어지는 한, 여러 점과 같은 만남들이 이어져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 있는 선을 긋지 않을까? 생각하며, 전산망에 누군가가 이미 쌓아놓은 그들의 상담내역을 훑어본다. 읽다보니 켜켜이 쌓인 해변

지층을 보는 것만 같다.

‘이런 삶을 살았었구나, 그랬었구나.’

여러 번의 발령을 겪어왔기에 가슴에는 굳은살이 생길 만도 하건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서슬 퍼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발령소식이 있었다. 신규 때부터 건너건너 입소문으로만 들어왔던, S영구임대 아파트가 있다는 S동으로의 발령소식!

아무리 경험 많은 사회복지직이라고 해도 여전히 두려움으로 마주하게 될 S아파트의 위엄! 우리는 그 곳을 ‘기피 동’이라고도 불렀다. 기피 동으로 첫 출근하는 아침, 이렇게 생각이 많아보긴 처음이었던 거 같다.

내 첫 날은, 천하를 호령하듯 “주거복지 담당, 당장 나와~!”하는 고함을 치며 등장한 부자(父子)와 함께 화려하게(?) 시작된다. 큰 소리담당 아버지, 맞장구 담당 아들.

“곰팡이가 뭔지 알아?”

“...곰팡이란, 습기와 곰팡이균이 만나...”

상담실이란 우리에게 간혀 포식자 앞에 선 토끼가 된 기분이랄까? 포효하는 아저씨의 침방울이 내 눈에 들어가 찹찹했지만 겁에 질려 닦아낼 용기가 나질 않는다. ‘다리가 후들거리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다. 겁에 질리니 진짜 내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다!

‘상담실에서 봉변(?)을 당하면, 어떡하지? 상담실 내부에 붙여 놓았다는 비상벨은...어디있더...라? 상담실 안쪽이 아닌 문 쪽에 앉기를 잘했다.’

상담하면서 눈은 포효하는 부자(父子)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이렇게 나의 기피 동 근무

생활의 서막이 열리고…….

나는 맞춤형복지팀에서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통합사례관리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그의 강점과 주변자원을 파악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내담자가 지역사회 속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란, 내 삶의 수준이나 반경만큼의 사람들이 아닐까? 하지만, 나는 ‘행정복지센터’란 이 섬에서, 내 삶의 반경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들이 나에게 찾아와 생계나 주거, 의료문제와 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안, 내 머릿속은 공장처럼 바쁘게 돌아간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이 내가 사는 세계와 같은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견적(?)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일련의 과정들은 마치 빛의 속도처럼 빨라서, 내담자가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그의 앞에 내밀 견적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리고 그 답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뿌듯해하며, ‘유능하다’고 착각해 왔다. ‘사례관리’라는 바다에 발을 제대로 담그기 전까진…….

* 심리적인 문제나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S동.

101동에서 108동. 바둑판처럼 많은 창문과 원근감을 느끼게 해주는 긴 복도 우측으로 회색의 철문들이 빼곡히 박힌 곳. 수많은 이야기들이 문헌 영구임대가 자리 잡은 그 섬을 2년 여 시간 동안 배회하면서 나는, 특별한 세계를 잠깐 구경하고 온 탐험가가 되어 그 때의 추억을 되새겨 보려한다.

화려한 서막(?)과 함께 시작된 S행정복지센터섬 탐험…….

난 사례관리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 섬에서 만났던 많은 섬사람들 중 한 ‘의문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아파트 화장실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다급한 신고.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을 만나면 도망치고 또 도망치는 의문의 그 남자를 찾기 위해, 그를 신고한 사람부터 S복지관 등 우리는 여러 보이지 않는 끈(?)을 동원해야만 했다. 인천, 부천,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그 남자의 활동 반경은 너무나도 방대한지라, 딱히 어디가 주거지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남자를, 고맙게도 복지협의체 위원이 자신의 집으로 전입 시켜주고 재워 주기까지 했다. 과거 S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살았었다는 의문의 남자. 그 남자는 이미 그 동네에선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남자였고, 그의 부모의 삶까지도 거슬러 아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는 살고 있었다. 그런 그 남자와 주민 사이에, 이방인은 되레 나왔다.

주민등록등본에 선명하게 찍힌 그 남자의 주소 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도가 여백에 담겨 있을지 그 남자는 알거나 할까?

많은 이들의 충격과 연민의 대상이었던 그는, 말소자란 딱지를 떼고

전입한 이후로 국민기초수급자가 되고 정기적인 생계지원과 LH전세 임대를 통한 주거안정도 종합선물세트처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선물’이라는 생각은 나만의 착각이었을까? 그 남자는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질 않는다. 그는 왜, 새 가전제품과 새 이불, 식료품이 비치돼 있고, 전기와 가스가 나오는 편안하고 안락한 집 대신에, 차디찬 화장실 바닥과 병원의자를 선택하는 것일까? 왜, 그는 새 옷 대신에 의류수거함에서 아무렇게나 집어 든 회색 후드티를 입고 다니는 것일까? 심지어 그는 영구임대아파트 내 S복지관에서 마련해 준 메이커 운동화를 다른 노숙자에게 벗어주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있었다. 그는 마치 우리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살면서 일반적인 상식과 삶을 초월(?)해서 사는 초인(超人)과도 같았다!

초인같은 그가, 어느 날 자기 발로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와 주었다. 100킬로그램은 넘어 보이는 거대한 체구, 잿빛의 덩수룩한 머리카락, 오랫동안 물을 멀리하면서 얻게 된 거무죽죽한 피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내부를 가득 채운 존재감 넘치는 그의 체취.

나는 그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를 했다. 과거 영화 ET에서 보았던 한 장면이 겹쳐지는 듯하다.

손가락을 서로 내밀어 닿을 듯 말 듯, ET와 아이가 인사를 나누는 장면.

“○○씨, 안녕하세요?”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한다. 인사에 답을 하는 예의(?)보다는, 맥락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말한다. 전에 교도소에도 들락날락했던 거치고는 생각보다 순박한 모습이다. 28살에 다른 사람의 이름표가

불은 중학생 교복을 입고 자기 옷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데……. 내 눈앞에 있는 순박하고 덩치 큰 사내와 교도소는 웬지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그는 낯선 나에게 생각의 흐름대로 이 말 저 말을 하는 듯 했지만, 그가 이 곳으로 방문한 목적은 분명했다.

‘왜 내 생계비 통장을 내가 소유하고 마음대로 쓸 수 없나’는 불만.

이 남자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버겁고, 특별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런 그에게 ‘지적장애 3급’이라는 딱지를 붙였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그의 특별한 능력(?)을, ‘조현병’이라 불렀다.

그런 그에게, 정부는 생계비 통장을 내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팀은 그에게 후견인을 구해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아우르며 바람처럼 살던 그에게, 보호자가 필요하기나 할까?

그런 의문의 그에게 다가가, 종잡을 수 없는 그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마음의 소리를 찰떡같이 알아듣는 천사가 생겼다. 자기 집을 자기 집이 아닌 통장님의 집이라고 하고, 자기 집에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그의 알 수 없는 마음을 헤아려 주는 천사. 그가 두려움을 이기고 집으로 들어갈 용기(?)가 생기도록 통닭을 사오는 천사. 같이 라면을 먹여주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무좀연고를 바르게 도와주는 천사. 그 천사는 결국, C가 텔레비전 보고 배불러서 낮잠까지 자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이 천사가 사는 곳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S복지관. 나는

사례관리를 한답시고 이 섬에 살짝살짝 드나들기만 한 탐험가였다면, 복지관 천사들은 이 섬의 한가운데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그 섬을 수호하며 무수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섬의 수호천사.

그 천사들은 물 없이 스프레이로 뿌리기만 하면 되는 샴푸로 C의 머리를 처음 감겼고, 복지관 2층 화장실을 칸막이로 막고 물조리개로 따뜻한 물을 받아 샤워를 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 날, 복지관 천사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고 들었다.

직업이란 것을 평생 가져보지 못한 37세의 C가 이제 복지관 천사들이 일부러 만들어낸 아르바이트를 하러 매일 아침 복지관으로 출근을 했다. 그리고 그가 아는 가장 멋진 세계의 사원증을 목에 걸고 직원이란 소속감도 느껴본다. 복지관 청소를 하고, 이면지에 도장을 찍는 일은 그가 해 본 일 중, 가장 폼 나는 일이라.

복지관에서 C에게 금요일마다 주는 주급을 마련하기 위해 뒤에서 동과 복지관이 어떠한 회의를 하고, 어떠한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는 모른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아서 생계비가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 것까지도 연습이 필요했고, 매일 아침 복지관으로 출근해서 전담 천사(?)가 챙겨주는 고혈압 약을 먹고, 복지관 일과 함께 ‘오늘 할 일(집 청소, 집에서 점심 먹기 등)’ 까지 하면 날마다 5천 원의 용돈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예측 가능한 삶’에 그가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하자,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땀방울이 보람되고 가치 있게 여겨졌다. 우리는 그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머리를 모았고, 성공은 눈앞에 있는 듯 했다. 심지어 변화된 그의 모습은, 통합사례관리의 성공사례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C가 죽겠다고(또는 죽이겠다고) 차도로 뛰어들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 전에도 복지관 직원과 함께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소리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었는데,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환각과 환청, 그리고 강제입원 트라우마로 인한 병원치료 거부. 이 뫼비우스의 띠 같던 연결고리는 그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단번에 풀려 버려, 우리가 그토록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도록) 동기부여해 왔던 시도를, 허무할 정도로 단번에 해결해 주었다.

결국, 그는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되고 말았다.

알고 보니, 성공적인 일상을 살고 있다고 믿었던 그의 집은, 한 차례 화마(火魔)가 지나간 듯, 창문과 방문, 현관문을 비롯해 닫히는 모든 문은 다 부서진 상태였다. 유리창도 커튼으로 덮어 가장자리에 못을 쳐 버렸다. 오랜만에 안락함을 주고, 복지관 천사와 함께 라면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았던 추억이 담긴 그 곳을 왜 자신의 손으로 망가뜨려 버린 걸까?

그는 주변에서 정성껏 마련해 준 살림살이도 다 내다 버렸고, 화장실 바닥에 용변도 아무렇게나 보았다. 수리비용만 143만원.

그가 이렇게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결실은 물거품이 되는 듯, 허망함이 밀려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다”란 속담이 떠오른다. 복지관 계, 이런 걸까?

성공사례로까지 선정된 건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 때, 나는 마치 거짓말을 하다 걸린 양치기 소년이 된 기분이었다. 조만간 성공사례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실패한 것을 덮고 말해야만 하는 걸까? 복지관 천사들의 인도로 이토록 아름답게 그려진 이 그림이,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엔딩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하지?

그런 고민을 한창 하던 중, 뜻밖에 발령소식이 들려왔다. 혼란의 끝을 알리는 이 소식은, 희소식일까? 씩씩하기만 하다.

지금 난, 그 섬에서 떠나온 지 2년이 가까워온다. 그 곳에 새롭게 탐험을 온 탐험가들로부터 내가 만났던 이들에 대한 2부, 3부 소식이 들려온다. 내가 만났던 의문의 그 남자는, 여러 굴곡진 삶의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한 발짝 멀리서 보니 조금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에 가까워진 것 같다. 고맙게도 그의 곁을 지켰던 복지관 천사가 아직도 그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고, 강제입원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병원 근처에도 안 갔던 그가,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장애 재진단도 다시 하고, 조현병 약도 먹기 때문에 환각과 환청으로 인한 불안과 불면증으로부터도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 누군가에겐 정신병원 입원이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또 누군가에겐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누리게 해 주는 제한된 자유가 될 수도 있겠다 싶다.

병원에 입원한 비슷한 시기에 LH전세임대 2년 계약기간도 만료되긴 했지만, 퇴원하기만 하면 그가 살 집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가도록 병원과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S동 맞춤형복지팀,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복지안전망’이 되어 섬을 지키는 등대처럼, 여전히 그에게 믿는 구석(?)이 되어 주고 있다.

삶은, 이어진다.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잠깐 그들이 사는 섬을 탐험했던 나는, ‘상식’과 ‘일반’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는 결코 그 섬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내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 수 있고, 내가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나는 비로소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겠지?

누군가의 처참한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 거리로 삼던 오만함을 내 안에서 느끼고, 누군가의 인생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던 어리석음을 내 안에서 느끼게 된다면, 내가 만날 또 다른 섬에 가서도 조금은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난, 출근을 한다.

2022년 공직문학상

공직공감

모든 게 사랑이었네

별과 별사탕



김 선생님께

‘제 인생의 스승이신 부장님!’

편지를 써 보기로 마음먹은 건 스승의 날 받은 메시지의 이 첫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스승이라니요. 선생님처럼 능력이 출중한 분께 제가 들을 뉘으론 과분해도 너무 과분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민망함 끝에 묘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팔려 올라오더군요. S군을 만나고 온 날부터 머릿속에서 흐릿하게 맴돌던 것들이 선생님의 메시지를 본 순간 선명해졌어요. ‘그래, 가르쳐야만 스승인가? 선배 교사도 인생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지.’ 지난 35년 교직 생활에서 있었던 몇 편의 ‘사랑 이야기’를 드리며 격려와 함께 교사 인생 훈수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첫 학교에서 만난 볼 빨간 S군 이야기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가 떠서 잠시 고민하다 받아 보니 제자 S군입니다. 첫 발령지 OO중학교에서 1학년 담임했던 시절 번호 3번 볼 빨간 S군. 번호가 키순이었으니 세 번째로 작았고 양쪽 볼이 사계절 내내 유난히 빨랐습니다. 아마 추운 날씨에 로션 하나 바르지 않고 다니니 피부가 터서 늘 이상하리만치 홍조를 띠었을 것입니다. 37년 만이니 S군의 나이는 50대 초반일 텐데 어찌 된 일인지 핸드폰을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는 중병을 앓고 있는 70대쯤으로 가늠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3년 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마 전 퇴원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와 보니 사는 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미루지 않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볼 계획인데 그 계획 중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올 테니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해서 내가 가겠다고 몇 번을 말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약속 장소에 두 친구의 부축을 받고 나타났습니다. 그렇게도 간절히 나를 만나보고 싶었다는 이유가 학교 다니면서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던 것이 지금껏 잊히지 않아서랍니다. 저는 기억조차 없는데 40년 전 한글 이해득자였던 S군에게 ‘넌 글씨를 참 예쁘게 쓰는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순간 가슴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마터면 와락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찾아와 그 한마디 칭찬을 지금껏 간직하고 살았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갑니다. 이처럼 첫사랑엔 유효기한이 없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뻗속까지 교사이신 아버지의 ‘교직 예찬론’에 힘입어 지방 국립대 사범대학을 나와 수순을 밟듯이 자연스럽게 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교직은 아버지의 큰 선물이었네요. 소쩍새 우는 두메산골에 소재한 작은 학교에서 교사로서 첫발을 내디딘 것도 제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첫 제자들이 50대가 되어서도 저를 찾아와 졸업식 때 눈이 툭툭 붓도록 울었던 얘기를 하며 깔깔댑니다. 시집도 안 간 처녀선생님이 엄마 같았다고. 그날을 위해 새로 지어 입은 한복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님 처럼 시골학교 여선생의 따뜻한 시선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의 커닝 체벌 사건

“때리는 것도 습관이다. 매는 처음부터 들지 마라.”

교사로서 첫 출발하는 딸에게 선배 교사인 아버지께서 하신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와의 약속이 무너진 건 두 번째 학교에서였습니다. 발령장 하나가 소쩍새 우는 두메산골 중학교에서 도시의 한복판 고등학교로 여교사의 삶을 강제 이동시켜 버렸습니다. 두 학교는 많은 게 달랐습니다. 1987년 당시 성남은 한창 팽창해 가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꽤 많은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중 ○○고는 지역의 ‘명문고’로 자타 공인받던 때였지요. 따지고보면 ‘명문고’라는 허울이 단지 S대 합격생 수만으로 가늠되는 단순 숫자 놀음이었건만.

일 년이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나는 ‘명문고’ 탈환을 위한 전쟁터였다고나 할까요? 매달 치르는 모의고사 결과는 인근 학교의 평균치와 비교하여 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교무회의 때마다 마이크를 통해 과목별 순위가 담당지도 교사의 이름과 함께 발표되었고 교사의 성적표나 다름없는 이 표는 프린트되어 전 교사의 책상 위에 뿌려졌습니다. 눈에 빨리 들어가듯이 프린트물의 숫자에 나도 모르게 집착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인권유린인지에 대해선 서로가 침묵했습니다. 지식 전달자로서 교직의 책무성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침묵에 대한 합리화가 가능했을까요?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에 나 또한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어기고 매를 들게 된 사건이 발생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두 학생이 커닝을 조직적으로 한 것입니다. 커닝한

학생들을 과학실로 불러 놓고 내 입에선 뜻하지 않은 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벌 받을래? 맞을래?” 둘은 망설임 없이 맞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한번 잘못 던지는 바람에 체벌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벌보다 매를 택한 둘의 선택이 나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매서운 매를 날려 둘의 선택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아버지와의 약속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양쪽 벽에 한 명씩 엮드려 세우고 온 힘을 다해 둘의 엉덩이를 번갈아 가며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운이 빠져 갈 때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건달 만큼만 맞아보라는 말에 웃음기까지 보였던 둘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나 봅니다. 건네준 비누와 수건을 받아 시원스레 세수한 후 배달 온 자장면을 말끔히 먹어 치우는 호탕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을 연발하면서 둘은 귀가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과학실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셋만이 아는 비밀로 조용히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뜻하지 않게 나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둘씩이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건만 때때로 둘은 엄석대가 되어 나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 둘의 과도한 충성심은 1년 남짓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전파력은 막강하여 건드리면 안 되는 무서운 교사로 낙인찍혀 눈짓 하나로도 수업 시간의 방해물들이 손쉽게 제거되었습니다. 덕분에 교무회의 때마다 나날이 상승곡선을 긋는 성적표를 받게 되었지만 교실에서 사라진 건 단지 수업을 방해하는 소란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시끌벅적한 소음과 함께 교실 밖까지 넘쳐나던 생기 있는 웃음소리가 사라져 가고 있었지요. 주변을 맴돌던 아이들도 멀찌감치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는

애초에 들지 말라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키팅 선생님처럼 학생들을 사랑의 눈으로 따뜻하게 바라보던 여교사의 시선이 체벌과 함께 싸늘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칭찬만큼 좋은 훈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요. 체벌은 어떠한 경우라도 선택이 아닌 금지사항이 되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만 벌은 흔들리는 아이를 균형 잡게 하는 뒷바퀴가 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 집 근처에 사는 옛 직장 동료 한 분을 만났어요. 동네 벤치에 앉아 스승의 날이라 자연스레 제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제자가 찾아와 선생님 덕분에 시 한 편을 멋지게 외워 여자 친구의 마음을 쉽게 살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전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압수한 핸드폰을 무조건 시 한 편씩 외워오면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빼앗긴 핸드폰을 돌려받기 위해 ‘별 헤는 밤’, ‘님의 침묵’ 등을 외우느라 진땀 뺀을 이과 소년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절로 나네요. 인성 교육에도 좋은 멋진 별이지 않습니까?

방향을 잃고 속도만 내다

둘째 아이 낳고 3년 육아휴직 기간에 친정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 지셨습니다. 정년을 코앞에 두고 40여 년을 지키셨던 교단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지요. 이듬해 동생마저 불의의 사고로 1급 장애인이 되어 교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대기업 입사를 선호하던 때라 다니던 공대를 접고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는 것은 남자로서 흔치 않은 선택이었지요. 아버지다운 권유가 먹혀들었던지 할아버지 때부터의

가업을 이어 보겠다는 게 남동생의 의지였습니다. 불과 1~2년 사이에 벌어진 아버지와 동생의 가슴 아픈 퇴직은 나의 복직에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전과 후의 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지요. 근무시간만 성실히 임하던 내가 야간과 공휴일에도 학생지도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웬만한 과학 관련 대회는 거의 출전하였고 나가는 대회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학생지도에 호랑이 눈썹이라도 뽑아올 기세로 열정을 다했으니 어찌면 당연한 결과였겠지요. 과학 관련 대회 중 가장 공신력 있는 대회로 ‘과학동아리 발표대회’와 ‘과학탐구토론대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시·도 대회에서 1등을 한 학교끼리 그들만의 리그로 전국대회를 치르는데, 이 대회 모두 1등을 따냈습니다. 절대 녹록지 않은 일이었지요. 별다른 묘수는 없고 물리적인 시간 투자가 답입니다. 과학탐구토론대회 준비 기간에는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음식물의 부패와 보관’에 관한 주제로 중학생들에게 논문 54편을 출력해 공부시켰어요. ‘전통적 음식물 보관법’에 관해 숯과 벚짚의 효능을 다룬 것들이었습니다. 대회 전날 최종 리허설에 참가 학생 세 명의 학부모를 참석시켰습니다. 리허설을 마친 후 C군의 아버님은 대회의 당락에 관계없이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옆드려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실적들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로 상급학교 진학에 쓰였으며 어떠한 미사여구보다 경쟁력 있는 입시자료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미친 질주는 옳은 방향이었을까요?

어느 날 사석에서 만난 과학고 교감의 말이 내 머리를 도끼로 내리쳐 정신이 번쩍 들게 했습니다. 과학대회에서의 수상실적으로 특목고의 관문을 어렵사리 통과했던 C군의 안부를 묻는 얘기 끝에 나온 말입니다.

‘선생님이 학생 지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는 잘 알겠는데 어느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학생의 입시 당락을 결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경제학 책에서 보았던 ‘기회 불평등’보다 더 최악이 ‘조건 불평등’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학생들에게 과학적 사고와 탐구정신을 키워나가게 하는 동기부여로 스스로 길을 찾아가게 하는 데 그쳤어야 합니다. 지나친 교사 주도와 주입식으로 이끌어 낸 결과물들을 학생들의 과학고와 대학 입시에 도움닫기로 제공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요즘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장관들의 자녀 입학 특혜 논란과 다른 점이라면 직계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이겠지요. 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보았던 입시 코디네이터와의 차이라면 돈 대신 명예를 쟁겼을 뿐이라고 누군가가 몰아붙여도 뭐라 변명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미다스의 손’이라는 헛된 자만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전국 대회 1등을 하면 중앙지는 아니어도 지방신문에 수상소감 인터뷰가 들어오곤 했는데 인터뷰 끝머리에 ‘시작 종이 울려 교실을 향하는 내 마음이 그리 편치만은 않다’고 알쏭달쏭 한 여운을 흘린 걸 보니 그때도 어쩌면 틀리다는 생각을 반은 했던 것 같습니다. C군은 끝내 적응 못하여 힙합 하겠다며 자퇴를 했다 하네요. C군이 쟁취했다가 버린 파이 한 조각이 누구에겐가는 박탈당한 소중한 미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결국 어긋난 사랑은 빗나간 방향으로 미친 질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K군 이야기

그날 처음으로 K군이 하는 긴 문장의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샘, 오늘 아빠가 오신대요. 야간자율학습 안 하고 집에 갈래요.”

복도 저쪽 끝에서부터 K군이 달려와 달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아이는 승낙 같은 건 개의치 않고 집에 갈 채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순간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빠가 벌써 나오실 리는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이것저것 캐물어 볼 수가 없어서 오랜만에 아빠를 만나니 좋겠다며 의구심을 감춘 채 보내주어야만 했습니다. 애들 사이에 K군만 편애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 해 오월이었습니다.

새 학급 담임 배정을 받자마자 여러 날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던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저는 K의 아버지입니다. K가 세 살 때 아내와 이혼한 후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K는 제가 연락도 잘 안 되는 곳으로 돈 벌러 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지금 의정부교도소에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간간이 아빠의 연락을 거짓으로 전하고 있고 아이는 ○○고시텔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염치 없지만 선생님의 보살핌을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읽고 한동안 멍해진 마음을 추슬러야만 했습니다. 시간표를 확인한 후 수업 없는 시간을 택해 고시텔로 달려갔습니다. 고시텔의 실장이라는 분이 아빠의 거짓 소식을 전하는 지인인지라 우리는 쉽게 공범이 되어 이모든 사실을 비밀에 부치기로 하고 K군 방문을 열고 들어가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의 방은 생존을 위해 숨쉬기만 가능할 법한 최소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돌아선들 바로 눈앞이

벽으로 막히고 마는 이곳은 차라리 교도소보다 나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만 지내도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은 끔찍한 이곳에서 매일 혼자서 학교를 오가고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 왔습니다. 주말에 K군 아버지를 만나러 교도소로 갔습니다. 웬지 그래야만 형클어진 머릿속이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면회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짧은 시간에도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장면처럼 K군 아버지가 창살 너머 저만치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마치 마술에서 풀려나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한 눈매가 K군과 꼭 닮았습니다. 보험 사기에 휘말려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 바람에 실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빨라도 올해 안으로 나가지 못할 것 같아 조심스레 편지를 했지만 면회 올 줄은 몰랐다면 몸 둘 바를 몰라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이들 부자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형클어진 머릿속은 탄원서라는 것을 써 보기로 정리되었습니다. 맨 먼저 교장실로 내려가 그간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장선생님은 사정은 안타까우나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너무도 쉽게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니 누구에게 부탁할 더 이상의 용기가 나지 않아 많은 사람을 동원해 보겠다는 생각을 접고 양보다 질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고시텔을 찾아가 아이의 방과 식사를 해결한다는 공동취사장의 취약한 환경을 사진으로 핸드폰에 담아왔습니다. 그곳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도 낮부터 거나하게 취한 투숙객이 아이의 방 맞은편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술 주정을 하고 있는 아찔한 광경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유해 환경이

청소년에게 얼마나 위태로운지 설득해 보려고 온 정성을 다해 밤새워 탄원서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날도 오월의 햇살은 눈부시고 따사로웠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식당 문을 나서는데 복도 저쪽에서 K군이 나를 향해 잔걸음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선물을 들고 따라오고 있는 분은 먼발치에서 봐도 K군 아버지가 분명했습니다. 어찌나 반갑고 기뻐던지 하마터면 아버지와 구면임을 들킬 뻔했습니다. 탄원서가 큰 힘이 되어 생각지도 않게 빨리 나올 수 있었다며 고마워하십니다.

K군은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 덕에 여학생들 간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거기다 말 수가 없어서 특유의 시니컬한 신비주의까지 더해지니 여러 여자아이가 주변을 맴돌 수밖에. 언제부턴지 그 소용돌이 속에 편애한다는 교사까지 덩달아 끼어들고 있었나 보다. 공부까지 잘하기는 애당초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기초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오랫동안 체화된 학습 무기력증을 이제와서 어찌 아이 탓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늦게라도 학교에 오면 그나마 꼬박꼬박 밥이라도 챙겨 먹을 수 있지 않겠나 싶었다. 성적이 나빠도 지각을 해도 모든 게 용서됐던 이유였다. 속 사정을 모르는 아이들 눈에는 이 모든 용서가 편애였고 아무런 해명도 없이 거듭되는 많은 편애들은 결국 편애하는 교사로 낙인 되는 자충수가 되었었나 보다. 그런들 어떠하랴. 옛말에 가난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더니 나 또한 그 사랑을 들켜버렸나 봅니다. 아버지의 귀환 이후 아이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밝아져갔다. 본능적 사랑이란 이처럼 강력하고 위대하다. 마음 한구석 무겁게 자리했던 납덩이와 함께 아이들 사이의 편애에 대한 편견도 차츰 흔적 없이 지워져가고 있었습니다.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된 나의 마지막 담임교사 시절은 많은 일화들과 함께 꿈 단지 속에 담겼습니다. 일 년 동안의 추억과 앞으로의 희망을 알록달록 색지에 적어 타임캡슐 꿈 단지에 넣어 학교 운동장 후미진 잔디밭에 꼭꼭 묻었습니다. 십 년 후 만나서 열어보기로 한 꿈 단지에 유독 지구과학만을 좋아했고 성적 또한 그 과목만 유일하게 탁월했던 K군은 꿈 단지에 과연 무엇을 적어 넣었을까요? 지상의 현실이 가혹했던 만큼이나 우주를 향해 있던 K군 꿈은 지금쯤 어디만큼 뻗어가고 있을까요? K군에게만큼은 ‘고통 총량의 법칙’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적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을 이미 겪을 대로 겪은 K군 앞날에 꽃길만 남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K군은 아버지의 출소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고 있겠지요. 며칠 전 모교를 다녀온 학생 몇몇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타임캡슐을 담은 꿈 단지가 묻혀있던 잔디밭에 체육관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꿈 단지는 불도저로 파헤쳐져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나 봅니다. 약속한 날 저는 그곳에 가 보려 합니다. 어쩌면 K군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마지막 학교에서 마지막 담임을 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김 선생님! 이제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각적인 정보화 시대에 학교라는 공간은 턱없이 협소할 뿐더러 학생들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기조차 어렵지요. 백 년을 내다보며 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어불성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더욱 치중해야 할까요? 물론 지식 전달의 기능도 간과해선

안 되지만 기능적 수업 방법 모색보다는 인성교육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수만큼 다양한 교육관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교육에 무슨 왕도가 있겠습니까만 뻔한 소리 하나를 더 보태볼까 합니다.

중등교육과정은 전인교육입니다. 경주마처럼 치닫는 경쟁을 부추겨서는 안 되고 협업을 가르쳐야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볼 때 가장 좋았던 추억으로 경진학교(장애인학교) 과학 봉사활동을 꼽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학생들은 경쟁보다는 협업을 받아들입니다. 아직 사고가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소년기가 인성교육의 절대적 시기라고 봅니다. 인성교육의 비법은 사랑이라는 뻔한 얘기에 크게 공감하며 재차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는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만 가능합니다. 교육의 성공은 자기 긍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교사이기에 가능한 일들이 무수히 많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쯤에서 교사 인생 훈수를 끝낼까 합니다. 35년 교직 생활을 되돌아 보니 모든 게 사랑이었다는 이야기를요. 이젠 코로나도 엔데믹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 여름이 오기 전 만나요, 우리.



“아~~네. 청주 말씀이세요? 청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아뇨, 청주가 아니라 충주요. 관사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게 첫 발령지를 알리는 전화가 왔다. 충주라니 OMG!! 개인 사정으로 자택(세종)에서 충주까지 출퇴근해야 했던 나는 전화를 끊고 직장까지 걸리는 시간과 통근 방법을 검색해 보았다. 왕복 5시간 내외. 기차와 대안은 없어 보였다. 첫 발령지를 통보받고는 잠시 멘붕 상태였지만 긍정과 도전의 마인드가 언제나 충만했던 나는, ‘아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아무 연고도 없는 중부 내륙 도시 충주를 언제 경험해볼 수 있겠어?’라며 ‘할 수 있다’는 최면을 끊임없이 걸었다. 그래! 출퇴근하느라 거리에 흠뻑리고 다니는 시간마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어. 그렇게 다부진 결심으로 혹독한 나의 공직 적응기는 시작되었다.

첫 출근 하던 날,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소장님께서 물어보셨다. 출근길 힘들지 않았냐고. 자기 최면에 빠져버린 나는 너무나도 오랜만에 탔던 기차여행의 감상에 젖어 ‘소풍 다녀오는 심정으로 출근했습니다’라는 망언을 나도 모르게 내뱉고 말았다. 소풍은 가~끔 아주 가~끔 갈 때 가슴 설레고 즐거운 것이다. 매일매일 떠나야만 하는 소풍은 아무런 매력도 없고 집에서 그저 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임을 그뻔 몰랐을까?

아마 그 당시 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할 때 자주 인용되는 칼레르보 오베르그(Kalervo Oberg)의 컬처쇼크(문화충격) 1단계 속에 깊이 빠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흥미롭고 신비롭고 달콤하기까지 한 1단계의 허니문은 만 하루도 지속되지 않았다. 긍정과 도전의 마음도 빛의 속도보다 빨리 사라져 버렸다. 매일매일 출퇴근 시간은 예상을 넘어 거의 5시간 30분이 걸리기까지 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면에서 즉각 깨어난 것이었다. 출근하면 동료들이 “오늘은 별일 없으셨어요?”라고 묻는 것이 나에게 건네는 일상의 인사였다. 그랬다. 사건이 없는 날은 오히려 적응되지 않았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팀원들과 공유하면서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런 내가 딱했는지 동료들은 비연고지 발령에 함께 분노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들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공감 덕분은 아니었을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락하는 기차로 인해 지각을 면하고자 영하의 날씨에 속옷이 젖도록 뛰어 출근하면서 고생한 내 몸은 병원 신세를 여러 차례 지기도 했다. 기차 시간에 업무 스케줄을 맞춰야 해서 유연근무를 해도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출퇴근을 하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던 기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게 되었다. 아무리 피곤해도 긴장감을 떨쳐내지 못해 집에 도착하기까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는데 내려야 할 정류장을 한 곳 남겨놓고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던 거다. 체력이 더 이상 버텨내지 못했던 듯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오송역을 출발한 후였다. 객실을 순회하는 역무원을 찾아 사정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봤다. 역무원의 도움으로 다음 역에서 안전하게 내려 잠시 후 기차를 갈아타고 다시 오송역으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 그 기차의 종착역은 동대구였는데 종착역까지 가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분명 백 번 감사한 일인 것이다.

임용 후 맞이한 첫 계절은 늦가을, 겨울인지라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항상 창밖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여전히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간되지 않는 날도 많았다. 기차에서 잠깐씩 눈을 붙이는 횟수가 잦아졌다. 내려야 할 기차역을 깜빡 잠들어 내리지 못했던 그 일 이후로 휴대폰은 알람 설정이 되어있었다. 그러던 12월의 어느 출근길, 기차에서 알람이 울려 눈을 떴다. 창 너머를 보았다. 창밖은 여전히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온세상은 무채색으로 덮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회사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몰라 잠깐 멍을 때리며 정신을 차려야만 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한없이 몰려왔다.

회사에 와서 그 얘기를 동료들에게 하면서 함께 웃고 넘어갔지만 나에게 공직생활은 그렇게 달콤함(Sweet)은 없고 비애(Sorrow)만 가득 안고서 시작되었다. 물론 지금은 관사를 지급받아 처음보다는 덜 힘든 상황이지만 국가직 공무원의 고충을 그 누구보다 똬뚱 깊이 실감한 나에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철저한 소명 의식이 없다면 견디기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다. 오랜 기간 비연고지 근무 또는 근무지 순환 근무를 하고 계신 선배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본인을 사물에 빗대어 설명해보세요.”

‘앗!! 이진 반칙이잖아, 공무원 면접 기출문제집에서 본 적도 없고, 면접 일타강사도 전혀 얘기한 적 없는 질문이잖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50여 일 채 되지 않게 공부하고 필기시험 합격을 한 나의 운은 딱 여기까지구나, 내 나이에 독학으로 필기 합격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 ‘아냐,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면접/스피치는 무엇보다도 나의 강점 이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짧은 시간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와중 갑자기 ‘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웬 북? 면접 초반 공식윤리를 설명할 때부터 긴장하여 말이 빨라지고 평소와 다른 나의 모습이 사정없이 두들겨 맞는 동네북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일까? 아무리 편하게 마음을 먹어도 면접 순간은 어렵고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면접은 심지어 필기시험 성적을 무용지물로까지 만들어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는 공식평가 절차가 아니었던가? 그런 면접 고사장에서 이성적 사고가 잠시 오작동하여 사물에 빗대어 본인을 설명하라는 면접관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말았다. “저는 큰 북에 저 자신을 빗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공 깊고 단단한 북은 아무리 강하게 두드려도 찢어지지 않고 맑고 청아한 소리로 답을 해 줍니다. 저도 앞으로 몸담게 될 ○○○○의 도움을 받고자 북을 두드리는 모든 분에게 깊은 울림의 소리로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계된 상황의 몇몇 질문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압박 질문들, 그렇게 나의 면접은 끝이 났다. 면접 순번도 오후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끝나고 나니 모든 부스가 텅 비어 있었다. 허탈함과 공허함이 몰려왔다.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이 초조하거나 힘들지는 않았다. 면접의 끝맺음에서 입직하면 초심을 잃지 말라는 긍정의 시그널을 받아서일까? 압박 면접이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건 공직인이 지니고 있어야 할 기본 소양과 문제해결 능력을 가늠해보는 자리였다는 생각이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내 생애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단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기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냥 텅텅할 수 있었던 것 같았다.

그 당시 나는 2년여의 제주살이를 정리 중이었다. 곧 떠나야 할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기억 깊숙한 서랍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싶어 제주 이곳저곳에 나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었다. 미래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겸손을 잊어버리게 되면 제주 바다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했던 모습을 떠올리고, 인내를 잃어가게 되면 제주 아낙네들 인고의 세월을 떠올리리라 생각하며 그렇게 제주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긴장한 탓이었을까? 합격발표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던 시점, 잘 꾸지 않던 꿈을 꾸기까지 했다. 길몽이었다. 부담스럽지 않은 늦여름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조금씩 스며들던 어느 날 합격 소식을 접했다.

재직하고 있는 우리 부가 추진하는 대표사업 ○○○○○○제도의

위력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시보를 갖 뎌 나는 어느새 투 스타가 되어 있었다.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별이 되고 싶었던 적은 있지만 별을 달게 되는 계획은 애당초 인생 설계에 없었던 일이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묘미이기도 하지만 당황스러웠다. 수치스러움으로 설명하기에는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이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자체가 부정되고 관계를 맺는 나의 진심이 왜곡되는 듯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서러웠다. 눈물이 한없이 흘러나왔다. 자존감은 한없이 추락하고 나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처음 별을 달던 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며 울었다. 며칠간은 회사 앞에만 오면 숨이 막히고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별’은 어떤 의미일까?

알폰스 도테의 ‘별’은 목동에게 세상의 그 어떤 양보다도 귀하고 깨끗한 아가씨이며 빛남과 고귀함을 상징한다. 윤동주의 ‘별헤는 밤’이라는 시에서 별은 화자에게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기도 하면서 간절한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별은 어떤 의미일까?

누군가에게는 공존이고 희망일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능력을 인정받은 상징이자 권력의 표상일 것이다. 또 누군가에게는 시대의 아이콘일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별은 명울이고 깊게 베인 상처이고 아물지 않은 흉터이다.

“난 별 단 여자야, 그것도 투 스타야, 투 스타.”

공무원 면접 고사장에서 뒤편 면접관의 질문에 왜 하필이면 나를

북에 비유했을까? 그것도 큰북 말이다. 내가 북, 그것도 큰북에다가 자신을 빗대었으니 누군가가 신문고로 내 가슴을 사정없이 휘갈겨 때린 것이 아닐까? 누군가로부터 자존감을 한없이 뭉개는 말을 들어도 진정 운명이고 업보란 말인가? 스스로 자신을 북이라고 지칭했으니 ‘말이 씨가 된다’라는 옛말 하나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

신문고 사건은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트라우마이고 상처이고 주홍글씨이다. 그렇지만 민원인을 응대하는 것이 일상의 전부인 나에게 그러한 감정적 소모는 사치이다. 그들은 취업 취약 계층임을 내세워 우리로부터 보호받고 지지받고 싶어 한다. 민원 취약 계층인 나도(우리 부 동료들도) 똑같이 보호받고 싶어도 그들에게는 강자로 여겨질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안다. 국민을 섬기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할 책무감을 우리 공직자들이 외면할 리 없고 나 또한 공직자로서 다른 동료들에게 누가 되는 일을 할 수는 없다. 우리는 국가를 대신하여 한없이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 때론 그들의 이유 없는 질책마저 우리를 향한 관심이고 애정으로 여겨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대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생활 속으로 깊숙이 스며드는 적극 행정이 빛을 발하면 발할수록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져만 간다. 간간이 정당하지 못하지만 당당한 그들의 요구에 지친 어깨가 내려앉기도 한다. 고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의 불만족 현상인 긍정적 기대 불일치 이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신문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였을까? 민원인을 상담할 때의

나의 말투, 언어 선택, 표정과 몸짓 등등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다. 혹시라도 내가 가진 가치관을 상담 과정 중에 민원인에게 내보이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한 적은 없었을까? 내가 제공해 준 정보가 그들에게 정말 유용했을까? 우리부의 제도를 통해 그들이 겪고 있는 상실감과 절망감이 조금이라도 사라지게 되고 희망이라는 싹을 틔웠을까? 내가 처한 상황적 스트레스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해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담 과정에서 그들에게 표출되진 않았을까? 온갖 생각을 다 해보았다.

그런 가운데 나를 돌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입직 후 나는 민원인들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더 부끄러웠던 것은 평소의 나 정도라면 충분히 친절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만과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서비스 마인드에 대해 무지했고 프로답지 못한 부분이 분명 있었던 것이다. 대민 서비스와 민원인들이 느끼는 기대 불일치에서 오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의 근본적 오류를 바로잡고자 나는 C/S 과정 교육을 탈격 신청하고 CS 전문가 양성 과정 수업을 참여하게 되었다.

팀원들이 의견을 모아 CS의 정의를 내리는 시간이었다. 나의 상담 사례와 별을 달게 된 나의 사연을 공유하였다. 동료, 선배들의 대처방식이 궁금했다. 다른 솔루션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신입 공무원으로서 선배들에게 지혜를 빌리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었다. 무엇보다 마음속 깊이 인정받고 위로받고 싶었던 나의 부끄러운 욕구를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사례 발표가 끝났을 때, 나는 모두에게 ‘제 잘못이 아니라 말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렸다. 내 잘못이 어찌 하나도 없었겠는가?

하지만 감사하게도 함께 한 동료들은 모두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해주셨다. 마음속 응어리의 실타래가 핫 초콜릿 속 마시멜로처럼 조금씩 녹아내렸다.

대민 서비스를 일선에서 제공하다 보면 두들겨 맞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현장에서 폭언을 하거나, 아주 가끔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폭력을 휘두르는 분들도 더러 있다. 꼭 물리적 폭행을 당해야만 아픈 것은 아니다. 꽃으로라도 우리를 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살면서 하지 않아도 될 경험을 삶의 터전인 일터에서 겪게 되고 또 동료들이 아파하는 순간을 목격한다. 동료들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프다. 민원인들은 취업 취약계층이지만 그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상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댁으로 돌아가서 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여 불친절 신고를 신속히 끝낸다. 전화기 너머 전달되는 진심을 왜곡하기까지 한다. 그런 분들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민원 취약계층인 것이다.

나는 요즘도 가끔 생각한다. 그때 왜 나 자신을 북에 빗대었을까? 조금 식상할 수도 있지만 빛과 소금에 비유하거나 비타민과 같은 활력소로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그 많고 많은 단어 가운데 내가 선택한 단어는 하필이면 왜 큰북이었을까? 내공이 단단한 북은 찢어지지 않고 더 큰 울림을 준다고 했는데 나는 언제쯤 그런 내공을 쌓을 수 있을까? 아직도 민원인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움츠려 드는 자신을 본다. 단단히 여물지 못했나 보다. 아직 성장통은 끝나지 않았나 보다.

하지만 다행히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나와 연결된 소중한 인연들이 있다. 첫 대면 상담 시 너무 친절히 응대해 줘서 감사하다고 추운 겨울

눈발에서 찾아낸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두 번째 상담 때 전해주신 민원인 A, 보험설계사로 취업 후 취업 성공수당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지만 충족 요건을 세전 250만 원으로 잘못 알고 계셔서 수당을 끝내 못 받으신 분, 그래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지난 몇 달간 즐거운 마음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또 행복했다고 말씀해주셨던 민원인 B, 구직활동 촉진 수당 50만원으로 당신은 한 달 살 수 있냐고, 나에게 당신은 월급 얼마 받느냐고 따져 물으시곤 결국 중도 포기한 민원인 C, 대기업만 고집하다 상담 과정에서 벤처기업의 장점을 함께 알아본 후 생애 첫 취업에 성공하고 기뻐하면서 고맙다고 전화하던 민원인 D, 그들 중 어느 한 분도 나에게 특별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

나는 영광의 상처인 별을 가슴에 두 개 품고 있다. 그 별들은 너무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어 지금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도 없다. 하지만 그 별들의 빛이 바래지는 방법을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은 더 밝고 더 환한 빛의 별들을 많이 모아 내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이미 내 가슴속은 작은 별들이 하나둘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민원인 A는 감동의 별, 민원인 B는 긍정의 별, 민원인 C는 연민의 별, 그리고 민원인 D는 도전의 별, 그들의 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밝고 더 환하게 빛난다. 그 별들은 나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그 별들은 내 일의 자긍심이자 힘든 순간을 잊게 하는 에너지이저이다. 공직생활의 비애(Sorrow)를 사라지게 할 스위트(Sweet)인 것이다. 힘들고 지친 순간 그 별들은 달콤한 별사탕이 되어 노곤함을 순식간에 녹여줄 것이다. 나처럼 상처받은 동료が 있다면 아낌없이 나누고 싶은 우리 모두의 별사탕인 것이다.

퇴직할 무렵 누군가 “지난 공직생활이 어떠셨어요?”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공직이 천직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소중한 인연들이 전해주고 간 별들로 인해 빛나던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국가의 지원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북으로 여겨질 숙명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내공이 깊고 단단해 아무리 두드려도 찢어지지 않고 깊은 울림의 소리를 전해주었던 그 크나큰 북이 바로 나였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나지막이 나에게 속삭이고 싶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일터를 떠나게 되어 아쉽다고, 너는 어디에서도 항상 찬란하게 빛나는 모두의 별이었다고’



2022년 공직문학상

—

심사평

공직사회의 문학적 저력과 그 성취력을 가늠할 수 있어

글이 잘 읽혀야 한다는 논리는 독자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이다. 반면 글을 잘 써야 한다는 압박은 작가 쪽에서 묻는 자기 답안이다. 이러한 문제와 답안 사이를 왕래하며 밀밀한 사유를 투자해 얻는 게 글, 곧 작품이다. 바쁜 일상 업무와 ‘코로나19 펜데믹’에서도 이 문제와 답안을 오래 궁구했을 응모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린다.

작품들을 읽으며 글쓰기란 곧 사유와 치유와 공유의 삼각관계 속에 존재하여 능히 소통해가는 활동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업무에 잠깐씩 벗어나 상상의 글을 구사함은 침체되고 침몰되는 자아에 대해 몰입 현사하는 한 기폭제가 된다. 그건 잠재된 창의성을 분출시키는 기(氣)의 성취, 나아가 그 추진력이기도 하겠다.

작품 면면을 섭렵한 결과, 시에서는 주로 대상에 대한 심리 변화와 사물에 투영된 개성적 이미지를 다룬 게 많았고, 가족 소통과 자연 서정을 융합하거나 여행을 통해 갇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실로 다양한 틀을 보여주었다. 시조에서는 전통적인 대상과의 내밀한 언어를 꿈꾸며 유대감을 심화해 가는 경향이였다.

수필은 존재 이유를 상실하며 부딪치는 데서 얻는 새 깨달음, 그리고 소유에의 공허감 같은 상실의 문제, 나아가 대상에 대한 상상과 편력의 자유를 피력함에 활달했다. 한편, 일등의식과 편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정서를 다루는 기술능력도 만만찮았다.

소설에서는 정제된 구조에 판타지적 스토리가 삽입된 작품이 특별히 주목되었다. 동시에서는 동심적 상상력으로 형식의 조화미를 보인 작품이 많았다, 동화에서는 주제를 치밀하게 구성해 주인공에 대한 내밀한 심리 변화를 추적한 성장동화가 한 경향성으로 나타났다.

또 공직윤리와 공직공감에서는 주로 현장적인 소재가 부각된 점, 탄탄한 문장력으로 사안을 객관화시키는바 관심의 지점이었다.

이러한 각 부문에서 도드라진 봉오리들은 기성 문단의 나태한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반등적 기봉(起峯)으로 우뚝해 보인다. 나아가 유연한 글의 흐름과 개성적 문체, 거침없는 이미지의 도입 등은 글쓰기에 대한 어떤 참을 수 없는 질주로 여겨졌다. 그게 제어할 수 없는, 아니 멈추면 아니 될 기세라는 걸, 산처럼 쌓인 응모작품을 읽는 것으로부터 점층된 이해가 가능했다.

작품에 따라서는 신춘문에 도전을 능가할 그 구성과 표현에 기대를 모으는 작품도 있었다. 그에 쏠린 눈길은 공직문학상의 위상을 넘어서기에

충분했다. 코로나의 환경, 경제의 불황, 복지의 실종 같은 현실적 난관을 뚫으며 의지가 각판화된 듯한 작품 층은 더욱 많았다. 해서, 공직사회의 문학적 저력과 그 성취력을 가늠해 보게 하는 기회의 자리였다.

글쓴이들이 현실에 침잠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고민하고 성찰하며 자아를 전언하는 강고한 뜻이 지면의 열기로 번졌다. 그렇듯 공직문학상을 달구었다. 그 동안 심사자에 앞서 한 독자로 착각한 때가 더러 있었다. 저마다 힘든 삶의 가치를 옥반석에 올리고자 하는 뜻을 다 읽은 날엔 공감의 호흡이 곧 밀물이었다. 그렇다. 공직 대한민국의 이 문학적 밀물은 바로 국력의 기력과 축력, 그 동력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심사위원장

노창수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부문별 심사위원

시	노창수, 임종본
시조	권혁모, 김민정
수필	권대근, 박미경
단편소설 등	유만상, 공애린
동시	윤영훈, 박옥주
동화	심후섭, 김남희
공직참여	김종화, 심봉순

2022 공직문학상



발 간 등 록 번 호

11-1760000-000051-10

공 직 문 화 상

2022



수상작품집

대상 <목련행 야간열차> 외 46편



국민을 위해하는
전공행정